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학술회의

세계유산과 한국의 전통산사

개 회 사

지난여름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해온 전통산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14개 기관이 합심하여 발족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오늘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을 대표하는 천년고찰들을 세계의 유산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그 염원으로 전통산사의 정체성에 대한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를 기반으로 우리의 전통산사가 가진 장점은 전승하고 단점은 보완하여 2018년에 반드시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를 바랍니다.

대설을 지나 동지를 기점으로 겨울은 정점을 향해 다가 갈 것입니다. 하지만 소한이 찾아오고 대한이 다가온다고 추위가 우리를 묶어 두진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봄을 알리기 위한 겨울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불법이 전승된 이래 수많은 난관과 시련의 엄동설한이 있었습니다. 내적인 탄압과 외침의 불가항력 속에서도 한국의 전통산사가 세계유산으로 재조명되기까지는 우리민족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통산사는 진리와 자연 그리고 믿음을 행하는 사람과의 조화를 기본으로 한 가람배치,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를 포용하는 자비, 모든 곳이 진리를 간직하고 있어 찾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 깨우쳐 부처가 될 수 있게 만든 도량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년을 한결같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해온 산사에 대해 ‘세계유산과 한국 전통산사의 재조명’이란 기초발표를 시작으로 ‘전통산사의 창건과 전승’, ‘전통산사의 입지조건’, ‘전통산사의 가람배치’, ‘한국 전통산사의 조경과 세계유산적 가치’를 주제로, 과연 한국의 전통산사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근본적인 물음에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전통산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고 학술회의를 준비해 주신 이해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님들과 발표자, 토론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기를 축원 드립니다.

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문화부장 **혜 일**

한국의
전통산사

일 정

사회자 : 김진섭(사무국 책임연구원)		
13:00~13:30	개 회 식	개회사
13:30~14:00	기조강연	세계유산과 한국 전통산사의 재조명 홍선 스님(직지사 주지스님)
14:00~14:30	주제발표1	전통산사의 창건과 전승 정병삼(숙명여대 교수)
14:30~14:50	다과 및 휴식	
14:50~15:20	주제발표2	전통산사의 입지조건 김일림(상명대 교수)
15:20~15:50	주제발표3	전통산사의 가람배치 이상해(성균관대 명예교수)
15:50~16:20	주제발표4	한국 전통산사의 조경과 세계유산적 가치 홍광표(동국대 교수)
16:20~16:40	휴식	
16:40~18:00	종합토론	좌장 이해은(동국대 교수,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 토론 남동신(서울대 교수) 최원석(경상대 교수) 최재현(건국대 교수) 강영조(동아대 교수)
폐 회		

한국의
전통산사

목 차

기조강연	08
------	----

세계유산과 한국전통산사의 재조명

홍선 스님 | 직지사 주지스님

주제발표 1	10
--------	----

전통산사의 창건과 전승

정병삼 | 숙명여대 교수

주제발표 2	34
--------	----

전통산사의 입지조건

김일림 | 상명대 교수

주제발표 3	62
--------	----

전통산사의 가람배치

이상해 | 성균관대 명예교수

주제발표 4	78
--------	----

한국 전통산사의 조경과 세계유산적 가치

홍광표 | 동국대 교수

기조강연

세계유산과 한국 전통산사의 재조명

홍선 스님
직지사 주지

주제발표 1

전통산사의 창건과 전승

정병삼

숙명여대 교수

전통산사의 창건과 전승

정병삼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1. 사찰의 창건

현재 한국의 사찰은 대다수가 산 속에 자리잡고 있는 산사(山寺)이다. 한국에서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원 중에서 절대 다수가 도회지(都會地)에 자리잡은 사찰이 아니라 산중에 위치한 산사이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전통적인 사찰을 생각할 때 우선 산사를 떠올리게 된다.

산사들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본당의 주 건물을 중심으로 여러 건물들이 복합 공간을 이루며 다양한 성격의 문화재와 어울려 신앙 공간이자 수행 영역을 이루고 있다. 승려들이 수행하며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전통 구조물을 부단히 계승하며 그때마다 새로운 건물과 구조물을 보완하여 오늘의 모습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불교가 종교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신앙과 예배 공간인 사찰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한국에 불교가 처음 전래될 때 반드시 사찰 창건 사실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불교 수용기에 건립된 사찰은 산중이 아닌 도시에 세워졌다.

한국에 불교가 처음 전래된 것은 전진에서 사신과 함께 승려 순도(順道)를 파견하여 불상과 경문을 보낸 372년(고구려 소수림왕 2)이었다.¹⁾ 고구려에는 2년 뒤에 동진에서 아도(阿道)가 와서 이듬해인 375년에 성문사(省門寺, 肖門寺)와 이불란사(伊弗蘭寺)를 세워 각각 순도와 아도가 주석하게 했다.²⁾ 이것이 한국 사찰의 시초이다. 『삼국사기』에는 이밖에 392년(광개토왕 2)에는 평양에 9사를 창건하였고, 498년(문자왕 7)에는 금강사(金剛寺)를 창건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들 사찰은 모두 왕경(王京)에 창건된 절들이다. 백제에서는 384년(침류왕 원년)에 동진에서 승려 마라난타가 와서 궁중에 맞아들이고 예경하였으며, 이듬해 385년에 한산에 절을 창건하고 10인에게 계를 주었다.³⁾ 이후 사비시대인 600년(법왕 2)에 왕흥사(王興寺)를 창건하였다. 그리고 무왕 시대에 거찰 미륵사(彌勒寺)를 왕도가 아닌 익산에 창건하였다. 이보다 전에 혜현(慧顯)이 예산의 수덕사(修德寺)에서 수행하다가 달나산(達拏山, 월출산)으로 옮겨 가서 수행하다 정관(627~649) 초반에 58세로 입적하였다. 이는 7세기 전반에 수덕사와 강진의 월출산과 같은 지방에 수행 사찰이 있었음을 확인해 준다.⁴⁾

1) 『三國史記』 권6 高句麗本紀 小獸林王 “夏六月 秦王苻堅遣使及浮屠順道 送佛像經文 王遣使廻謝 以貢方物”

2) 『三國史記』 권6 高句麗本紀 小獸林王 五年 “春二月 始創省門寺 以置順道 又創伊弗蘭寺 以置阿道 此海東佛法之始”

3) 『三國史記』 권24 百濟本紀 枕流王 元年 “九月 胡僧摩羅難陀自晉至 王迎之 致宮內禮敬焉 佛法始於此”; 二年 “春二月 創佛寺於漢山 度僧十人”

4) 『續高僧傳』 권28 釋慧顯. “初住本國北部修德寺 有眾則講無便清誦 四遠聞風造山誼接 便往南方達拏山 山極深險重陳巖固 縱有往展登陟艱危 顯靜坐其中專業如故 遂終於彼”

고구려와 백제가 곧바로 도성에 불교가 전래되었고 전래된 지 1~3년만에 사찰을 창건한 것과는 달리 신라는 불교 전래도 곡절을 겪었고 사찰의 창건 또한 단순하지 않다.

신라 불교는 527년(법흥왕 14)에 공인되었지만, 그 이전에 이미 불교는 전래되어 있었다. 눌지왕 때 목호자가 고구려에서 일선군(一善郡)에 오니 모례(毛禮)가 집에 굴방을 만들어 있도록 했고, 소지왕 때는 아도(阿道)가 시자 3인과 또 모례 집에 와서 여러 해 동안 머물다가 죽었는데 시자들이 경전을 강독하니 때때로 신봉자가 있었다고 하였다.⁵⁾ 이 소지왕 때는 내전(內殿)에 기도하는 승려인 분수승(焚修僧)이 있었다고 알려지기도 했다.⁶⁾

모례의 집에서 지냈던 목호자나 아도가 지냈던 곳을 사찰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도의 시자 3인이 경전을 강의하여 이를 믿는 이가 있었다면 포교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럴 경우 사찰의 초기 형태는 갖추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궁궐 내에 기도승이 있었다면 그가 기거할 곳이 있어야 했겠지만 과연 사찰의 형태를 갖추었을 지는 의문이다.

신라 사찰의 초창은 이차돈의 순교와 연관되어 시행된 흥륜사(興輪寺)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544년(진흥왕 5)에 흥륜사가 완성되고 사람들의 출가를 허락한 것은 본격적인 불교 흥포의 시작이었다.⁷⁾ 이후 566년(진흥왕 27)에 거대한 규모의 국찰 황룡사(皇龍寺)가 완공되어 신라불교의 외양이 크게 확대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밖에도 삼국통일기까지 신라에는 진흥왕 때 기원사(祇園寺)와 실제사(實際寺), 진평왕 때 삼랑사(三郎寺), 선덕여왕 때 분황사(芬皇寺)와 영묘사(靈廟寺)가 창건되었고,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애공사(哀公寺) 영흥사(永興寺) 영경사(永敬寺) 등의 기록이 『삼국사기』에 등장한다.⁸⁾

이들 왕경에 창건된 사찰에 비해 신라 중고 시기에 지방에 창건된 사찰은 그리 많지 않다. 진평왕 때 대세(大世)와 구칠(仇柒)이 남산의 절에 놀러 갔다고 했는데, 이는 왕경 지역이기는 하지만 도성에서 벗어난 외곽인 남산에 사찰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기록이라는 의미가 있다.⁹⁾ 659년(무열왕 6)에 한산주(漢山州)에 장의사(莊義寺)를 창건했는데, 이는 신라가 백제와 싸울 때 장춘랑(長春郎)과 파랑(罷郎)이 용감히 싸우다 전사하고 죽어서도 무열왕의 꿈에 나타나 백골이 되어서라도 나라를 지키기 위하고자 한다는 지성이 신라군의 사기를 진작시켜 준 것을 기려 그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절이었다.¹⁰⁾ 이와 같은 사서의 기록 외에 지방 사원의 실례는 더 찾을 수 있다. 원광(圓光)은 수에 유학하여 불법을 익히고 돌아와 왕경에서 외교 자문 역할도 맡다가 나중에는 청도 운문사(雲門寺)에 가서 지냈다. 이 시기에 화랑인 귀산(貴山)과 추항(籌項)이 원광을 찾아가 일반인이 갖추어야 할 가르침을 물었고, 이에 대한 원광의 제안이 세속오계(世俗五戒)였다.¹¹⁾

신라 지역은 아니지만 고구려의 보덕(普德)은 고구려가 도교를 숭봉하자 주석하던 반룡산(盤龍山)에서 방장 그대로 날아와 완산주 고대산(孤大山)에 터를 잡았다는 설화가 전해왔다.¹²⁾ 그리고 보덕의 제자 11인이 곳곳에 8개의 절을 창건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 시기 지방 사원의

5)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法興王 15

6) 『三國遺事』 권1 紀異 射琴匣 아도가 미추왕 때 王城 西里에 와서 살았는데, 훗날 이곳이 嚴莊寺가 되었다고 하였으니 이 역시 사찰의 초기 형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7)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眞興王 五年 “春二月 興輪寺成 三月 許人出家爲僧尼奉佛”

8) 이중 애공사와 영경사는 사찰 자체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왕릉의 위치를 설명하며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후대의 기록일 가능성도 있다.

9)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 眞平王 九年 “秋七月 大世仇柒二人適海…遂與之遊南山之寺”

10) 『三國遺事』 권1 紀異 長春郎罷郎

11) 『三國史記』 권45 列傳 貴山 “時圓光法師入隋遊學 還居加悉寺 爲時人所尊禮” 加悉寺는 嘉栖寺, 嘉瑟岬, 加西岬이라고도 쓰는 운문사이다.(『三國遺事』 권4 義解 圓光西學)

12) 『三國遺事』 권3 興法 寶藏奉老普德移庵

확산 분위기를 반영하는 기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사찰 창건을 인정하자면 중고기에만 50개의 사찰을 확인할 수 있고, 건립 지역 또한 이들 중 12개 사찰이 울주 언양 양산 청도 경산 강릉 오대산 등에 세워졌다고 보기도 한다.¹³⁾

삼국통일기부터 지방 사찰의 창건이 증대되었다. 중대에는 신라 전 시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많은 사원이 창건되었는데, 이는 신라 불교문화가 크게 발달하고 불교의 대중화가 이루어져 일반인들의 불교 신앙이 보편화되었던 시대적 배경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신라문화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경덕왕대에 사원의 건립이 가장 두드러졌다. 중대에는 지방에 건립된 사원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경주 지역에 건립된 사원이 지방 사원보다 많았다. 지방의 마애불 조성이나 불탑 조성 등은 이 시기 성행해가던 지방 불교의 면모를 말해 주며, 이는 지방민의 경제력이 성장하여 이들 불사를 지원하였음을 의미한다. 지방 사원 확대의 전환점이 된 것은 676년(문무왕 16)에 의상(義相)이 부석사(浮石寺)를 창건한 것이다.¹⁴⁾ 중대에도 왕경의 사찰 창건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679년(문무왕 19)에 사천왕사(四天王寺)가, 682년(신문왕 2)에는 토함산 너머에 감은사(感恩寺)가, 685년(신문왕 5)에는 봉정사(奉聖寺)와 망덕사(望德寺)가 창건되었다. 그러나 의상과 그 제자들이 전국에 큰 산사들을 창건해 나간 것은 본격적인 지방 사원 건립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¹⁵⁾ 보덕의 제자들이 창건한 사찰들이 역사에 크게 자취를 남기지는 않은 반면 의상의 제자들이 창건했다는 화엄십찰(華嚴十刹)은 지금까지도 전통 사찰을 대표하는 대찰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하대에는 중앙 사원보다 지방 사원의 창건이 현저히 증가하게 된다.

2. 전통산사의 창건

천년이 넘는 오랜 역사적 전통과 창건 이후 줄곧 유지해온 지속적인 전통 그리고 그만이 갖는 독특한 개성을 갖는 한국의 전통 산사는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독자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어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한국의 전통산사는 모두 7개 사찰이다. 이들을 가람구조의 변화라는 점에서 살펴보면 창건 이래 가람구조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유지해 온 사찰은 부석사이다. 반면에 나머지 통도사 법주사 봉정사 대흥사 마곡사 선암사 등 대부분의 사찰은 시대에 따라 가람구조가 바뀌어 오늘날의 특성을 만들었다. 한편 이들을 역사적 특성에 따라 비슷한 성격으로 구분하면 두 부류가 된다. 첫째 명확한 역사적 창건 전승을 갖고 있는 사찰은 통도사 부석사 법주사이다. 둘째 창건 유래는 뚜렷하지 않지만 조선 후기의 사적이 뚜렷한 연속성을 보이는 사찰은 대흥사 마곡사 봉정사 선암사이다.

먼저 역사적 창건 기록을 중심으로 이들 사찰의 창건 사정을 비교 검토해 보기로 한다.

통도사는 신라시대에 자장(慈藏)율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왕족으로 태어나 출가하여 국정에 참여하라는 왕명에도 굴하지 않고 수행 의지를 관철했던 자장은 중국에 유학하여 교학을 익히고 돌아와 선덕여왕대의 신라불교를 선도하였다. 645년(선덕왕 14)에는 황룡사구층탑

13) 李仁哲, 「新羅 上代の 佛寺造營과 그 社會 經濟的 基盤」 『白山學報』 52, 1999, 77~78쪽. 중대에는 210개 중 경주에 151개, 지방에 59개, 하대 192개 사원 중 경주에 61개, 지방에 131개가 건립되었다고 한다.(李仁哲, 「新羅 下代の 佛寺造營과 그 社會經濟的 背景」 『慶北史學』 23, 2000)

14)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文武王 “春二月 高僧義相奉旨創浮石寺”

15) 의상의 문하제자들이 세운 화엄십찰 또는 傳敎十刹은 부석사를 비롯하여 華嚴寺 海印寺 普願寺 岬寺 梵魚寺 毘摩羅寺 玉泉寺 美理寺 普光寺 華山寺 國神寺 靑潭寺 등이다.

을 창건하여 신라의 문화적 위력을 드날렸고, 대국통(大國統)이 되어 사원과 승려의 규율을 관장하였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계율(戒律)이었고, 그 토대가 통도사에 설치한 계단(戒壇)이었다고 전한다. 전기(傳記) 기록에는 자장이 중국에서 귀국할 때 진신사리 1백과를 가져왔는데, 이를 황룡사탑과 통도사 계단 그리고 태화사탑에 나누어 봉안했다고 한다.¹⁶⁾ 이렇게 통도사 계단은 석가의 진신사리를 봉안하여 신라불교의 구심점이 되었다.¹⁷⁾

통도사는 계단과 대웅전이 있는 상로전, 대광명전 용화전 관음전이 나란히 자리잡은 중로전, 영산전과 약사전 극락보전과 만세루가 중정을 이루는 하로전의 세 구역으로 구성된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통도사의 창건조 자장은 상로전 영역에 계단을 설치하고 대웅전 남북 축을 주축으로 구성하였고, 고려 후기에 이르러 지금과 같이 동서 축을 주축으로 삼는 삼로전제가 정착되었다고 본다.¹⁸⁾

통도사의 계단에 석가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있다는 것은 고려시대에도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 시기의 기술에 따르면 계단은 이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솔을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은 돌덧개를 얹은 형태였다. 2명의 안렴사(按廉使)가 차례로 계단에 예경하고자 하여 덧개를 들어 보았다. 먼저 본 사람은 함 안에 구렁이가 있는 것을 보았고, 다음 사람은 큰 두꺼비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다시는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1235년(고려 고종 22)에 경상도 지역을 지휘하게 된 상장군 김이생(金利生)과 시랑 유석(庾碩)이 덧개돌을 들어올리고 예경하고 싶었다. 절의 스님들이 예전의 일을 말하며 난색을 표했으나 두 사람은 군사를 시켜 들어올리게 했다. 그 안에는 작은 돌함이 있고 다시 그 안에 유리통이 들어 있었는데 통 안에 사리 4과가 들어 있어서 우러러 예경하였다. 통에 깨진 자국이 있어 유석이 수정함을 시주하여 함께 봉안하였다.¹⁹⁾

통도사는 계단에 바탕한 불사리 신앙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위에서 본 것처럼 고려 내내 중요한 위상을 가졌다. 동시에 불교가 사회에 깊이 영향을 미치던 일본의 침탈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고려말인 1375년(우왕 1)에 통도사 주지 월송(月松)이 절에 대대로 비장해 온 자장율사의 유물 곧 석가여래 정골(頂骨), 사리 4과, 비라금점가사, 패엽 불경 등을 가지고 개경에 왔다. 이 해에 왜적이 쳐들어와서 움을 파고 사리를 숨겼다가 다시 등에 지고 피신했다가 개경에 온 것이었다. 중신들이 이를 조정에 알리자 사람들이 귀천(貴賤)과 지우(智愚)를 막론하고 물밀듯이 몰려와서 사리에 예배하고 나누어 쪼개 가져 3과부터 30과까지 얻었다는 이들이 많았다. 이듬해에 이 특이한 사실을 이색(李穡)에게 기록하게 하여 그 전모가 전해지게 되었다.²⁰⁾ 그래서 조선 초기에 불교 교단을 정비하여 국가 인정 사찰을 축소해 갈 때 1407년(조선 태종 7)의 7종 자복사(資福寺) 중에 통도사가 열거되었다.²¹⁾

16) 『三國遺事』 권3 塔像 皇龍寺九層塔과 前後所將舍利 조에서는 자장이 사리 백과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도선이 편찬한 『續高僧傳』에는 사리 얘기는 없고 신라에 경전과 불상이 완전하지 않아 이들을 가져왔다고 하였다.(藏以本朝經像彫落未全 遂得藏經一部 并諸妙像幡花蓋具 堪為福利者) 『삼국유사』 慈藏定律師의 내용도 『속고승전』과 유사하다.

17) 『삼국유사』 자장정율조에서는 오부대중에게 한달에 두 번 포살을 시행하고 겨울과 봄에 시험하여 지법을 알게 하고 지방의 사원에 순사를 파견하여 잘못을 경계하게 함으로써 나라 사람들이 십중팔구 수계하고 불법을 받드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머리를 깎고 출가하려는 이가 해마다 늘어나 이에 통도사를 창건하고 계단을 쌓아 사부대중을 제도하였다고 하여 선후관계 해석이 다소 다르다.(令會尼五部各增舊學 半月說戒 冬春惣試 令知持犯 置員管維持之 又遣巡使 歷檢外寺 誠礪僧失 嚴飾經像爲恒式 一代護法 於斯盛矣 如夫子自衛返魯 樂正雅頌 各得其宜 當此之際 國中之人 受戒奉佛 十室八九 祝髮請度 歲月增至 乃創通度寺 築戒壇以度四來)

18) 김봉렬, 『김봉렬의 한국건축 이야기』 3, 2006, 돌베개, 172~186쪽

19) 『三國遺事』 권3 塔像 前後所將舍利

20) 李穡, 「通度寺釋迦如來舍利之記」 『東文選』 권73

부석사는 676년에 의상이 왕명을 받들어 창건했다고 기록하였다.²²⁾ 의상이 중국에 가서 지엄의 문하에서 당시 최신의 사상이던 화엄을 배우고 돌아와 이를 펼 도량을 찾다가 태백산에 부석사를 창건하였다는 것이다. 부석사는 지금의 대석단으로 경사진 사역을 구분하고 단계마다 건물을 세운 구성이 대체로 창건 또는 그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적어도 고려 초기에 원융(圓融)국사 결응(決凝, 964~1053)이 부석사에서 활동하던 시기에는 지금의 가람구조를 의상의 뜻에 따라 건립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당간지주를 지나 천왕문에 서부터 3단의 대석단을 9단의 소석단으로 나누어 차례로 올라가며 마지막에 안양문을 지나 본당 무량수전이 마당에 이르는 구성이 9품 왕생의 아미타신앙을 연상한다고 해석되기도 한다.²³⁾ 특히 무량수전의 내부 구조는 남북 방향의 전각 후면에 불상을 두지 않고 전각에 들어가 왼쪽으로 향해야 마주치게 되는 서쪽에 무량수불을 자리잡게 하여 서방극락에 있는 아미타불을 염두에 둔 배치이다. 이는 의상의 창건시부터 변치 않고 이어져 온 특유의 구조라는 생각이 전승되었다.²⁴⁾ 부석사는 경사진 국면을 빼어난 경관으로 구성하면서 거기에 사상적 구조까지 결합하여 완벽한 사상을 구현한 가람을 이룬 것이다.

부석사의 이름은 의상이 창건하려 할 때 다른 무리가 먼저 들어와 차지하고 있어 어렵게 되자 의상의 귀국 때 용이 되어 항해를 도왔던 선묘 낭자가 변한 선묘룡(善妙龍)이 이번에는 바위로 변하여 하늘에 솟아 무리들을 흠여지게 하여 사찰을 창건하게 한 뒤 뜬바위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라고 전승되었다.²⁵⁾ 그런데 부석사가 의상의 창건 때 지금과 같은 규모를 갖추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²⁶⁾ 의상이 부석사를 창건한 이후에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활동했다는 기록은²⁷⁾ 부석사가 대규모 전당으로 창건되었다면 실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의상은 제자 진정(眞定)의 모친이 돌아가자 이를 추모하여 소백산 추동(錐洞)에 초려(草廬)

21) 『太宗實錄』 태종 7년 12월 2일

22) 『三國史記』 권7 新羅本紀 文武王 . 이 기록은 『삼국사기』에 지방 사찰 창건 사적이 수록된 드문 예이다.

23) 후대의 기록이지만 「太白山浮石寺無量壽殿及諸閣重修記」(『한국의 사찰문화재』 경복2, 2008, 264쪽)에는 의봉 연간에 구품도량을 열어 무량수전을 창건하고 화엄종지를 천명했다고 하였다.

24) 「浮石寺圓融國師碑」 “이 절은 의상조사가 중국에 가서 지엄의 법등을 전하고 돌아와서 창건한 것이다. 상전 안에는 오직 아미타불상만을 조성하고 보처보살이 없으며 탑도 세우지 않았다. 제자가 이에 대해 물으니 의상조사는 “스승 지엄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승의 아미타는 열반에 들지 않고 시방정토를 체로 하므로 생멸하는 상이 없다. 그러므로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는 혹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이 관정하여 수기를 받아 법계에 가득 차는 것을 본다’라고 하였다”고 말씀하셨다. 보처란 빈 것을 보충해주는 것이다. 부처는 열반에 들지 않아 비는 때가 없다. 그러므로 보처보살이 없고 영탑도 세우지 않은 것이니 이것은 일승의 깊은 뜻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지엄스님은 이를 의상조사에게 전했고 의상조사는 이를 법손에게 전해서 원융국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是寺者 義相師 遊方西華 傳炷智儼後還而所創也 像殿內唯造阿彌陀佛像 無補處 亦不立影塔 弟子問之 相師曰 師智儼云 一乘阿彌陀 無入涅槃 以十方淨土爲體 無生滅相 故華嚴經入法界品云 或見阿彌陀 觀世音菩薩 灌頂授記者 充滿諸法界 補處補闕也 佛不涅槃 無有關時 故□□補處 不立影塔 此一乘深旨也 儼師以此傳相師 相師傳法嗣既于國師)“

25) 『宋高僧傳』 권4 唐新羅國義湘傳 “湘入國之後 遍歷山川 於駒塵百濟風馬牛 不相及地 曰此中地靈山秀 眞轉法輪之所 無何權宗異部 聚徒可半千衆矣 湘默作是念 突華嚴教 非福善之地 不可興焉 時善妙龍 恒隨作護 潛知此念 乃現大神變於虛空中 化成巨石 縱廣一里 蓋于伽藍之頂 作將墮不墮之狀 群僧驚駭 罔知攸趣 四面奔散 湘遂入寺中 敷闡斯經 冬陽夏陰 不召自至者多矣” 이 기록은 설화적이기는 하지만 이미 절이 이루어져 있는데 의상이 들어가 활동했다고 하고 있다.

26) 의상이 주석할 때는 조사당을 중심으로 한 자리에 있던 매우 협소한 초막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文化財廳, 『浮石寺 無量壽殿 實測調査報告書』, 2002, 115쪽) 이 견해는 지금의 규모와 배치는 9세기에 들어서 대석단을 쌓고 무량수전과 석등 당간지주 등을 세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9세기 누구의 활동으로 인해 부석사가 초막에서 대규모로 확대되었을지 추정이 어렵다. 또 이 경우 『삼국사기』에서 채택한 창건 기사가 초막이었을 지는 의문이다.

27) 『宋高僧傳』 권4 唐新羅國義湘傳 “自是已來 雲遊不定 稱可我心 卓錫而居 學侶蜂屯”

를 짓고 문도 3천에게 90일간 화엄강의를 열기도 하였고,²⁸⁾ 태백산 대로방(大蘆房)에서 진정과 지통(智通) 등에게 강의하기도 했으며,²⁹⁾ 부석사에서 40일 동안 강의하기도 하는 등³⁰⁾ 부석사가 아닌 곳으로 추정되는 태백산 소백산 일대에서 장기간 제자들에게 강의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그래서 부석사의 대석단은 9세기 경문왕 때 축조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무량수전 앞의 석등이 이 시기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등의 이유에서이다.³¹⁾ 부석사에는 신라말에 왕의 초상 벽화가 그려져 있기도 했다.³²⁾

부석사는 의상이 창건한 이후 고려 초에 원융(圓融)국사 결응(決凝, 964~1953)이 이곳에서 활동하였다. 원융국사는 창건자 의상의 사상을 계승하여 본당 무량수전에 아미타상만을 봉안하고 보처보살을 함께 봉안하지 않고 탑도 세우지 않았음을 천명하였다. 원융국사 시기의 부석사는 신라말을 지나면서 절의 규모는 보다 조직화되었지만 기본 구도는 창건 때 그대로였음을 짐작하게 한다.³³⁾ 이규보(李奎報)는 경주 지역에 역도가 날뛰는 일이 벌어지자 1202년(신종 5)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부석사 불상에 재를 올리고 부처님의 신통력에 힘입어 피를 흘리지 않고 행복받기를 기원하는 글을 지었다.³⁴⁾

현재의 무량수전은 13세기 초반에, 조사당은 1377년에 건립된 것으로 파악된다. 건립에 이어 무량수전과 조사당에 대한 중수가 계속 이루어졌다. 조사당 도리 하단에서 발견된 묵서(墨書)에는 1200년 경에 조사당에 단청을 했다고 하였고,³⁵⁾ 장혀 상단에서 발견된 묵서에는 1377(우왕 3)년에 조사당 기둥을 세웠다고 하였다.³⁶⁾ 이때 일을 주선한 이는 원응존자(圓應尊者)라고 하였으니, 이는 진각국사 천희(千熙, 1307~1382)를 말한다. 또 1358년(공민왕 7)에 무량수전에 불이 나서 아미타상의 두상이 금당 서쪽 바위 위로 날아가는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1376년(우왕 2)에 개조 개금하였다고 한다.³⁷⁾ 이중 1376년에 무량수전 불상을 개조 개금한 원융(圓融)국사는 존호가 원응존자인 천희를 잘못 말한 것이다. 천희는 1372년(공민왕 22)부터 부석사에 주석하면서 전당을 일신 중수하여 완전히 복구하였다고 비문에 기록한 중창주이다.³⁸⁾

조선시대에도 부석사는 지속적으로 중수가 이루어졌다. 1490년(성종 21)에는 조사당을 중수하고 1493년(성종 24)에 단청하였으며, 1583년(선조 16)에는 지붕 보수공사를 하였다.³⁹⁾ 1555년(명종 10)에 불이 나 안양루가 탔고, 이는 1578년(선조 11)에 새로 세워졌다.⁴⁰⁾ 안동에 살던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이 부석사를 다녀가 시를 남긴 이후 많은 유학자들도 부석사

28) 『三國遺事』 권5 孝善 眞定師孝善雙美 “湘率門徒歸于小伯山之錐洞 結草爲廬 會徒三千 約九十日 講華嚴大典 門人智通隨講 撮其樞要 成兩卷 名錐洞記 流通於世”

29) 『法界圖記叢錄』 하2 한불전 6, p.834중

30) 『法界圖記叢錄』 상2 한불전 6, p.809상

31) 김봉렬, 『김봉렬의 한국건축 이야기』 3, 68~69쪽. 대석단 수법이 원원사나 망해사와 유사한 점, 9세기 후반에 신림과 그 후예들의 화엄교파가 일세를 풍미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신림대에 대가람의 건축적 틀을 완성했다고 하였다.

32) 『三國史記』 권50 列傳 弓裔 “至興州浮石寺 見壁畫新羅王像 發劍擊之 其刃迹猶在”

33) 1808년에 申宗爲가 지은 「兩寶殿丹腹重修記」(『한국의 사찰문화재』 경북2, 264쪽)에는 의봉 연간에 의상이 창건하고 원융국사가 전각과 계석(階石)을 보완하여 완성했다고 하였다.

34)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권38 浮石寺丈六前願文

35) 「祖師堂道里下端 墨書」에 ‘承安六年壬子’라 했는데, 승안 6년은 1201년, 임자년은 1192년이어서 어느 것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혹 壬戌년을 잘못 기록했다면 1202년이 된다.

36) 「祖師堂長舌上端 墨書」 “宣光七年丁巳五月初三日立柱”

37) 「鳳凰山浮石寺改椽記」, 『浮石寺 無量壽殿 實測調査報告書』, 78쪽. 무량수전 후측 서북쪽 공포 墨書

38) 「彰聖寺眞覺國師大覺圓照塔碑」 “歲壬子住浮石重營殿宇悉如舊”

39) 「祖師堂道里下端 墨書」 『韓國古建物上樑記文集』, 1964, 112~113쪽

40) 四溟狂漢, 「浮石寺安養樓重創記」

를 찾아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⁴¹⁾

법주사는 진표(眞表)가 터를 잡고 영심(永深)이 가람을 이룬 전승을 갖고 있다. 진표는 몸을내 던지는 참회 수행(亡身懺)을 선포한 수행자로서 점찰법(占察法)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다.⁴²⁾ 진표가 금산사(金山寺)를 창건하고 증과간자(證果簡子)로 정밀하고 엄숙한 법석을 열어 사람들을 제도하다가 속리산에 이르렀는데 소를 타고 가는 사람을 만났다. 진표를 보고 소가 무릎을 꿇으며 울자 그 사람이 진표에게 연유를 물었다. 진표는 자신이 절을 세워 길이 수도할 곳을 찾아왔는데, 이 소는 안으로는 명철하여 내 수계법을 알아 그렇다고 하였다. 그 사람은 축생도 이런 신심이 있는데 사람된 내가 그보다 못하단 말인가 하고는 머리를 자르고 수계를 받았다. 그러다가 속리산 골짜기에 이르러 길상초(吉祥草)가 난 곳에 표시해 두고 금강산의 발연수(鉢淵藪)에 갔다. 속리산 대덕인 영심(永深)과 용종(融宗)과 불타(佛陀)가 진표에게 계법을 주기를 요청하여 용맹참회한 끝에 관정을 받고 『점찰경』과 간자 등을 받았다. 진표가 이들에게 속리산에 돌아가 길상초가 난 곳에 절을 짓고 이 법에 따라 사람들을 널리 제도하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영심 등은 바로 속리산에 가서 길상초가 난 곳을 찾아 길상사(吉祥寺)를 창건하고 점찰법회를 시행하였다.⁴³⁾ 이 길상사가 법주사이다.

한편 법주사 창건을 다르게 전하는 기록도 있다. 신라의 의신(義信)이 흰 나귀에 불경을 싣고 와서 법주사를 세웠고, 성덕왕이 중수했으며 석조(石槽) 석교(石橋) 석옹(石翁) 석학(石鑊) 등이 있다고 하였다.⁴⁴⁾ 의신의 사적은 명확하지 않는데 비해 진표와 영심의 활동은 구체적이어서 사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법주사에 남아 있는 사천왕석등과 쌍사자석등, 석련지와 희견보살상 등은 신라 후기의 석조물로 알려졌다. 이는 법주사가 8~9세기에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법주사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법주사 또는 지금의 산 이름인 속리사(俗離寺)라고 불렸다. 1006년(목종 9)에는 28통으로 이루어진 50척 높이의 동제(또는 철제) 당간이 세워졌고, 이는 조선 말기까지 남아 있었는데, 1866년 대원군의 철폐령으로 철거되었다. 1070년(문종 24)에 도생(道生)승통은 머리를 깎고 속리사에 주석하였다.⁴⁵⁾ 1119년(예종 14)에 광지(廣智)선사는 승과에 급제한 지 3년만에 왕명에 의해 법주사의 주지가 되었다.⁴⁶⁾ 광지대선사 왕지인(王之印, 1102~1158)은 예종의 아들이었는데, 9세 때 혜소국사(慧炤國師)에게 출가하여 법상종 승려로 활동한 이이다. 문인 김부식은 법주사에서 개최된 점찰회(占察會)의 소를 지었다.⁴⁷⁾ 이 글에서 그는 “모든 참회의 궤범(軌範)과 의식(儀式)을 베풀어, 보여서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방편으로 삼으니, 보현보살의 바램은 갖추어 화엄경에 설하였으며, 진표(眞表) 스님의 부지런함은 마침내 미륵불에 감통(感通)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세토록 행하여지고, 부처님의 은택은 항하(恒河)의 모래같이 많은 세계에 흠족합니다.(設諸懺悔之軌儀 示之發起之方便 普賢之願 具宣說於華嚴 眞表之勤 終感通於彌勒 教行永世 澤洽恒沙)”라고 하였다. 진표의 점찰법을 계승하여 법주사를 열었던 영심의 수행 방식이 고려 중기에도 지속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자료이다. 1362년(공민왕 11)에 공민왕은 홍건적을 피해 개경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도중에

41) 文化財廳, 『浮石寺 祖師堂 修理實測調査報告書』, 2005, 72쪽

42) 『三國遺事』 권4 義解 眞表傳簡

43) 『三國遺事』 권4 義解 關東楓岳鉢淵藪石記

4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6 忠淸道 報恩縣 佛宇 法住寺. 1851년 경의 찬술로 추정되는 「報恩郡俗離山大法住寺之來歷」(『朝鮮寺刹史料』 상, 127~128쪽)에서는 진흥왕 14년에 의신화상이 천축에 구법하여 흰 노새에 경을 싣고 와서 법주사라 이름했다고 하였다.

45) 『高麗史』 권90 列傳 道生僧統疏

46) 「海東廣智大禪師墓誌銘」 “年十五中佛選 己亥歲詔住法住寺”

47) 金富軾, 「俗離寺占察會疏」 『東文選』 권110

속리사에 들어서 통도사에서 가져온 부처 사리와 가사를 보았다.⁴⁸⁾ 조선 세종 때인 1424년(세종 6)에 불교 교단을 선교 양종 36개사로 축소할 때 이름도 속리사였다.⁴⁹⁾ 이때 속리사는 교종 소속으로 전지 2백결에 거승 1백명을 인정받았다.

법주사는 미륵전[산호전]의 장륙상이 유명하였다. 법주사의 의신 창건설을 수록한 조선 전기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법주사 산호전(珊瑚殿)에 금신장륙상이 있고, 문 앞에는 동으로 만든 당(幢)이 있는데 몹시 높고 1006년에 세웠다는 명문이 있다고 하였다.⁵⁰⁾ 고려시대의 법주사 건물 배치는 팔상전을 중심으로 북쪽에 산호전을 연결하는 축과 동쪽으로 극락전과 대웅보전을 연결하는 미륵신앙과 화엄신앙의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한다.⁵¹⁾

조선 전기의 승려 신미(信眉)가 활동할 때 법주사 일대는 그 중심지로서 활성화되었다. 신미는 세종 때부터 궁중에서 불사를 행할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는데, 1450년(문종 즉위년)에 복천암(福泉庵)을 중건하고, 중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이 내린 것이라 하여 선교종도총섭의 직위를 받았다.⁵²⁾ 신미와 가까웠던 세조는 1464년(세조 10) 2월에 속리사 곧 법주사에 갔다가 복천암에 행행했다.⁵³⁾ 다음달인 3월에도 복천암에 가서 신미를 만났는데, 그 전날 속리산에서 방광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⁵⁴⁾ 복천암이 현재 법주사 산내 암자인만큼 당시도 복천암과 법주사는 긴밀한 관계를 가졌을 것이고, 따라서 세조대 법주사의 형세는 상당히 활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사적기로 본 전통산사

역사적 사실을 전하는 기록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비해 각 사찰에 전해 오는 기록이나 사찰에서 작성한 사적기(事蹟記) 또는 각종 불사를 행하고 남긴 기록 자료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다만 이들 자료가 모두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작성된 것은 아니므로, 사실과 얼마만큼 부합되는지 판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대흥사는 1823년에 사적기 『대둔사지(大苾寺志)』가 편찬되었다. 완호윤우(玩虎尹佑)가 감정(鑑定)하고 아암혜장(兒菴惠藏)이 유수(留授)하였으며, 수룡색성(袖龍蹟性)과 초의의순(草衣意恂)이 편집하고 기어자홍(騎魚慈弘)과 호의시오(縞衣始悟)가 교정한, 사지 중에서 모범적인 편찬으로 손꼽히는 것이다. 편찬자는 이들 6인이지만, 『만덕사지』를 편찬하는데 지도적 역할을 했던 정약용(丁若鏞)의 영향이 크다고 평가된다.⁵⁵⁾ 대흥사의 사지로는 이미 1639년에 중관해안(中觀海眼)이 편찬한 『죽미기(竹迷記)』가 있었지만, 『대둔사지』는 14면에 걸쳐 『죽미기』가 잘못된 자료를 수록하여 혼란을 초래했다고 일일이 반박하였다. 해안은 『화엄사사적』과 『금산사사적』도 편찬하는 등 사적기 편찬에 선구적인 일을 했지만, 대흥사의 『죽미기』에서 삼국시대 서술은 이들을 따라 대흥사와 관계되지 않은 사실도 수록했던 것을 비판한 것이다.

『대둔사지』는 대흥사의 창건은 신라말이지만 명문은 없다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48) 『高麗史』 권40 世家 恭愍王 11년 8월 정해

49) 『世宗實錄』 세종 6년 갑진 4월 5일

50)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6 忠淸道 報恩縣 佛宇 法住寺

51) 문화재청, 『보은 법주사 팔상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3, 57쪽

52) 『文宗實錄』 문종 즉위년 8월 7일

53) 『世祖實錄』 세조 10년 2월 28일

54) 『世祖實錄』 세조 10년 3월 21일

55) 許興植, 「大苾寺志의 編纂과 그 價値」 『大苾寺志』, 1982, 아세아문화사, 4~5쪽. 4권 중 정약용이 편찬한 大東禪敎考가 수록된 점도 정약용의 영향이 컸음을 알게 한다.

법흥왕 때 아도화상이 창건했다고 했지만, 해남은 당시 백제 지역이라든가 하는 이유를 들어 가능하지 않다고 교정하였다. 그리고 875년(헌강왕 원년)에 도선이 중국에서 돌아와 먼저 지정한 5백 사찰 중에 대흥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관(淨觀)존자가 창건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록하였다. 정관을 이어 선행(善行)이 계승하였고, 다음에 남송 순우 연간(1241~1252)에 고려 진정(眞靜)국사가 대흥사에 이르러 북암에 주석했으며, 그밖에 신암(信菴)사은(思隱) 성유(性柔) 3인이 명덕(明德)으로 이름났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둔사지』는 이어 서산대사를 계승한 12대 종사로 넘어간다. 이런 『대둔사지』의 서술은 대흥사가 12대 종사 이전에는 뚜렷이 부각된 사적이 명확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대흥사는 남북 이원(二院)으로 구성되었고, 북원에는 대웅보전 나한전 시왕전 팔상전 칠성전 조사전 원통전 문수전 승당 선당 청운당 서상당 동별당 송월료 영월료 만월당 한산전 미타전 지사방 대동방 침계루 철경루 향적루 대양문이, 남원에는 극락전 대장전 지장전 보현전 약사전 청풍료 벽안당 정진당 필해당 적조당 학가루 해탈문이 있다고 하였다. 대흥사는 처음에 북원 구역에 터를 마련했다가 형세가 커지면서 남원 구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파악한다.

이런 『대둔사지』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이후 1901년에 쓴 「대웅전중창상량문」은 426년에 정관존자가 터를 열고 514년에 아도화상이 창건하였다고 하여 『대둔사지』가 비판 교정했던 『죽미기』의 인식으로 되돌아갔다. 이에 따르면 제2창은 자장율사, 제3창은 원효국사, 제4창은 의상조사, 제5창은 도선국사, 제6창은 청련(靑蓮)선사, 제7창은 1665년의 심수(心守)대사, 제8창은 육봉(六峰)대사라고 하였다.⁵⁶⁾

마곡사의 사적 자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1785년에 제봉체주(霽峰體珠)가 쓴 「충청우도공주판지서령태화산마곡사대광보전중창기(忠淸右道公州判地西嶺泰華山麻谷寺大光寶殿重創記)」이다. 여기서 마곡사의 창건과 중창에 대해 말하였다. 643년에 자장율사가 세운 많은 중국 절 중에서 세 번째로 세운 것이 마곡사이며 이것이 초창이다. 이어 범일(梵日)이 중창하고, 도선(道詵)이 3창, 보조가 4창, 박야외(朴也外)가 5창, 글을 쓴 제봉체주가 6창했다고 하였다.⁵⁷⁾ 그러나 글쓴 이 자신도 자장의 시대에 창건되었겠는가 반문하고, 보조나 범일이나 도선이 중창했다는 것도 참고할 것이 없어 알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하였다.⁵⁸⁾

1851년에 임원모(任源模)가 쓴 「태화산마곡사사적입안(泰華山麻谷寺事蹟立案)」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자장의 창건과 이후의 중창 연기를 기록하였다.⁵⁹⁾ 자장이 일곱 개의 큰 절을 세웠는데 마곡사는 그 세 번째이며, 가야사와 이 절만은 석재가 아니라 금으로 상층을 장식하고 순금으로 사각에 풍경을 달아 33층짜리 탑을 아름답게 했다고 하였다. 마곡사라는 절 이름은 마곡보철(麻谷寶徹)이 전도한 이후에 돌아와서 모인 사람들이 마(麻)와 같았으므로 이름으로 삼았으며, 사방에서 자장에게 물을 묻고자 온 사람들이 골짜기 안에 가득차 서 있는 모습이 마와 같았으므로 붙인 이름이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마곡보철은 9세기에 활동하였으므로 사실을 반영한 내용이 아니다. 「사적입안」은 또 842년에 황폐해져 1199년에 보조국사에게 왕명으로 폐찰을 중수하도록 하자 보조국사가 제자 수우(守愚)와 함께 돌아다니다 이 터가 뛰어난 곳이라고 점지하였다고 하였다. 당시 도적들이 그곳에 자리잡고 있어 보조는 수우와 함께 신

56) 醉如子, 「大雄殿重創上樑文」, 1901년,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남3, 2006, 411쪽

57) 霽峰體珠, 「忠淸右道公州判地西嶺泰華山麻谷寺大光寶殿重創記」, 1785년, 『한국의 사찰문화재』 충남, 2004, 109쪽

58) 「禪教兩宗大本山麻谷寺緣起略抄」에서는 840년 보조선사 개산, 847년 범일 1차 확장, 877년 도선 2차 중수, 1115년 보조국사 3차 중수, 1703년朴覺淳거사 4차 중수, 1785년 제봉선사 5차 중수라고 하였다.

59) 「泰華山麻谷寺事蹟立案」, 『佛教學報』 2, 1964, 20~25쪽

이한 술책으로 이들을 물리치고 절을 건립했다고 한다. 이에 국왕은 2백결의 토지를 주고 국통으로 삼았고, 국사천 서쪽의 미타주(彌陀主)와 북쪽의 3 부도전과 절 남쪽의 울암(栗庵)과 여러 묘가 그 유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보조국사 지눌의 생애와 마곡사와는 연관이 없다. 아마 이는 회창폐불을 언급한 폐사 기사에 이어 마곡보철의 법을 받아온 보조선사 체징(體澄)의 이야기를 보조국사 지눌로 잘못 연계시킨 데서 나온 오류로 생각된다. 체징이 장흥 보림사에 가지산문(迦智山門)을 개창하여 도의(道義)를 개창조로 삼아 구산선문의 첫손 꼽는 선문을 이룩하였기 때문에 이를 마곡사와 연계시키려고 했던 데서 나온 착오일 것이다. 다만 이 「사적입안」에서는 절의 희지천(希之川) 북쪽이 원터로서 먼저 세운 대웅전 시왕나한전 진여문 범종루 향로전 좌우 승당과 선당, 동서 상실, 약사전 서전 성현대 월파당 총지로 동별마구 춘간축실의 당우가 있고, 천의 남쪽에는 뒤에 세운 당우로 영산전 흥성루 해탈문 천왕문 영자전 향로전 제주실 월명당 매화당 낙화당 백운당 내외남전 국사당 가사당 만경대 명적암 백련암 은적암 영은암 응향각이 있다 하여 마곡사가 북쪽 역에서 남쪽구역으로 확대된 가람 변화 상황을 밝히고 있다.

마곡사의 창건을 전하는 이들 기록은 자장이 창건하고 보조선사가 중건했다는 설과 보조선사가 창건했다는 설이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마곡사의 창건 사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유래를 신라 시기로 소급하려는 데서 나온 견해들로 판단된다. 구산선문의 선봉을 가지산문으로 여겼던 전통을 거슬러 그 실제 개창자인 보조선사를 마곡사의 창건조로 보고자 했던 견해들로 생각된다.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마곡사 기사는 1295년(충렬왕 21)에 세운 일연의 비인 인각사보각국사비(麟角寺普覺國師碑)에 문도 명단 중에 마곡사 수예(守倪) 대선사(大禪師)가 나온다.⁶⁰⁾ 대선사는 고려시대에 선종 승려가 받는 가장 높은 승계이다. 일연이 선종인 조계종의 가지산문 소속이었고, 따라서 그 제자인 수예 또한 가지산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마곡사는 고려 후기에 조계종 가지산문에 속했던 사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359년(공민왕 8)에 지은 각진국사비(覺眞國師碑)에서도 각진국사 복구(復丘, 1270~1355)의 제자들이 선원사 백화사 가지사 마곡사 등에 천 여 명이 된다고 한데서,⁶¹⁾ 마곡사가 강화 선사의 대표적인 선원사나 가지산문의 종찰인 가지사와 더불어 선종의 주요 사찰로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적입안」에는 조선 세조가 마곡사에 유람하여 만세도록 없어지지 않을 땅이라고 찬탄하며 ‘영산전’ 편액을 써서 내리고 잡역을 면제하는 패를 하사하였다고 하나 다른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봉정사는 현재 남아 있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을 갖고 있는 절이다. 봉정사 극락전의 종도리 묵서명에 “지정 23년 계묘년에 중수했다”고 하여 1363년(공민왕 12)에 중수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때 중수했으므로 초창은 13세기 초반이라고 추정되었기 때문이다.⁶²⁾ 또 기문장처(記文藏處)에서 나온 1625년(인조 3)의 상량문에는 신라 때 능인(能仁)대덕이 창건하고 밀암(密岩) 원감(圓鑑) 안충(安忠) 보조(寶照) 토승(土僧) 신경(信敬) 등 6대조사가 대대로 중수했다고 하였다.⁶³⁾ 이와 거의 같지만 약간 다르게 1728년(영조 4)에 작성된 「천등산봉정사기(天燈山鳳停寺記)」에는 봉정사의 창건과 중창 고승으로 신라 의상(義相)의 제자 능인이 창건

60) 「麟角寺普覺國師碑」, 李智冠 『校勘譯註歷代高僧碑文』 高麗篇4, 1997, 280쪽

61) 「王師大曹溪宗師一邛正令雷音辯海弘眞廣濟都大禪師覺儼尊者贈諡覺眞國師碑銘」, 『東文選』 권118. “門人之秀者 禪源 白華 迦智 麻谷 而下等千有餘人”

62) 「종도리 墨書銘」 “至正二十三年癸卯三月日 改蓋重修”

63) 「上樑文」(記文藏處) “昔祖師能仁大德 自新羅始創建 于以後密岩 圓鑑 安忠 寶照 土僧 信敬等 六大祖師 繼繼重修”

했고, 뒤를 이어 무주(無住) 밀암 원감 안충 보조가 계승하였다고 하여 전 2대사와 후 5대사를 들었다.⁶⁴⁾ 다른 기록으로는 1809년(순조 9)의 「양법당중수기(兩法堂重修記)」에서는 의상이 창건하였다고 하고, 1818년(순조 18)의 「천등산봉정사덕회루중수기(天燈山鳳停寺德輝樓重修記)」에서는 의상이 부석사에서 종으로 만든 봉황을 날려 멈춘 곳이므로 봉정사라 했다고 하였다.⁶⁵⁾ 1923년의 「봉정사극락전중수기(鳳停寺極樂殿重修記)」에서는 신라 문무왕 창건이라 했으며, 기문장처(記文藏處)에서 나온 상량문에는 능인대덕이 창건했다고 하였다.⁶⁶⁾ 봉정사의 창건에 대해서 의상이 봉황을 날려 잡은 자리에 창건했다는 의상 창건설과, 의상의 제자 능인의 창건설, 의상과 능인이 함께 이 산의 석굴에 머물면서 수도와 중생구제를 할 때 하늘에서 산에 빛을 비추고 봉황이 날아들어 천등산 봉정사라 했다 하여 의상과 능인 창건설도 전승되었다.⁶⁷⁾ 전승 기록들이 비슷한 비율로 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의상과 그 제자 중에 창건자를 구하고 있으므로, 창건 연대와 관련하여 봉정사는 7세기 무렵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견해들이 전승된 셈이다. 구체적으로 7세기 중후반인 문무왕대로 기록한 전승도 여럿이 있다.

극락전이 고려 말 건축물인데 더해 대웅전도 고려말의 건물로 밝혀졌다. 대웅전 불단 상판 하부에서 발견된 묵서에 1361년에 봉정사 탁자를 조성했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⁶⁸⁾ 대웅전은 1435년에 다시 중수되었다. 1428년에 미륵학생도를 그리고 1431년에 단청을 마무리하여 1432년에는 1백명의 승려가 안거에 들어갔다.⁶⁹⁾ 대웅전 정면 여칸 좌측 기둥에서 발견된 1436년의 묵서는 이때 불사의 연장이었다.

봉정사는 신라 통일기에 창건되었다는 전승으로 시작하여, 극락전의 연대에서 추정되는 고려 중기에 지금의 형세로 자리잡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극락전을 중심으로 고금당과 화엄강당이 좌우로 벌려 선 가람 구성이 초기 중심구역이었다. 고려말 공민왕의 안동 피난을 계기로 동쪽으로 대웅전 일곽이 확장되어, 기존의 극락전을 중수하고 새로이 대웅전과 그 일곽을 신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쪽 극락전 구역의 아미타신앙과 동쪽 대웅전 구역의 석가신앙의 조화로 구성된 화엄사종 계통의 아미타신앙 구현이라고 파악한다.⁷⁰⁾ 대웅전을 중심으로 하는 가람 구성의 변화는 덕회루를 지나 진여문을 거쳐 대웅전에 이르는 중심 구역과 우화루를 지나 극락전에 이르는 이중 구조로 이루어지고, 이런 모습이 20세기 중반까지 지속되었던 봉정사 면모였다.

선암사에 관한 사적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작성된 것은 계음호연(桂陰浩然)이 1704년(숙종 30)에 쓴 「조계산선암사사적(曹溪山仙巖寺事蹟)」이다.⁷¹⁾ 이에 따르면 선암사는 도선이 비정한 3,500 비보사찰 중의 하나로서, 승평 조계산 선암사는 영암 월출산 용암사(龍岩寺)와 광양 백

64) 「天燈山鳳停寺記」 “或傳三韓古刹 而無文焉 不可考證 而多有記之者 必以羅時 則其創之也誰歟 盖有曰義相能仁 …幸以先師輩出 次第重輯之 曰無住也 曰密岩也 曰圓鑑也 曰安忠也 曰寶照也 …則前乎兩大師 必有祖述之跡 後乎五大師 亦有繼述之事”

65) 海雲日昕, 「兩法堂重修記」(『한국의 사찰문화재』 경북2, 250쪽) “新羅儀湘祖師所占築之場”. 李宗休, 「天燈山鳳停寺德輝樓重修記」(『한국의 사찰문화재』 경북2, 251쪽) “僧言 新羅代高僧義相 從浮石泛紙 鳳而停 因爲號”.

66) 「鳳停寺極樂殿重修記」(『한국의 사찰문화재』 경북2, 250쪽) “鳳頂卽福州巨刹 新羅文武王創建也.”

67) 의상의 제자 중에 悟眞이 하가산 골암사에 주석했다고 하는데, 『三國遺事』 권4 義解 義湘傳敎 “眞普處下柯山鵲嶺寺 每夜伸臂點浮石室燈”) 하가산은 봉정사에서 직선거리 5km쯤 되는 학가산으로 비정된다.

68) 「鳳停寺啄子造成記」 “至正二十一年辛丑 鳳停寺啄子造成”(『鳳停寺 大雄殿 解體修理工事報告書』, 2004, 132쪽)

69) 「法堂重創記」 『鳳停寺 大雄殿 解體修理工事報告書』, 131~132쪽

70) 김봉렬, 『김봉렬의 한국건축 이야기』 3, 256~264쪽

71) 「全南順天郡曹溪山仙巖寺事蹟」 『朝鮮寺刹史料』 상, 1911, 281~288쪽

계산 운암사(雲巖寺)와 함께 남방의 삼암(三岩)을 이룬다고 하였다. 이런 비보설에 따라 선암사는 도선이 창건한 사찰이며, 절에는 1철불 2보탑 3부도가 있다고 전해졌다.⁷²⁾ 또 절 이름은 경내 서쪽에 크기 열 길 켜 되는 큰바위가 있는데 옛날 신선이 바둑 두던 곳이라고 전해온다 하여 선암(仙岩)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고 하였다.⁷³⁾ 이어 고려시대에 대각국사 의천이 중년에 해인사에서 은거하다 남방 여러 사찰을 순례하던 중에 그동안 황폐된 이곳에 와서 한눈에 신령한 지경임을 알아보고 감탄하고는 중창하였다고 한다.⁷⁴⁾ 그로부터 365년이 지나 정유재란 때 1철불 2보탑 3부도와 문수전 청측(淸측) 조계문 외에는 초토화되었다. 몇 년 만에 경준(敬俊) 경잠(敬岑) 문정(文正)이 발원하여 중창불사를 추진하여 법당 외에 동쪽으로 명부전 약사전 작연당 명경당 대장전 청운당 백운당 배면당 독락당, 서쪽으로 서방장 미타전 무집당 영풍루 천장전 지장전 문수전 보현전 용화당 만월당 반선각 제운료 낙성료 서하당 성행당 탕자방 청측, 앞쪽으로 정문 종각 대루 조계문, 뒷쪽으로 첨성각 국사전 오십전 응진당 팔상전 원통전 능인전 원명각 성적당 진의각 활연당 적조당 심주각 완월당의 방대한 가람을 이루어놓았다. 그리고 침굉현변(枕肱懸辯, 1616~1684)이 주석하면서 선풍을 진작하는 등 수행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이어 호암약휴(護岩若休, 1664~1738)가 원통각을 건립하고 불조전의 53불을 조성하며 대전을 단청 중수하여 면모를 일신하였고 이를 4차 중창이라 한다. 이 사적의 내용은 그대로 3년 후인 1707년에 채평윤이 쓴 「승평부조계산선암사중수비명(昇平府曹溪山仙巖寺重修碑銘)」에 실려 전해졌다.⁷⁵⁾ 약휴의 4차 중창으로 법당 8, 전각 12, 승방 16, 암자 15개소, 승려 350명의 대가람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현재 선암사에 남아 있는 대웅전 앞의 2기의 석탑이 9세기 양식으로 추정되는 것과 연관지어 생각하면⁷⁶⁾ 도선 시기의 창건설이 나름의 타당성을 갖는다. 한편 「선암사사적」에는 고법당 자리에 법당이 있었고, 대법당은 본래 미륵전 자리로서 그 불대좌 밑에 높이 10여 척이 되는 석종(石鐘)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현 대웅전 마루 밑에서 불상 대좌의 지대석으로 보이는 석재가 발견되었는데 그 마감 기법과 크기가 석탑의 지대석과 동일하다고 한다.⁷⁷⁾ 이는 「선암사사적」이 어느 정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말해 준다.

이와 달리 선암사에는 1147년의 기록이라 전해 오는 「조계산선암사대각국사중창건도기(曹溪山仙巖寺大覺國師重創建圖記)」라는 독특한 자료가 있다.⁷⁸⁾ 이 자료는 주변의 산세와 위에서

72) 이들 유물이 선암사의 고려시기까지의 유물이다. 철불은 각황전에 있는 것으로 고려초 조성으로 추정한다. 양탑은 대웅전 앞의 탑으로 9세기 조성으로 추정한다. 3부도는 선조암(禪助庵) 무우전(無憂殿) 대각암에 있는데, 무우전은 아도, 선조암은 도선, 대각암은 대각국사의 부도라고 전해온다고 하나 선조암은 10세기, 무우전은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전반, 대각암은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초반으로 추정한다.(昇州郡·南道佛教文化研究會 『仙巖寺』, 1992, 95~96; 137~141쪽)

73) 「全南順天郡曹溪山仙巖寺事蹟」 “誚還本國 一如教 此仙岩寺之爲一大裨補所也 吾國南有三岩 靈岩郡月出山之龍岩 光陽縣白雞山之雲巖 昇平府曹溪山之仙岩 岩皆建寺塔立浮屠 故此仙岩局內 有日鐵佛二寶塔三浮屠 至于今存焉者也 此煎迺道誚國師始創此寺 時以鎮其背走 元吃至寶也歟 寺之西有大石高十餘丈 面如其砥 諺號古仙人看碁之場 故以仙岩名此寺也”

74) 대각국사 의천은 1094년 2월에 개경의 흥원사에 주석하다 5월에 해인사에 은거하였고, 1095년 10월 숙종이 즉위하여 개경으로 돌아올 것을 청하자 돌아와 흥왕사에 주석하였다. 의천은 안성 칠장사, 전주 경복사, 구례 화엄사에 가서 역대 조사의 진영에 예하기도 하였는데, 해인사에서 숙종의 요청으로 개경에 돌아왔으므로 이 여유있는 순례는 해인사에 가던 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의천이 선암사에 왔다는 명확한 기록은 없고, 더구나 선암사나 대각암의 창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75) 蔡彭胤, 「昇平府曹溪山仙巖寺重修碑銘」 『朝鮮金石總覽』 하, 1919

76) 昇州郡·南道佛教文化研究會 『仙巖寺』, 1992, 131쪽. 양탑은 양식과 내부 사리장치 등을 검토하여 9세기 후반에 건립되어 11세기와 16세기에 중건을 거친 것으로 파악하였다.

77) 文化財廳·順天市, 『仙巖寺 大雄殿 實測調査 및 修理工事 報告書』, 2002, 78쪽

78) 기록 말미에 “高麗毅宗元年丁卯三月二十三日”이라는 기록 형식 등으로 보아 1147년의 고려 기록으

내려다 본 선암사의 비교적 소상한 건물 배치도, 주변 암자 등의 그림이 주된 모습이고, 상단에 간단한 기록을 적어 넣은 형태이다. 당시 가람 규모로는 법당 13, 전사(殿舍) 12, 요방(寮房) 26, 산암(山庵) 19라 하였다. 이 기록에 대법당은 도선국사가 창건한 미륵전인 2층전이고 가운데 석종의 자취가 있으며 뜰에는 2 보탑이 있고 뒤편에는 3 부도가 있어 철불이 그 유적이라고 하였다.⁷⁹⁾ 「선암사사적」에서 말한 것처럼 본래 미륵전이었던 대법당 불대좌 밑의 석종과 상응하는 기록이다. 이 건도기 그림은 매우 조밀하고 대규모인 당우 배치 상황으로 보아 또 1759년 대화재로 소실되기 전의 그림으로 추정한다.⁸⁰⁾

그런데 1828년에 용암혜언(龍巖慧彦)이 쓴 「조계산선암사제육창건기(曹溪山仙巖寺第六創建記)」에는 법흥왕 때 아도(阿道)가 일선군에서 와서 절을 창건하여 청량산(淸涼山) 해천사(海川寺)라 하였고, 경덕왕 때 도선이 중창하여 절 이름을 선암사로 바꾸었고 대각국사가 산 이름을 조계산으로 바꾸었다고 하였다.⁸¹⁾ 그리고 도선 비결에는 호남에 삼암을 창건하면 삼국을 통일할 징조가 된다고 했다고 하였다. 이는 사실에 바탕을 둔 기록이 아니라, 백 여 년 전의 사적 기록에 신라 불교 초전자인 아도의 기록을 부가하고, 도선 비결의 삼한일통설을 위한 삼암설을 부가하여 선암사의 지정학적 위상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전승 또한 1921년의 「조계산선암사사적비(曹溪山仙巖寺事蹟碑)」로 계승되었다.

4. 전통산사의 전승

역사적 기록이 말해주는 명확한 창건 기록을 가진 사찰과 여러 기문을 종합하여 작성한 사적기를 가진 사찰은 조선 후기에 들어 공통적인 면모를 보인다. 임진왜란의 병화로 많은 사찰이 피해를 입어 모두 새로운 중창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후의 산사 운영은 대체로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먼저 통도사이다. 임진왜란 때 통도사의 불사리는 피난길에 오를 수 밖에 없었다. 기록에는 왜적이 탑을 훼손하고 사리를 꺼냈는데, 사명대사 유정(惟政, 1544~1610)이 승병을 일으켜 대항하자 왜적이 두려워하여 완전하게 해놓고 돌아갔다고 한다. 이때는 두 개의 함에 각각 2과의 사리가 들어 있었다 한다. 이에 사명대사는 사리를 받들어 금강산의 서산대사 휴정(休靜, 1520~1604)에게 가져갔더니 서산대사는 한 함은 문인에게 주어 태백산 보현사(普賢寺)에 봉안하게 하고, 또 한 함은 사명대사에게 주어 통도사에 돌아가 다시 봉안하게 하였다. 그런데 마침 사명대사가 일본에 교섭차 가게 되어 잠시 치악산 각림사(覺林寺)에 두도록 했는데, 제자인 청진(淸振)이 비슬산 용연사(龍淵寺)에 옮겨 봉안하였다. 용연사 대중들이 의논하여 탑을

로는 볼 수 없다. 대각국사 중창 건도기라고 이름했지만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의 활동 시기와 직접 대응하는 시기는 아니다. 선암사의 대각암이 의천이 주석했던 곳으로 알려져 그곳에 대각국사부도라 전하는 승탑이 남아 있지만, 의천의 생애에서 선암사 지역에 갔던 행적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79) 「曹溪山仙巖寺大覺國師重創建圖記」 “大法堂二層殿 卽詵國師彌勒殿也 中有石鐘古跡 庭有兩大寶塔 後有三浮屠 鐵佛是遺蹟也”

80) 文化財廳·順天市, 『仙巖寺 大雄殿 實測調査 및 修理工事 報告書』, 80~81쪽. 한편 1760년에 상월새 봉이 7층 누각건물을 지었는데 그림에 표시되어 있으며, 대법당이 본래 2층전이었는데 1824년에 현재의 모습과 같은 단층 대웅전으로 중건하였으나 그림에는 2층전으로 되어 있어, 그 두 건물 건립 연대 사이인 1760년에서 1824년 사이로 보는 견해도 있다.(昇州郡·南道佛教文化研究會 『仙巖寺』, 1992, 174쪽)

81) 龍巖慧彦, 「順天府曹溪山仙巖寺第六創建記」 “新羅法興王時 沙門阿道 自一善來 禮觀金相 欽慕聖蹟 焚修處祈夢受記 始創伽藍 以淸涼山海川稱寺 皆依教焉 景德王時道詵國師 按東方裨補 圖重創之 易寺名僊岳 其訣曰 創湖南之三岳 爲統合三韓之兆云”

만들어 안장하기로 하고, 1과는 통도사에 봉안하고 1과는 용연사에 봉안하도록 하니 1673년(현종 14)의 일이었다.⁸²⁾ 통도사에서는 정인(淨仁)이 중수하여 갈무리하고, 석종이 갈라지고 석단에 틈이 생기자 1705년(숙종 31)에 성능(性能)대사가 불보 계단을 중수하고 이 사연을 새긴 비를 세웠다.⁸³⁾ 이 불사에는 불국사를 비롯한 영남의 30여 사찰이 지원을 하였다.

통도사는 1642년에 『통도사사적약록(通度寺事蹟略錄)』을 편찬하여 통도사사리가사사적약록(通度寺舍利袈裟事蹟略錄), 사리영이(舍利靈異), 가사희기(袈裟稀奇), 사지사방산전비보(寺之四方山川裨補), 서천지공화상위사리가사계단법회기(西天指空和尚爲舍利袈裟戒壇法會記)로 구성된 내용들을 수록하여 자장 창건 이래의 사적을 정비하였다.⁸⁴⁾ 1705년(숙종 31)에는 「사바교주계단원류강요록(娑婆教主戒壇源流綱要錄)」을 편찬하여 계단 신앙을 보완하였으며, 1706년(숙종 32)에는 채팽윤에게 비문을 의뢰하여 「석가여래영골사리부도비(釋迦如來靈骨舍利浮圖碑)」를 세웠다.⁸⁵⁾ 이후 통도사는 수많은 중수 보수 불사를 진행하고 그 기록을 수십 개의 자료로 소장하게 남겨 보존하였다. 이를 토대로 18세기 이후의 통도사 운영 상황은 상세하게 알 수 있다.

통도사는 상로전 중로전 하로전의 세 구역으로 구성되었다. 상로전은 대웅전을 중심으로 명부전 응진전 삼성각 산령각과 승방인 일로향각으로 이루어졌다. 대웅전은 창건시, 명부전은 1369년(공민왕 18), 응진전은 1677(숙종 3)년, 산령각은 1761(영조 37)년, 삼성각은 1870년(고종 7)에 창건되었다고 전한다. 중로전의 대광명전은 창건시, 용화전은 1369년, 관음전은 1725년(영조 원년) 창건으로 알려졌다. 이 영역의 세존비각이 1706년(숙종 32), 해장보각이 1727년(영조 3)에 창건되어 18세기 전반에 현재의 구성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하로전의 영산전은 고려초 이전, 극락보전과 약사전은 1369년 창건이라 한다.⁸⁶⁾ 이렇듯 삼전체제가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은 18세기 전반이다.

부석사는 임란의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611년(광해군 3)에 비바람으로 무량수전의 중량(中樑) 충연(衝椽) 등이 부서져 1612년(광해군 4)부터 이듬해까지 서까래를 고치고 채색을 새롭게 하였다.⁸⁷⁾ 이는 자연 재해로 손상된 무량수전 일부를 보수하였음을 말한다. 1618년(광해군 10)에는 무량수전 수미단을 보수하였다.⁸⁸⁾ 1723년(경종 3)에는 무량수전 아미타불상에 대한 개금이 이루어졌고, 나발이 떨어져 나간 것을 보수하기 위해 1767년(영조 43)에도 개금이 이루어졌다.⁸⁹⁾ 1746년(영조 22)에는 승당 만월당 서별실 만세루 범종각 등이 불타는 피해를 입어 1748년(영조 24)에 이를 다시 세웠다.⁹⁰⁾ 1783년(정조 7)에는 시왕전 범종각 향로전을 중수하였고,⁹¹⁾ 1811년(순조 11)에는 무량수전 등 5개 전각이 중수되었다.⁹²⁾

법주사는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었는데, 이후 빠르게 재건되었다. 1602년(선조 35)에 사명대사

82) 權璫, 「娑婆教主釋迦如來浮圖碑銘」(용연사) 『朝鮮金石總覽』 하, 948쪽

83) 蔡彭胤, 「娑婆教主釋迦如來靈骨舍利浮圖碑」 『朝鮮金石總覽』 하, 1037쪽(性能 跋)

84) 『通度寺誌』, 아세아문화사, 1983, 1~54쪽

85) 『通度寺誌』, 287~318쪽

86) 김봉렬, 『김봉렬의 한국건축 이야기』 3, 2006, 돌베개, 172~186쪽

87) 「鳳凰山浮石寺改椽記」, 『浮石寺 無量壽殿』, 78쪽. 무량수전 후측 서북쪽 공포 墨書

88) 「無量壽殿須彌壇上寶蓋背面板 墨書」, 『浮石寺 祖師堂-修理實測調査報告書』, 74쪽

89) 「無量壽殿佛相改金記」 「無量壽殿彌陀尊相改金記」,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북2, 266쪽

90) 醉夢翁, 「浮石寺鐘閣重修記」; 新慧, 「浮石寺畫甘露會達摩師及梵鐘閣尋劍堂記」,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북2, 265; 266쪽

91) 山淵散人, 「浮石寺重修記」, 『浮石寺 無量壽殿 實測調査報告書』, 2002, 78쪽. 이 기록은 연대가 흑토(黑兎)라고만 표기하여 계묘년임을 알 수 있는데, 기사에 등장하는 抱雲善活이 1802년에 「無量壽殿安養樓重修記」를 지었기 때문에 1783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92) 警誼, 「太白山浮石寺無量壽殿及諸閣重修記」,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북2, 264쪽

가 주도하여 시작한 팔상전의 재건은 1605년(선조 38)에 심주를 세우고 이내 완성되었다.⁹³⁾ 팔상전은 1626년(인조 4)부터 1630(인조 8)년에 다시 중창되었는데, 이는 전후 기술력과 물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1차 중창의 결함을 보완하는 불사였다고 판단된다.⁹⁴⁾ 팔상전은 1895년(고종 32)에 다시 중수되었다. 1618년(광해군 10)에는 대웅전을 재건하고 벽암각성(碧巖覺性)이 참여하여 1626년(인조 4)에 비로자나 미타 석가 삼존불을 봉안하였는데,⁹⁵⁾ 이때는 대웅대광보전이라 이름하였다. 대웅전은 1678, 1715, 1785, 1850, 1870, 1894년에 연이어 중수되었다.⁹⁶⁾ 1710년(숙종 36)에는 세존사리비를 세웠다.⁹⁷⁾ 법주사는 조선 후기에도 왕실의 원찰로서 기능하였다. 영조의 후궁인 영빈이씨(映嬪李氏, 1696~1764)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법주사 경내에 영빈의 원당(願堂)이 건립되었다. 1765년(영조 41)에 영빈방에서 충청감영에 문서를 보내 속리사에 원당을 정해 승도의 노역을 면제해 주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영빈의 부친 이유방이 연기 출신이어서 일찍이 법주사와 인연을 가져 법주사에 영빈의 원당이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세워진 사당 건물 형태의 선희궁 원당은 지금도 남아 있다. 영빈 뿐만 아니라 법주사는 원종(元宗)의 원당이기도 했고, 순조의 태실 수호 사찰이기도 했다. 영조 때 노역을 면제해 주도록 했지만 그 사이 절이 퇴락하여 중수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 되자 1851년(철종 2)에 예조에서는 중수를 위해 공명첩(空名帖) 4백장을 보내 지원하여 승려들이 각도에서 모연하도록 하고 다시 사찰에 제반 부역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며 관민의 토산물 요구 폐단이 없도록 일일이 항목을 규정한 문서를 내렸다.⁹⁸⁾ 그리고 1889년(고종 26)에는 이에 더하여 원당 사찰이기 때문에 음주가무 잡기를 금하고 엄정한 제례가 이루어지도록 당부하는 문서를 내렸다.⁹⁹⁾ 특히 이때의 완문에는 법주사가 태조 백일기도, 정희왕후와 예종 성종 백일소, 원종과 인현왕후의 어실 봉안, 숙종과 인현왕후의 축수, 순조 태실, 선희궁 제향 등 왕실 대대로 인연을 이어온 왕실 원찰임을 열거하였다. 이런 조정의 배려는 19세기 후반에 큰 변화를 겪었던 법주사에 대한 보상의 의미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복원하기 위해 산호전의 장륙상을 가져갔는데, 이때 산호전 곧 용화보전도 해체되고 당간도 함께 사라진 것으로 전하기 때문이다.¹⁰⁰⁾ 대흥사가 대찰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은 서산대사의 유지에 따라 표충사(表忠祠)가 건립되고 서산 문도가 대세를 이루어 조선 후기 불교의 중추로 자부한 이후부터로 생각된다. 그 터전은 1647년(인조 25)에 세운 청허휴정(淸虛休靜, 1520~1604)의 비이다.¹⁰¹⁾ 이미 이정구가 지은 휴정의 비가 세워졌지만 다시 비문을 짓게 된 데 대해 찬자 장유는 서산대사가 속세에서 출가하여 법을 얻으신 것으로 말하면 실로 남쪽 지방에서 비롯되었고 또 해인사야말로 일찍이 주석하신 곳이니 뭔가 글을 남겨 두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제자들의 요청으로 짓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는 대흥사에 세워졌고, 한 세기 반이 지나 1788년(정조 12)에 대흥사에 표충사가 건립되었다. 이런 사정은 청허의 문도 중 가장 번성했던 편양파가 묘향산에서 발원하였으나 18세기에 사찰 중창과 운영을 위한 호남의 경제적 기반이 우수하여 선택한 새로운 본산이 대흥사였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⁰²⁾ 1792년(정조 16)에 석왕사에서 서산과 사명의 예에 따라 무학대

93) 문화재청, 『법주사 팔상전 실측수리보고서』, 2013, 32쪽

94) 문화재청, 『보은 법주사 팔상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3, 61쪽

95) 「發願文」 『한국의 사찰문화재』 충북, 2006, 80~82쪽

96) 문화재청, 『법주사 대웅전 실측수리보고서』, 2005, 286쪽

97) 汝寂慶秀, 「世尊舍利碑」 『한국의 사찰문화재』 충북, 91쪽

98) 「報恩郡俗離山法住寺判下完文節目」(1851) 『朝鮮寺刹史料』 상, 129~135쪽

99) 「報恩郡俗離山法住寺判下完文節目」(1889) 『朝鮮寺刹史料』 상, 135~141쪽

100) 문화재청, 『보은 법주사 팔상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3, 65쪽

101) 「海南縣大興寺淸虛大師碑銘」 『大苞寺志』, 233~240쪽

사의 사액(賜額)을 요청하자, 조정에서는 사액과 대사 호를 밀양 표충사(表忠寺)와 해남 대둔사(大菴寺)의 전례에 따라 허락하였다.¹⁰³⁾ 대흥사가 국가적 인정을 받는 제향의 본보기로서 알려진 것이다. 이에 앞서 대흥사에서는 표충사 건립과 함께 일련의 서산대사 현창 사업을 진행하였다. 1782년(정조 6)에 의승들의 사액사우 건립을 발원하며 서산의 유의(遺意)와 의발전수를 강조하였고, 1789년(정조 13)의 「표충사상량문(表忠祠上樑文)」, 1791년(정조 15)의 「표충사창건기(表忠祠創建記)」, 1792년(정조 16)의 「건사사적비(建祠事蹟碑)」에 이어 1795년(정조 19)에는 「서산대사행록(西山大師行錄)」을 엮어, 대흥사야말로 서산대사 유지를 이어갈 도량임을 명기하여 그 전승을 분명히 하였다. 「행록」에서 완성된 이 전승은 이때도 묘향산과 대둔산이 2천리나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아울러 적전(嫡傳)을 전했느냐는 의문이 있었던 듯, 보장록(寶藏錄)을 인용하여 이를 해명하고 있다. 즉 서산이 입적할 때 제자들에게 유촉하기를, 자신이 입적한 후에 해남 두륜산 대흥사에 의발을 전하라고 하였다. 이는 대흥사가 산천지세가 빼어난 만세불후(萬世不朽)의 땅이며, 왕의 교화가 미치지 않는 지역이니 이를 떨쳐야 하며, 처영 등 여러 제자들이 남방에서 활동했으므로 종통(宗統)이 돌아갈 곳은 마땅히 대흥사이니 이를 어기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명조(明照)에게 이 일을 주관하도록 하고 사명에게 글을 써주어 이를 당부하였다고 하였다.¹⁰⁴⁾ 1655년에 명조가 묘향산에 전하던 휴정의 발우와 의승대장 가사를 대둔사에 보냈다는 후대의 기록은 17세기 중반에 휴정의 유물이 대흥사에 전해진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대흥사의 서산대사 정통 계승 의식은 청허계 대표 문파인 편양파 주류와 소요파 적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대흥사 12대 종사(宗師)와 12대 강사(講師)의 전통과 권위에도 기반을 두었다.¹⁰⁵⁾ 이는 대흥사가 이 시기 선과 교학을 주도하는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는 자부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현재 어느 절보다 가장 풍부한 승탑과 탑비들이 남아 있는 대흥사 부도림은 서산대사에서부터 시작된 전통이 대흥사에서 이들 종사 강사들이 뛰어난 강학활동을 펼쳤음을 보여주는 현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왕성한 활동 결과 대흥사의 역사를 자료비판적 관점에서 체계화한 『대둔사지』를 6명의 고승들이 합심하여 1823년(순조 23)에 편찬해 낼 수 있었다. 또 1851년(철종 2)에는 당대의 명승 초의의순(草衣意恂)의 주도로 대광명전(大光明殿)을 새롭게 창건하였다.¹⁰⁶⁾ 초의는 19세기 후반 유학자와 승려의 교유를 이끌며 선사상과 차와 예술로 당대 불교계의 일면을 주도하였다.

마곡사는 임란 후 17세기 들어 중건되었다. 「태화산마곡사사적입안」에는 1650년(효종 2)에 공산현감이던 이태연(李泰淵, 1615~1669)의 시주로 중창을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청동 2천민 백미 3백석을 모아 절을 보수하고 옛 모습을 복원하여 선당을 고치고 약사전을 중수하며, 마곡사는 종이 만드는 사찰(紙所寺刹)이라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마곡사에서는 어람지(御覽紙)와 관청의 전문지(箋文紙) 등을 만들어 조정에 보냈다. 이어 1703년(숙종 29)에 각순(覺淳)과 박야외(朴也外)가 중창 사업을 전개하여 사찰 토지의 세금을 면제받고 대장전 영산전 천왕문을 지었다.¹⁰⁷⁾ 1782년(정조 6)에 큰 화재가 나서 법당을 비롯한 1,050칸의 건물이 불탔고, 이에 제봉체규(霽峰體奎)가 중수 사업을 벌였다. 체규는 대광명전 응진전 해탈문 천왕문을 중건하고 대광보전 중창기를 썼다. 이에 따르면 절에 3채의 법전(法殿)이 있어 2채는 절 북쪽에

102)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신구문화사, 2010, 133~137쪽

103) 『正祖實錄』 정조 16년 윤4월 24일

104) 金洛一, 「西山大師行錄」

105) 김용태, 앞의 책, 137쪽

106) 尹致英, 「大光明殿新建記」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남3, 2006, 412쪽.

107) 「태화산마곡사사적입안」에는 자장 초창, 보조 재창, 범일 3창, 도선 4창, 각순 5창이라 하였다.

위치하여 남향한 대웅전과 대광보전이고, 1채는 남쪽에 서쪽을 등지고 있는 영산전이였다. 대광보전은 대웅전 앞에 있고, 대광보전 앞에는 33층의 금탑이 있으며 금탑 남쪽에는 범종루가 있었다.

그런데 1782년의 화재로 대광보전과 선실(禪室)과 범종루가 불타고 오직 불상만 무사히 모셔냈고, 1785년(정조 9)에 절도사 심풍지(沈豐之)의 황조 2백석과 청동 3백민 시주를 토대로 대광보전을 중수하였다.¹⁰⁸⁾ 이후의 중건 기록은 「태화산마곡사사적입안」 후반에 수록된 「마곡사 회록후개건금중수년기록(麻谷寺回祿後改建及重修年記錄)」에 자세하다. 체규는 또 1789년(정조 13)에 정조의 후손을 얻기 위해 정순왕후가 농산대사에게 천일기도를 올리도록 했고 범손인 체규가 계속하여 기도를 마쳐 마침내 순조가 탄생했다는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순조 탄생 기도는 선암사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시행되었다고 알려졌는데, 마곡사도 그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마곡사에는 태실(胎室)이 봉해져, 영산전 뒤쪽 군왕대(君王臺) 태실에 봉산(封山)을 지정했다고 하였다. 체규는 이밖에도 나한전 심검당 응진전을 창건하였다.

이후 1816년에는 불탄 총지료를 건립했고, 1842년에는 영산전을 중수하였으며 불이난 매화당을 중건하고 향각을 새로 건립했다. 1844년에는 홍성루를, 1846년에는 해탈문 약사전 매화당 공루를 중수하고 1852년에는 나한전을 개건하고 대광보전의 변와와 홍성루 해탈문 연대암의 중수를 시행했다. 1855년에 큰 불로 심검당을 비롯한 100여 칸의 건물이 불타자 공명첩을 제공한 조정의 지원으로 1855년에 심검당을 중수하였다. 1862년에는 삼조사 영당, 1905년에는 대웅전, 1910년에는 천왕문과 해탈문, 1923년에는 대웅전을 중수하였고 1939년에는 영산전 북쪽에 명부전을 건립하였다.

봉정사는 임란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조선 후기 들어 1601년에 대웅전을 중수하고 쓴 기록에 임진란에 팔도가 왜적의 침입으로 불탔으나 이 절만 유독 남았다고 하였다.¹⁰⁹⁾ 1625년에 극락전을 중수하였다.¹¹⁰⁾ 이 시기의 중수는 임란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인데, 극락전은 오랜 세월 남아 비가 새고 들보와 기둥이 썩고 헐어서 중수하였다고 한다. 1683년에는 지금의 만세루인 덕휘루(德輝樓)가 중창되었다.¹¹¹⁾ 강희(1662~1722) 건륭(1736~1775) 연간에는 두 차례 지붕 보수가 이루어졌다.¹¹²⁾ 1753년에는 대웅전 관음상의 금박이 떨어져 개금불사가 이루어졌다.¹¹³⁾ 1809(순조 9)에는 극락전과 대웅전 양 법당의 중수가 이루어졌고,¹¹⁴⁾ 1818년에는 덕휘루가 중수되었다.¹¹⁵⁾

선암사는 호암약휴 대사가 이룩한 4차 중창불사로 대가람의 면모를 갖추었다. 약휴는 1698(숙종 24)년 원통각, 1703년의 대법당과 오십전, 1707년의 승선교 불사를 지속적으로 맡아 이루어냈다. 약휴의 4차 중창으로 선암사는 법당 8, 전각 12, 승방 16, 암자 15개소, 승려 350명의 대가람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759년에 큰 불이 나서 5차 중창이 이루어졌다. 화재 이전의 전각으로는 대웅전 불조전 원통전 판전 능인전 칠전 응진당 무사전 국사전 적묵당 무집당 당사방 서상당 동상당 지장전 고법당 소재전 천불전 관음전 만월당 백련사 성행당 사미당 등의

108) 霽峰體奎, 「忠淸右道公州判地西嶺泰華山麻谷寺大光寶殿重創記」 『한국의 사찰문화재』 충남, 2004, 108쪽

109) 「大雄殿改椽重修記」(대웅전중도리 하부) 『봉정사 대웅전 해체수리공사보고서』, 2004, 130쪽

110) 「上樑文」(記文藏處) 『봉정사 극락전 해체보수공사』, 105쪽

111) 鄭必達, 「天燈山鳳停寺德輝樓記 懸板」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북2, 2008, 251쪽

112) 대웅전 동북 추녀 목서, 『봉정사 대웅전 해체수리공사보고서』, 2004, 128쪽

113) 雪峰思旭, 「大雄殿觀音改金 懸板」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북2, 252쪽. 이 기록에는 불상이 1199년 초창, 1364년 1차 개금이라 하였다.

114) 海雲日昕, 「兩法堂重修記」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북2, 250쪽

115) 裏宗休, 「天燈山鳳停寺德輝樓重修記 懸板」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북2, 251쪽

당우와, 백련암 일출암 서부암 비로암 향로암 금수암 선조암 차암 수도암 운수암 양성암 등의 암자로 구성된 대찰이었다. 화재 후 1761년(영조 37)에 상월새봉(霜月璽封) 등의 노력으로 551명의 역군이 동원된 5차 중창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화재를 대비하려는 의도에서 절 이름을 아도가 처음 창건했던 이름이라고 전해 오던 청량산(淸涼山) 해천사(海川寺)로 바꾸었다. 그러나 이즈음에 작성된 팔상전 상량문의 내용이 훼손이 심하여 화재로 인한 구체적인 당우의 피해 상황과 중창 내역은 알기 어렵다.

1823년에 다시 큰 화재가 나서 대웅전 명부전 정문루 향로전 등 당우 4동과 승당 선당 등 요사 6동이 소실되었다. 이듬해인 1824년(순조 24)에 해봉전령(海鵬展翎) 놀암(訥庵) 익종(益宗) 등이 중심이 된 제6차 중창이 시작되었다. 먼저 불에 탄 대웅전 등 당우와 승당 등 요사를 재건하였다. 중창에는 흥국사 송광사 화엄사 대흥사 천은사 쌍봉사 유마사 능가사 금탑사 등 주변의 여러 절에서 승장(僧匠)을 보내 일을 도왔으며 선암사의 승려 300여 명이 동원된 대불사였다. 이때의 사정은 1828년에 용암혜언(龍巖慧彦)이 쓴 「조계산선암사제육창건기(曹溪山仙巖寺第六創建記)」에 잘 나타나 있다. 이때 다시 절 이름을 해천사에서 선암사로 바꾸었다. 이런 모습이 근대까지 지속되어 1935년의 범종 중창불사 상량문에서는 본산 각 불각(佛閣)으로 대웅전 원통전 불조전 팔상전 대장전 나한전 명부전 약사전 진영각 산신각 장경각 심검당 설선당 무우전 소재전 천불전 창파당 응향각 대지전 전문강원 달마전 미타전 벽안당 만세루 강선루 범종루 대선루 진남루 조계문 진여문 대변소 여관 등의 당우와 극락암 도성암 도선암 등의 암자가 있는 대규모의 가람구조를 이루고 있었다.¹¹⁶⁾

전통 산사들은 임란 이후 대규모 중창 또는 중수를 통해 점차 가람 영역을 확대하며 수행의 전당으로 이끌어 나갔다. 봉정사는 극락전 중심에서 대웅전 영역이 확대되었고, 통도사는 삼전 체제로 확대되었다. 대흥사와 마곡사는 하천을 넘어 사역이 두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법주사는 미륵전과 팔상전 축에 대웅보전과 팔상전 축이 교차하였다. 선암사는 중첩된 당우를 이루었고, 부석사는 큰 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각 사찰을 수호 유지하려는 호법 대중의 열성을 바탕으로 많은 신도들의 적극적인 시주와 도움으로 중창 중수는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법주사 선암사 마곡사 등 왕실의 기도 사찰은 유지와 중수 불사에 왕실의 지원을 받았다. 중창을 담당했던 이들은 그런 사실을 충실히 기록에 담아 남겼다. 건축의 상량문과 중창기, 불상과 불화의 조성기와 발원문 및 개금기 등이 그들이다. 이들 기문(記文)에는 중수 사정은 물론 이에 참여한 승속의 시주들이 이름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사찰을 이끌어간 주인공들이다. 이들 자료는 문사의 필을 빌어 사적비와 같은 정제된 자료로 새겨지기도 했고, 종합 정리되어 사적기로 체계화되기도 했다.

이들 전통 산사들에 대해 이제까지 살펴본 기문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 지리적 조건과 생태적 환경에서 어떻게 건축과 조경이 조화를 이루며 경영되어 왔는지를 폭넓게 살펴가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기록 자료를 살핀 작업은 따라서 종합 고찰의 시작에 불과하다.

116) 「曹溪山仙巖寺梵鐘樓上樑文」 『仙巖寺 大雄殿』, 85쪽

<부록> 전통산사 주요 기록 자료

사찰	연도	記文	찬자	비고
대흥사	1639	竹迷記	中觀海眼	1722刊
	1744	大茆寺事蹟碑	蔡彭胤	1727撰
	1788	西山大師 教旨衣鉢 藏于湖南大茆山 正祖實錄		
	1789	表忠祠上樑文	尹持範	
	1791	表忠祠創建記	應雲愷昨	
	1792	建祠事蹟碑	蓮潭有一	
	1795	西山大師行錄	金洛一	
	1823	大茆寺志	玩虎尹佑	
	1823	千佛奉香閣市鍾記	草衣意恂	
	1836	表忠祠屋碑閣重建記	裴龍璽性	
	1851	大光明殿新建記	尹致英	
	1901	大雄殿重創上樑文	申獻求	
	1901	各處施主		
	1906	頭崙山大興寺冥府殿獻畚記	幸彦	
	1907	大雄殿重建記	翠雲慧悟	
	1907	佛事與丹青記	圓應成定	
	1912	大茆寶鑑		圓應序
	1917	羅漢殿及舍利塔築牆捐義錄		
마곡사	1670	公山地華山麻谷寺二層大藏殿丹青記		
	1780	泰華山麻谷寺貳層殿重修記		
	1785	忠淸右道公州判地西嶺泰華山麻谷寺大光寶殿重創記	霽峰體珠	
	1831	泰華山麻谷寺貳層大雄寶殿重修記	練鳳瀨永	
	1837	永世不忘祝願	慶船應釋	
	1843	泰華山麻谷寺千佛殿重修文	鏡月快守	
	1851	泰華山麻谷寺事蹟立案 麻谷寺回祿後改建及重修年記錄 麻谷寺四山立案犯標		
	1851	立案完文	任源橫	
	1852	公州泰華山麻谷寺羅漢殿重建記	鏡月快守	
	1856	公州地泰華山麻谷寺尋劔堂重建記	湖月昌濂	
	1862	麻谷寺三國師影堂重建募緣文	鏡月抱蓮	
	1868	泰華山麻谷寺國師堂懸板造成		
	1879	忠淸南道公州泰華山麻谷寺大雄殿懸板	敏奎	
	1890	泰華山麻谷寺大光寶殿佛糧稷懸序文		
	1890	大施主永世不忘記	慶船應釋	
	1905	麻谷寺大雄殿重修記	龍潭學演	
	1909	公州郡泰華山麻谷寺尋劔堂公寮飜瓦記		
	1910	泰華山麻谷寺解脫門重修記		
	1910	泰華山麻谷寺天王門重修記		
	1926	麻谷寺錦湖和尚獻畚記	洪淳昇	
	1928	公州郡泰華山麻谷寺大雄寶殿三尊佛像改金重修記	安香德	
	1932	朝鮮忠淸南道公州郡麻谷寺獻畚記	安香德	
	1939	忠淸南道公州郡泰華山麻谷寺冥府殿勑建記	安香德	
	1903?	有功不忘記		
		禪教兩宗大本山麻谷寺緣起略抄		
법주사	1112	流俗離寺住持僧統窺于巨濟縣 高麗史節要		
	1126?	俗離寺占察會疏	金富軾	
	1342	俗離山法住寺慈淨國尊碑銘	李叔琪	

	1424	禪教兩宗 教宗俗離寺 世宗實錄		
	1464	世祖行幸 世祖實錄		
	1626	法住寺塑造毘盧舍那三尊佛像腹藏發願文		1747改金
	1630	俗離山大法住寺大雄大光明殿佛像記	中觀海眼	
	1635	報恩縣俗離寺丈六佛 流汗如瀉 仁祖實錄		
	1636	梵鐘 중사자암		
	1641	藥師殿 佛像三尊 臺座	靈眞	증명
	1652	壬辰入俗離大法住寺 重修丈六金身 白谷處能師碑銘	申晷	汾厓遺稿10
	1659	報恩縣俗離寺佛像流汗 孝宗實錄		
	1664	碧巖大師碑銘	鄭斗卿	
	1666	報恩郡俗離山事實	宋時烈	
	1689	報恩俗離山大法住寺南石橋碑	竺河	주지
	1710	世尊舍利碑	汝寂慶秀	
	1715	俗離山大法住寺大光明寶殿四度重修上樑文		
	1742	新法天文圖		
	1747	法住寺塑造毘盧舍那三尊佛像造成願文		1
	1750	梵鐘		
	1766	掛佛	雪月觀性	증명
	1804	梵鐘		1916중수
	1851?	報恩郡俗離山大法住寺之來歷		
	1851	報恩郡俗離山法住寺判下完文節目	尹定鉉	
	1870	俗離山法住寺大雄寶殿重修上樑文		
	1873	俗離山大法住寺事蹟	淸空思○	1737初
	1889	報恩郡俗離山法住寺判下完文節目	趙秉轍	
	1894	俗離山大法住寺大雄殿重修上樑文		
	1897	三身佛圖 아미타	湧岳潔澤	증명
	1897	영산회상 사천왕 관음 삼장 팔상도 신중	湧岳潔澤	증명
	1917	三身佛圖 비로자나	石霜信首	증명
봉정사	1363	極樂殿 墨書銘		
	1435	法堂重創記 大雄殿 墨書		
	1625	極樂殿 上樑文		
	1683	天燈山鳳停寺德輝樓記	鄭必達	
	1728	天燈山鳳停寺記		
	1753	大雄殿觀音改金	雪峰思旭	1199初創
	1754	鳳停寺蹟文		1962墨書
	1757	鳳停寺古法堂佛糧田畝記文	雪峰	
	1769	天燈山鳳停寺大藏經鏤板部數	碧虛明贊	
	1770	天燈山鳳停寺古法堂大藏板殿燈燭獻畝記	碧虛明贊	
	1809	兩法堂重修記	海雲日昕	
	1818	天燈山鳳停寺德輝樓重修記	李宗休	
	1827	重修記	幻谷大衍	
	1864?	鳳停寺東樓記	秋岡居士	甲子
	1888	十六羅漢新畫幀大施主		
	1906	鳳停寺雪山庵香爐殿創建記	影海奎彦	
	1912	獻土記	權世榮	
	1921	大雄殿佛糧燈燭供辦記	金炳宇	
	1923	鳳停寺極樂殿重修記	金永煥	
	1926	七星禊序	金永煥	
부석사	676	浮石寺創建 三國史記		
	1054	圓融國師碑銘	高聽	

	1202	浮石寺丈六前願文	李奎報	
	1377	祖師堂長舌上端 墨書		
	1573	祖師堂道里下端 墨書		
	1613	鳳凰山浮石寺改椽記 무량수전 공포		
	1618	無量壽殿須彌壇上寶蓋背面板 墨書		
	1644	浮石寺安養樓重勅記	四溟狂漢	
	1691	無量壽殿懸板 裏書		
	1709	祖師堂望瓦 墨書		
	1723	無量壽殿佛相改金記	鷄龍山客	
	1723	安養門重修記		
	1745	掛佛 五佛會	月巖震基	증명
	1748	浮石寺鐘閣重修記	醉夢翁	
	1750	浮石寺畫甘露會達摩師及梵鐘閣尋劒堂記	信慧	
	1765	改瓦記		
	1767	無量壽殿彌陀尊相改金記	碧虛	
	1783?	浮石寺重修記	山淵散人	
	1796	靈山殿彌陀後佛幀及彌陀觀音改金記		
	1802	無量壽殿安養樓重修記	抱雲善閣	
	1806	太白山浮石寺無量壽殿及諸閣重修記	警誼	
	1808	兩寶殿丹牖重修記	申宗爲	
	1914	同遊錄	信古	
선암사	1147	曹溪山仙岩寺大覺國師重創建圖記		
	1704	曹溪山仙巖寺事蹟	桂陰浩然	
	1707	昇平府曹溪山仙巖寺重修碑	蔡彭胤	
	1713	仙巖寺溪流洞昇仙橋碑		
	1719	仙岩寺曹溪門重創上樑文		
	1798	禪院十二條例	訥庵識活	
	1824	大雄殿重修上樑文	金鼎均	
	1828	昇平府曹溪山僊嵒寺第六創建記	龍巖慧彦	
	1830	大法堂丹青改金點眼施主秩		
	1850	佛糧獻畚大施主		
	1875	上納紙折半鐫減記功文	菡明台炫	
	1879	大覺庵待仙樓記	德昊	
	1880	眞影閣記	茶○慧勤	
	1890	仙巖寺大乘庵重建記	李建昌	
	1890	大覺庵三聖閣記		
	1921	曹溪山仙巖寺事蹟碑	呂教亨	
통도사	650?	戒壇創建 三國遺事		
	1235	戒壇開鑊 舍利瞻敬 三國遺事		
	1379	梁州通度寺釋迦如來舍利之記	李穡	
	1399	天狗星 命設道場于通度寺以禳之 定宗實錄		
	1407	曹溪宗資福寺 太宗實錄		
	1642	通度寺事蹟略錄	退隱敬一	重刊
	1705	娑婆教主戒壇源流綱要錄	敏悟	重刊
	1706	釋迦如來靈骨舍利浮圖碑	蔡彭胤	
	1713	通度寺金堂重創上樑文	淨眼	
	1714	通度寺極樂寶殿重創上樑文 施主秩	澗草	
	1716	靈山殿天王門兩重創兼丹牖記文	鷲巖義玄	
	1755	八相記文	瓦松德閨	
	1757	通度寺文殊殿重創記	雲坡六幻	

1758	大光明殿三成功畢後懸板		
1767	改成掛佛記施主	凝庵希有	
1775	翠虛樓重修記	李俊民	
1775	通度寺萬歲樓重創記		
1780?	極樂殿重修施主秩	影波聖奎	
1781	觀音殿重修兼丹牘記	李心卿	
1785	藥師殿重修錄	水營	
1792	靈山殿重修兼丹牘記	優聊齋	
1792	世尊碑閣記	成種仁	
1792	靈山殿重修施主懸板		
1796	通度寺崇燠錄記	春性	
1800	鷲棲山通度寺極樂殿重修上樑文	金波任秋	
1807	普光殿創建施主名啣錄		
1807	嶺左梁山郡北鷲棲山通度寺普光殿新創記		
1808	普光殿建立施主名啣錄		
1808	普光殿獻畚施主記		
1809	通度寺大法堂重修記	李游夏	
1809	舍利閣重修兼丹青大施主		
1823	戒壇重修與舞楓橋改造後跋		
1823	金剛戒壇重修記	戒悟	
1838	傳令通度寺僧統和尚		
1841	梵鐘閣重修記		
1842	德巖大師雜役革罷有功記	儀典	
1843	通度寺有功記	灝雲道彥	
1843	通度寺影子殿重創記（上樑文 議典）	月荷戒悟	
1844	圓音閣丹青記	清波芝沾	
1845	地藏殿重修翻瓦改金記	聖潭儀典	
1845	通度寺普光殿燈油同參施主芳啣記		
1856	佛土助緣記	九鳳知和	
1857	通度寺普光殿重修記文	灝雲道彥	
1857	光明極樂兩法堂蓋瓦施主記	灝雲道彥	
1858	舍利閣翻瓦施主記	灝雲道彥	
1858	壬午甲稷有功讚	權魯郁	
1858	伽藍殿上樑文		
1859	通度寺甘露堂燈燭楔序	灝雲道彥	
1863	通度寺普光殿重修記文	訥菴栽澹	
1865	通度寺普光殿丹青記	有惺	
1872	舍利塔重修記	訥庵栽澹	
1881	丙午甲序文	東岳萬樹	
1890	冥府殿重建記	永海智宗	
1899	龍華殿重修施主錄	敬讚	
1900	皇華閣上樑文	龍岳慧堅	
1912	金剛戒壇重修補助記/緣化記		
1934	佛宗刹略史	改書	1911編

주제발표 2

전통산사의 입지조건

김일림
상명대 교수

전통산사의 입지조건

김일립 상명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1. 서론

한국에 불교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데는 중국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한국적인 불교 해석과 불교의례를 통해 독자적인 불교문화를 이루어왔다. 이러한 고유한 정신세계와 신앙행위는 한국 사찰입지 및 사찰문화경관의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의 전통산사의 입지조건은 창건당시의 입지조건을 다룬 상세한 사적기가 전해오면 산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겠지만 대부분은 창건부터 현재까지 내력이 소상히 적힌 사적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이는 사찰이 한번 소실되면 사적기도 함께 없어지기 때문에 사찰을 복원할 때 사적기를 새로 만드는 것이 상례였다. 이때 기억에만 의지하여 사적기를 작성하거나 역사에 밝지 못한 이가 작성하면 앞뒤 이야기가 달라지는 등 많은 오류가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망실되고 난후 바로 작성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복원이 수십년이 걸리거나 폐사가 되었다가 세월이 흐른 뒤에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 복원하는 경우에는 그이전의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전통산사들은 대부분 각 사찰에서 의존하고 있는 창건연대가 삼국, 통일신라시대이지만 그 정확성은 확인하기 쉽지 않다. 그 이후 역사적 시대흐름에 의한 다양한 재해를 겪으면서 중건, 중창, 복원을 수차례 겪으면서 현재의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사찰이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그 배경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이전의 분류형식에는 불교의 입지관과 한국의 자연환경적 요건과 결부시키고, 이는 한국적 민간신앙이라는 종교문화와 융화를 이루면서 한국만의 독특한 유형의 불교가 조성되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7개 전통산사(표 1)의 입지조건을 자연환경적, 불교사상적 그리고 풍수사상적 요인으로 구분해보았다.

표 1. 7개 전통산사의 인문적 위치

사찰명	현재 위치	창건연대	본·말사
대흥사	전라남도 해남군 삼선면 구림리 799	544 아도화상	22교구 본사
마곡사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	643 자장율사	6교구 본사
법주사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553 의신조사	5교구 본사
봉정사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	672 능인대덕	16교구 말사
부석사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676 의상대사	16교구 말사
선암사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산802	527 아도화상	20교구 본사
통도사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646 자장율사	15교구 본사

2. 전통산사의 입지결정 요인

1) 지형환경적 요인

한국의 사찰은 계곡의 절경을 택하여 세워진 것이 대부분으로 그 입지의 선택에서 커다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독특한 풍토와 한국불교가 지닌 성격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자연의 지세를 존중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순응하려는 한국 사람들의 생활경향이 사찰입지에 있어서도 그대로 표출되었다.

초기에는 저지에 사찰들이 입지하였는데 대체로 도성 또는 도성 부근의 광활한 평지에 사찰들이 건축되었다. 그 후에 사찰의 입지가 산지로 옮겨가면서 초기에는 산간의 넓은 평지를 택하여 사찰들이 조영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경사진 지역에 사찰들이 건립하게 되었다.

산지에서 사찰의 입지는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곳으로 산록완사면과 경사급사점 사이의 중간지역에 위치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사찰의 뒤쪽이나 혹은 좌우 양쪽과 뒤쪽이 모두 산줄기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사찰 입지장소로 한정되어 있다. 평지사찰들은 회랑이 금당과 탑을 외부와 구분 짓는 반면에 산지에 있는 사찰들은 자연 지형자체가 회랑의 기능을 담당하여 사찰 내에서도 경건한 예불장소를 구성하게 된다.

사찰들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 산세는 사찰들을 마치 포위하듯이 둘러싸고 있어서 지역적으로 다른 곳과 구별되는 경계의 역할을 한다. 사찰들이 위치하는 방향은 주로 남쪽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불교신앙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기후조건에 적응하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사찰들이 위치하는 장소는 대체로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앞으로는 트여져 있어서 겨울에는 차가운 북풍을 막아주고 햇볕이 잘 들어오게 하며 여름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대부분이다. 또한 사찰주변에는 대체로 하천이 흐르고 토양이 비옥하며 여름철의 집중호우 시에도 배수가 잘되는 장소를 택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찰들이 입지할 때는 하천 옆에 입지하거나 하천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불교사상적 요인

4세기경 삼국 시대에 불교가 최초로 중국을 통해 전래되었을 때, 고대 국가 건설의 정신적인 기둥의 역할을 하는 호국 불교적 사상의 성격을 띠었다. 신라의 불국토 사상은 호국 불교 사상과 결부되어 삼국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후 남북국 시대의 신라에서는 불교 본연의 사상에 기반 불교 연구가 깊어졌으며 중국 및 다른 나라의 불교 사상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일심 사상 · 화쟁 사상 · 화엄 사상 · 유식 사상 · 정토 사상 · 밀교 사상 등이 성립되었다. 이 시대에 성립된 통불교(通佛敎)적 성격은 한국 불교 사상의 특징적인 성격 중 하나가 되었다. 이는 남북국 시대 신라 말기에 선종구산을 통해 성립된 후, 고려시대의 오교 양종¹¹⁷⁾, 조선 시대의 선교 양종, 현대의 조계종¹¹⁸⁾으로 이어지는 선종의 전통을 뚜렷이 형성하였

117) 열반종·계율종·법상종·법성종·원융종의 5교종과 선종의 천태 및 조계 양종을 일러 오교양종이라고 한 설이 대체로 통설화되어 왔다

118) 교관겸수(敎觀兼修)는 해동 천태종(天台宗)의 개조인 고려의 의천(義天: 1055-1101)이 주창한 사상으로, 교(敎)만 닦고 선(禪)을 없애거나 선(敎)만 주장하고 교(敎)를 버리는 것은 완전한 불교가 못되고 교와 선을 함께 닦아야 한다는 사상이다. 고려에서 선종은 태조(太祖: 재위 918-943)의 옹호를 받았으나 현종(顯宗: 재위 1010-1031) 이후에 화엄종(華嚴宗) · 법상종(法相宗) 등의 교종이 세력을 얻어 선종에 대항하였으며, 교종과 선종은 상대를 배척하였다. 이때 의천은 천태종과 화엄종의 양종을 통화(統和)한 종합적 불교관을 세워 교(敎)와 관(觀)을 겸수하는 것이 불교 수행(修行)의 바른 길이라

다.¹¹⁹⁾

3) 풍수지리적 요인

사찰의 입지조건으로 풍수는 생기가 모이는 곳, 즉 혈을 이룬 곳에 사찰을 세워야 한다고 하며 또한 혈의 대소에 따라 그곳에 세워지는 사찰의 규모가 결정된다고 한다. 이 개념은 음양설과 오행설의 합인 음양오행설에서 원용한 생기설과 그 생기의 감응설에 근거를 둔다. 사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대부분 대웅전은 바로 이 혈의 자리에 앉혀야 하고, 대웅전의 방향은 래용의 방향에 의해 정해진다고 한다. 이에 따라 대웅전은 주산을 등지게 되고 배치의 축선은 지형에 따라 대체로 결정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산맥은 백두산을 정점으로 남쪽을 향하여 뻗어있기 때문에 그 혈은 주로 남향인 것이 많아 대부분의 사찰이 남향으로 입지할 수 있었고, 산맥의 내용방향(來龍方向)에 따라 사찰의 축이 동 또는 서의 방향으로 자리 잡은 경우도 있었다.

풍수지리의 가장 뚜렷한 현상은 지역의 한정이다. 풍수지리에서 경계요소인 사산은 산과 물로서 이들은 일상성이 아닌 성속에 속하는 상상의 세계를 의미하며, 천상의 원형을 지닌 것으로서 지상에 구현된 것이다. 사신이 이루는 능선은 하늘의 경계가 되며, 물은 지하수계와의 경계를 의미한다. 풍수지리에서의 중심은 혈이 실제적인 것이 되듯이 풍수에서의 혈 또한 명당에 동참으로서 어떠한 사원이나 궁전 또는 묘는 실제적인 의미를 갖게되는 것이다.

풍수지리에서 조산-조수-안산-내수-명당-진-주산으로 이어지는 축은 가장 명확한 상징적 통로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사찰터는 주위의 자연환경과 어울어져 있으며, 사찰의 중심은 동서남북으로 높인 사신도의 네방위 개념이 근거에 있다. 현무에 해당하는 대웅전을 축으로 보아 북쪽에 안치시키고 좌우 청룡백호에 해당하는 승방 혹은 요사체가 놓이며 남으로 문루가 주작을 대신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사찰경관의 특징을 건물배치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국불교사찰에 대한 입지유형의 연구는 창건 당시의 시대적인 정치, 경제, 문화적인 측면이나 불교교리의 종파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 이러한 요인들이 사찰입지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4) 기타 민간신앙 요인

불교가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산천의 수려한 영지를 택하여 도량을 열고자 했을 때 영지신앙이나 산악신앙과의 문제는 있었다. 사물에 정령 혹은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신앙 내지는 사물 그 자체에 불가사의한 힘을 느끼고, 이것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프리애니미즘 등은 원시사회의 공통적인 사상경향이다.

한국인은 고대로부터 그들의 생활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불가사의한 초월적 존재에 대한 신앙이 두터웠다. 따라서 불교가 삼국에 전래될 때 재래의 천신신앙과 샤머니즘에 혼용된 정토신앙으로 발전하면서 민간의 자연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민간신앙과 불교가 융합하는 현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신라시대의 사찰입지와 연관해서 고찰해 보면, 신라인들은 신성관념 속에서 하늘과 연결된 천신관념과 땅의 산천신관념을 지니고, 산천신의 원형은 정혼신앙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하며 여러 민간신앙들과 연결한 명산대찰의 의식을 만들어 예배의 대상으로 등장시켰다. 예배의 대상도 개인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집단적으

고 주장하였고 전(全)불교가 대동단결하는 이론적 체계를 수립하였다. 교관겸수 사상은 조계종의 창시자인 지눌(知訥: 1158-1210)의 정혜쌍수(定慧雙修) 사상과 함께 한국 불교의 전통이 되었다.
119) 위키백과,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로 변모하여 국가적 예배대상으로 정착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산천·산신숭배가 삼국통일기에 호국신앙 성격을 지니는 존재로 나타났던 것으로 입증된다.

따라서 사찰을 찾는 민족고유의 산악신앙을 기초로 하여 산간 속에 불교의 독특한 사상과 상징성을 내포하며, 산은 인간계보다 높은 이상향을 추구한다는 수직적인 수미산 중심 세계구조의 우주관에 입각한 조형체계를 갖추고 있다. 민간신앙에서 산신신앙의 영향으로 산신각을 마을에 두는 것과 같이 불교에서 재래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마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일한 위치에 산신을 모시게 되었다. 이러한 산악숭배사상은 불교에서 습합한 흔적이 있고 현존하는 사찰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신각이나 삼성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표 2. 전통산사의 입지요인

입지요인	내 용
지형환경적 요인	해발고도, 산세, 수세
불교사상적 요인	불교사상/수직적/수평적 원리 적용
풍수지리적 요인	형국론, 형세론
기타 요인	민간신앙

3. 한국의 전통산사의 입지조건

1) 자연환경적 입지유형

문화적 의미의 입지개념이란 건물이 세워질 대지 자체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 및 주변 상황조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위치하는 것이다. 지형이란 다양한 내외적인 작용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지구상에 동일한 지형은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특성을 대상으로 지형단위를 설정하여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입지유형의 분류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형태적인 특징과 기복 그리고 경사각에 따라 평지, 대지, 구릉지, 산지로 대별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사찰입지의 유형별 구분을 하는데 자연환경요소로 이용하였다.

지형을 단위별로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고에서는 형태적이 특징과 기복에 따른 입지유형별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자연지형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해발고도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입지하고 있는 마을과 사찰과의 거리, 그리고 사찰이 입지해 있는 사찰과 산과의 관계와 하천의 유무에 따른 복합적인 요인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았다.

저지입지형은 해발고도 100m 미만의 낮은 지역에 경사가 거의 없는 평평한 지형인 경우를 저지로 규정하였고, 사찰은 ‘저지입지형 사찰’이라 하였다. 마곡사가 여기에 속한다. 산지입지형은 해발고도 300m이상 되는 지역에 경사도가 5°이상 되는 지형에 위치한 사찰을 말한다. 여기에는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가 있다. 산록입지형은 저지와 산지로 규정한 사이에 입지한 사찰들을 말한다. 해발고도 100m-300m사이에 경사가 거의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약간의 단계를 이루는 유형에 속한다. 대흥사, 선암사, 통도사가 여기에 속한다(표 3).

전통산사의 자연 환경적 특성은 해발고도 100m이하의 마곡사, 100-300m사이에 대흥사, 통도사, 선암사이고, 300m이상이 봉정사, 법주사, 부석사순이다. 이는 해발고도의 높고 낮음과 사찰배치의 평지와 산록에 입지해 있으므로, 기존의 연구되었던 평지형, 마을형, 산지형이 유형에 기준으로는 맞지 않다. 대흥사의 경우 해발고도가 낮더라도 마을에서부터 두륜산의 사

찰에 까지 이르는 길이 산문을 따라 이동하여 산사에 다다르기 때문에 산지사찰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법주사의 경우는 300미터가 넘는 해발고도에 입지해 있지만 배치 자체는 평지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전통산사라고 명명하는 것은 뒤에 산을 병풍으로 둘러싸고 입지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

표 3. 전통산사별 자연환경 요인

사찰명	해발 고도	산명	마을명	마을과의 거리	하천명	하천과의 거리	도폭명 1:50,000
대흥사	130	두륜산 703	구림리	3km	대흥사천	100	이진
마곡사	80	태화산 무성산 614	운암리	1km	마곡천	125	전의
법주사	360	속리산 1058	사내리	0.5km	달천	175	속리
봉정사	305	천등산 575	한골	0.8km	송야천/(무명)	1km/ 50	안동
부석사	510	태백산 1567 봉황산 818	방동	0.5km	임곡천(X)	1km	영주
선암사	240	조계산 884	죽학리	3km	선암사천	250	해남
통도사	170	영축산 1081	지산동	1.5km	양산천	125	양산

2) 유형별 전통산사의 특성

(1) 저지입지형 사찰

마곡사는 북쪽의 국사봉 590.8m, 서쪽의 옥녀봉 362.4m, 동쪽의 무성산 614m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마곡사를 둘러싸고 있는 연속적 산지들을 총칭해서 태화산이라 한다. 마곡사는 태화산에 입지해 있다. 마곡사 일대에서 마곡천이 감입곡류하고 있고 마곡사는 마곡천의 양쪽 하안단구면에 입지해 있다. 마곡사가 태화산으로 둘러싸인 마곡천의 하안단구에 입지해 있다는 지형적 입지특성은 해동지도와 같은 고지도와, 조선총독부 1918년에 발행한 근세한국 오만분지일 지형도와 같은 근세지형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1:50,000지형도 등 현대적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지도 1).¹²⁰⁾ 택리지의 저자 이증환이 언급한 바와 같이 기근이 발생하지 않고 전란이 염려가 없는 삼재팔난불입의 십승지지 중한 곳으로 되어있다.¹²¹⁾

암자들은 전반적으로 주위에 계류가 없고, 영은암을 제외하면 구룡지대에 위치해 있는 전형적인 중산간지형 입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각 암자는 마곡사를 중심으로 산태극을 형성하고 있다. 더욱이 마곡사 뒤쪽의 국사봉과 동쪽의 무성산이 동북쪽에서 방패역할을 하고 국사봉에서 발원한 마곡천, 구암소류지에서 내려오는 실개천 및 서쪽 나발봉과 활인봉에서 발원된 샘골천이 삼합수를 이루면서 수태극을 이루고 있다. 산지에 자리잡은 사찰이지만 표고가 150m 밖에 되지 않은 평지인데다가 안산이 약간 높게 자리하고 있어 조망은 좋지 못하다.

120) 공주시 마곡사, 2012, 마곡사지 pp. 54-57

121) 조명희외, 마곡사, 빛깔있는 책들 221, 서울 pp.35-55



지도 1. 마곡사의 동여도와 지형도

마곡사는 <태화산마곡사사적입안>과 같은 마곡사 사적에 일부 산내 암자의 기록이 보이나, 정확한 창건시기와 연혁을 확인 할수 없다. 아울러 운영 중인 암자의 전각이 대부분 현대에 와서 중건되었음을 고려한다면 근대 이후 전란과 한국 전쟁시기에 소실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곡사 소장 불화 중에는 이들 암자에서 조성 또는 봉안했음을 기록한 불화가 다수 전해지고 있어, 마곡사를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을 전개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마곡사는 충남 대표 본사로 위상에 걸맞게 여러 말사와 함께 산내에 크고 작은 암자가 있다. 이중 은적암, 백련암, 영은암, 대원암, 토굴음은 마곡사 경내에서 조금 벗어난 불모비림 부근의 능선에 위치해 있다. 이외에 청련암, 부용암, 북가섭암은 마곡사 주변에서 조금 떨어진 마곡초등학교 뒤편과 유구상원골에 위치해 있다. 이는 말사가 아닌 암자를 외딴곳에 둘 정도로 마곡사의 사세가 보통이 아님을 확인 할 수 있다(표 4).¹²²⁾

(2) 산록입지형 사찰

① 대흥사

대흥사는 신라 진흥왕 5년 아도화상이 창건한 대형사찰이다. <대둔사지>에 의하면 고려 후기의 천태종 소속 고승인 진정국사 천책이 대둔사의 주석으로 있었다고 한다. 고려시대의 대흥사와 관련한 자료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며, 이는 당시 대흥사가 왕실이나 불교계에서 크게 중시하던 사찰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대흥사의 위상이 크게 부각된 시점은 서산대사의 의발이 이곳 대흥사에 전해지고, 조정과 불교계에서 모두 대흥사를 중시하기 시작했던 조선중기 이후부터이다. 한국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호국도량으로 위상을 간직하고 있는 이 대둔사는 일제강점시기에 시행된 30본말사법 제도아래 44개 의 사암을 관장하는 본사로 지정될 만큼 크게 번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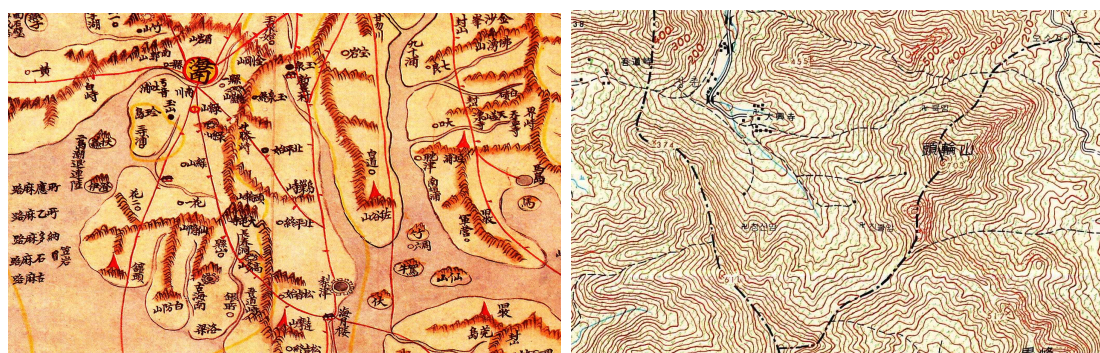
대흥사가 위치하고 있는 두륜산은 최남단의 지형적 특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해발 703m의 준령은 그 기세가 우선 웅장하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특이한 분지를 형성하고 있다. 선인들은 머나먼 곤륜산에서 뻗어 나온 산줄기가 백두산에 이르고, 다시 방향을 틀러 남쪽으로 내려와 해남 땅에서 마무리했다(지도2). 그래서 백두산의 두와 곤륜산의 룬자를 합해 두륜산으로 명하게 되었다. 군자가 바퀴룬자로 바뀐 것은 두륜산 연봉들이 바퀴처럼 휘돌았기 때문이다.

대흥사 암자들의 배치는 대흥사를 중심으로 하는 암자군과 북암을 중심으로 하는 암자군으로 나누어 생각해보면 배치구도는 큰절을 중심축으로 한 동일 배열상으로 나타내면서 창과 방

122) 한상길·홍대한, 2012, 한국명찰 시리즈 12: 태화산 마곡사, 활불교문화단, pp. 130-133

패의 형상을 띠고 있다. 즉 백화암, 표충사, 관음암 및 청신암을 잇는 사방신 세계형은 방패에 가까우며 북암을 중심으로 사방신 세계형은 창을 연상하게 한다. 이는 대흥사가 호국신앙의 본거지라는 상징적 의미를 암자를 통해 표출한 것이다.

대흥사는 근대 이전 대둔사와 대흥사로 불리다가 근대 이후 대흥사로 정착되었다. 두륜산의 빼어난 절경을 배경으로 자리한 이곳 대흥사는 한국불교사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량으로서 특히 임진왜란 이후 서산의 의발이 전해지면서 조선불교의 중심도량이 되었다. 암울했던 조선시대의 불교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존재는 한국불교의 오늘을 있게한 최대 원동력이 되었다.



지도 2. 대흥사의 동여도와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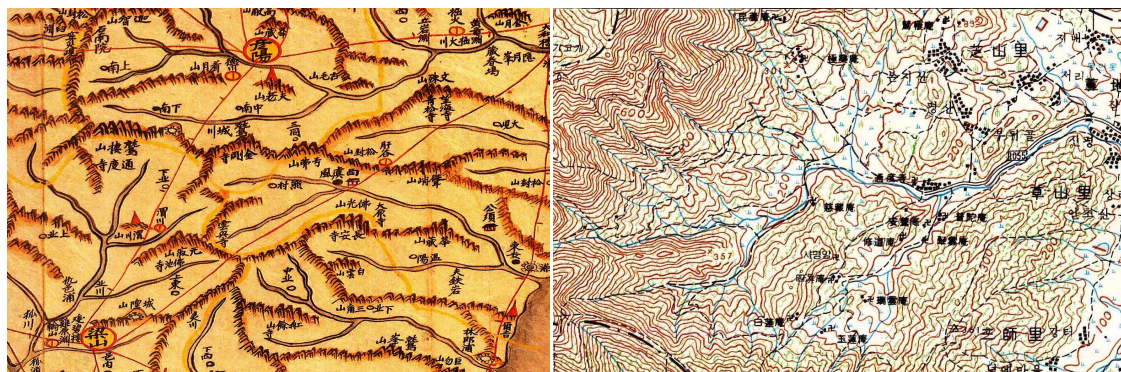
② 통도사

통도사는 삼보가운데 가장 으뜸인 불보를 간직하고 있어 불지종찰이라고 불리고 있다.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금강계단에 봉안하고 있기 때문에 통도사는 대웅전에 불상이 없는 사찰로 유명하다. 통도사를 포용하고 있는 영축산은 이름도 다양하다. 신선과 독수리가 많이 사는 산으로 석가모니 부처가 법화경을 설하셨던 산과 흡사하다 하여 자장율사가 명명했다고 전한다. 영취산 혹은 취서산이라고 불리어진 것은 신령스런 독수리가 살고 있다는 뜻에서 유래된다. 통도사는 선덕여왕 15년(646) 자장율사가 개창하였다. 현존하는 건물은 전부 임진왜란 이후에 건립된 것이나 대웅전은 보물 제144호로 지정되어있다.

가지산 도립공원 구역안에 있는 영축산은 정상에서부터 신불산 정상에 이르는 드넓은 역세 능선으로, 영축산 정상에서 신불산, 간월산으로 이어지는 산맥은 ‘영남의 알프스’라는 명칭을 얻을만하다. 낙동강과 동해를 끼고 하늘높이 치솟은 해발 1050미터의 영축산 남쪽기슭에 위치해 있다(지도 3). 산내에 산재해 있는 전각들, 탑, 석등, 이것들과 어우러져 있는 자연 속에서 불법을 꽃피운 위대한 고승들에 이르기까지 불연과 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불보사찰의 위상과 같이 부속암자들도 비교적 많은 편이다. 보타암등, 19개 암자들로 이루어지는 통도사 경내의 암자들은 영축산이 갖고 있는 불보세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면, 지장보살의 일정한 형태를 표현해주고 있다. 부속 암자들은 지장보살의 형상을 모방하여 배치되어 있다. 지장보살은 도리천에서 석가모니부처의 부촉을 받고 매일 새벽 항하사의 선정에 들어 중생의 갖가지 근기를 관찰하는 보살이다. 또한 부처가 없는 시대, 즉 석가모니 불은 이미 입멸하고 미륵불은 아직 도래하지 않는 시간에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지옥의 중생들을 교화하는 대비보살이다. 따라서 석가모니부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있는 불보사찰로서 독특한 사상과 상징성을 내포하여 지장보살상을 경내 전역에 펼쳐놓음으로서 인간세계의 높은 이상향을 추구하는 조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장보살과 암자배치 관계를 상징적인 면

에서 살펴보면 반야암, 축서암, 무량암, 보문암은 지장보살에서 머리부분에 해당되며 통도사는 지장보살이 왼손에 들고 있는 법륜에 해당한다. 또한 안양암, 보타암, 취운암, 수도암 등은 왼손에 해당되고 관음암은 지장보살의 왼쪽 어깨에 놓여 있다. 수인을 하고 있는 오른쪽 손은 금수암, 서촉암 및 자장암이 이를 대신하고 있고 사명암, 서운암, 백련암, 옥련암 등은 지장보살의 가부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지도 3. 통도사의 동여도와 지형도

③ 선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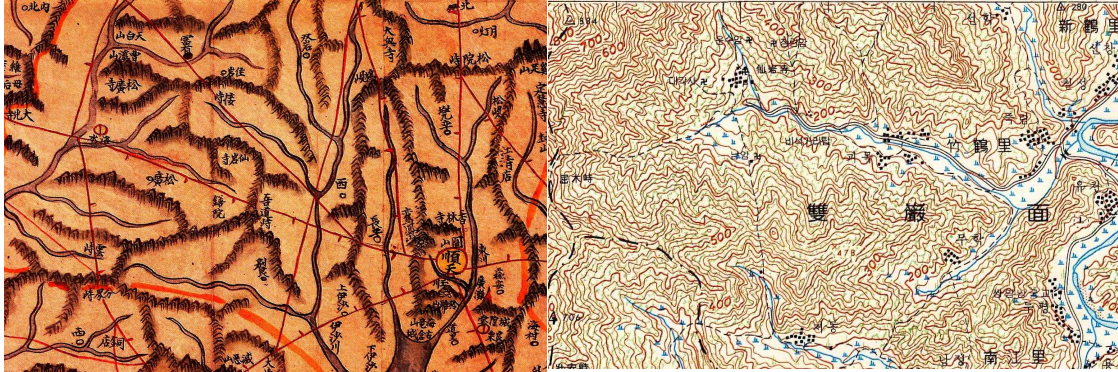
선암사는 북위 $34^{\circ}33'$ 동경 $127^{\circ}20'$ 에 위치하고 있으며 배산으로 조계산 884.3m이 북서쪽에 감싸고 있다. 지형도 상에서 선암사 부지는 조계산 좌우에 있는 계곡이 하단에서 만나 이룬 삼각주형의 평탄지이다. 승선교라는 아름다운 홍교가 입지한 곳에서 협곡을 이루며 남동쪽이 열려 여름에 남해의 한려수도에서 불어오는 남동계절풍을 받아들이며, 북서쪽에서 감싸고 있는 조계산은 겨울의 북서계절풍을 막아주고 있다. 또한 이 협곡은 첩첩산중에 집지한 선암사로의 진입이 매우 완만한 경사의 산길로 가능하도록 해주며, 이곳을 빠져 흐르는 아름다운 계곡류 위에 홍교인 승선교가 놓여 있어 선경으로의 진입과정을 말해주고 있다(지도 4).

선암사지는 남동향의 중심축이 강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이축은 협곡과 부지중심이 이루는 축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점에서 남동풍의 바람을 전체의 부지에 받아들일 수 있는 택지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기후 및 일조특성을 고려할 때 남동향의 건물이 가장 좋은 향을 이룬다. 이는 자연지형의 3대 요소인 물, 바람 그리고 일조의 필수요건을 갖추었다.

조계산의 남향의 표고 230-245m에 걸쳐 입지하고 있는 선암사는 부지전체가 약 9%의 완경사를 유지하고 있어,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점진적으로 오르는 지형변화에 따라 계단을 기단에 축조한 후 그 기단위에 사찰건물들이 입지하고 있다. 이처럼 선암사지는 자연적 지형에 최대한 순응하여 인공적 건물들이 건축되어 있는 사찰이다. 사찰의 좌우로 뻗어 내리고 있는 조계산 자락들은 부지 표고보다 약 130-540m높으나 부지 중심에서 700-800m 정도 떨어져 입지하고 있어 적당한 위용감을 형성해주며, 동에서 일출한 후 남을 거쳐 서로 일몰하여 일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선암사 부지의 수문현황은 조계산 자락에 의해 두 개의 유역이 좌우에 발달되어 남동단에서 합류한다. 우측은 계곡의 중심이 북에서 남으로 발달되었고, 왼쪽은 계류의 중심이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다. 선암사의 중심축이 남북축으로 볼 때 동북동쪽에서 수역이 형성되어 서남서쪽에서 합류하여 흘러나간다. ¹²³⁾

123) 김재식, 안영배, 1995, 전남송주군 조계산 선암사의 택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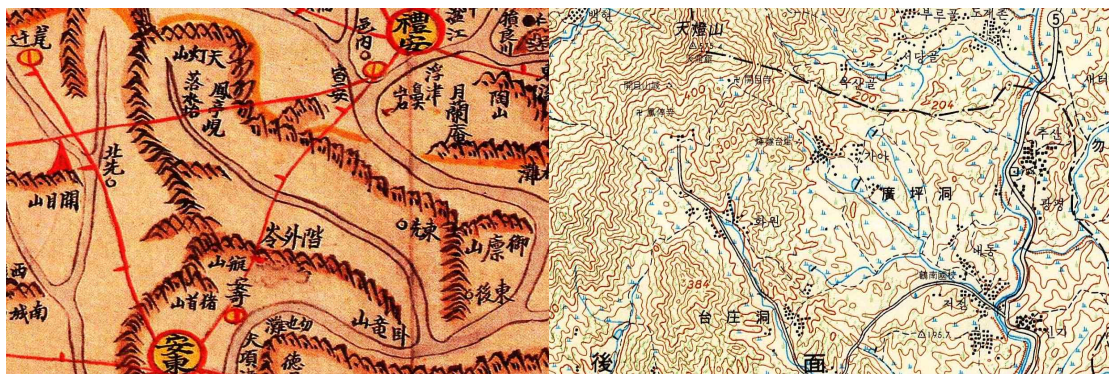
지도 4. 선암사의 동여도와 지형도

(3) 산지입지형 사찰

① 봉정사

봉정사는 천등산 575m의 중턱의 305m에 위치해 있다(지도 5). 대한불교 조계종 6교구 본사인 고운사(孤雲寺)의 말사이다. 672년(문무왕 12) 의상(義湘)대사의 제자인 능인이 창건하였다는 설이 전해진다. 한국전쟁으로 대부분의 자료들이 소실되어 창건 이후 사찰역사는 역사는 전하지 않는다. 1972년 봉정사 극락전을 해체하고 복원하는 공사를 진행할 때 상량문에서 고려시대 공민왕 12년인 1363년에 극락전을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발견되었다. 이런 사실이 발견되어 봉정사 극락전이 현존하는 최고의 목조건물로 인정받게 되었다.

경내에는 대웅전·극락전·고금당(古今堂)·화엄강당(華嚴講堂)·해회당(海會堂)·적연당(寂然堂)·객료(客寮)·양화루(兩化樓)·장경고(藏經庫)·동암(東菴:靈山菴)·서암(西菴:知照菴)·덕휘루(德輝樓) 등의 중요 건축물과 고려시대의 대표적 석탑인 3층석탑이 있다. 이 가운데 극락전은 국보 제15호, 대웅전은 국보 제311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서암에는 《독포도덕(獨抱道德)》이라는 선조 어필의 현판이 있고, 극락전·대웅전에는 《대장경》 판목이 보관되어 있다.



지도 5. 봉정사의 동여도와 지형도

② 법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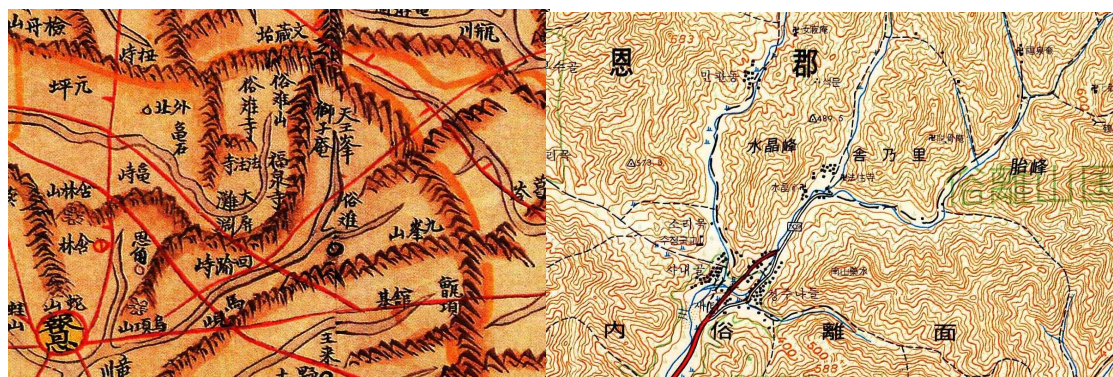
남사고의 십승기에 속리산이 해당되며, 이러한 지리적 상황을 가진 속리산에 위치한 법주사의 지형적 특징은 그 지세가 원형을 이루며, 동북방향에 치우쳐 법주사가 위치하는 서남방향만이 계곡의 지류가 흘러나가면서 생기는 통로를 갖춘 형세를 이루었다. 수세는 동쪽으로 계

호, pp. 81-87

곡이 흐르고 있고, 서쪽으로는 산호대의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쪽은 수정교 앞으로 계곡이 감싸고 돌며 다른 계곡의 지류와 합수되는 지점이다(지도 6).

속리산을 형성하고 있는 묘봉, 두루봉, 관음봉, 문수봉, 비로봉, 천왕봉, 등의 8개 봉우리와 문장대, 신선대, 입석대의 8개 대, 그리고 8개 돌문이 연꽃잎처럼 감싼 터에 법주사는 자리 잡고 있다. 속리산은 산 그자체만으로도 불국토의 형상을 취하고 있다. 산형을 보면 묘봉으로 시작하여 천왕봉에 이르는 병풍을 둘러놓은 경관을 나타낸다.

법주사의 경내에는 세 개의 골짜기로 분류된다. 묘봉으로부터 두루봉 사이의 서쪽 골짜기로 여기 속리산 중앙에 앉아있는 관음암을 중심으로 하는 일대의 암자들은 그 입지의 형태 속에서 원천적으로 내재되어있는 계율과의 관련성을 증명하고 있다. 법주사는 부처의 나라라는 암자들이 경내 구석구석 자리하면서 연화처럼 착좌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조화가 있다. 조선시대 창건한 여적암과 봉곡암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의 암자들은 모두 신라시대에 창건된 것들이다. 비록 당우들은 남아 중수를 하거나 중건을 했을망정 거의 변화가 없다. 왜 신라시대 8개의 암자를 조영했을까하는 의문은 법주사 경내에는 8개의 봉우리, 8개의 대, 8개의 석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서 속리산 전체가 바로 불국토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모든 지형지물을 8개씩으로 범주화 한 것 자체가 큰절 안에 있는 팔상전 8정도의 8이라는 불교적 수개념과 상통한다. 따라서 법주사의 사찰입지는 고유한 교리체계와 깊은 연관을 맺어왔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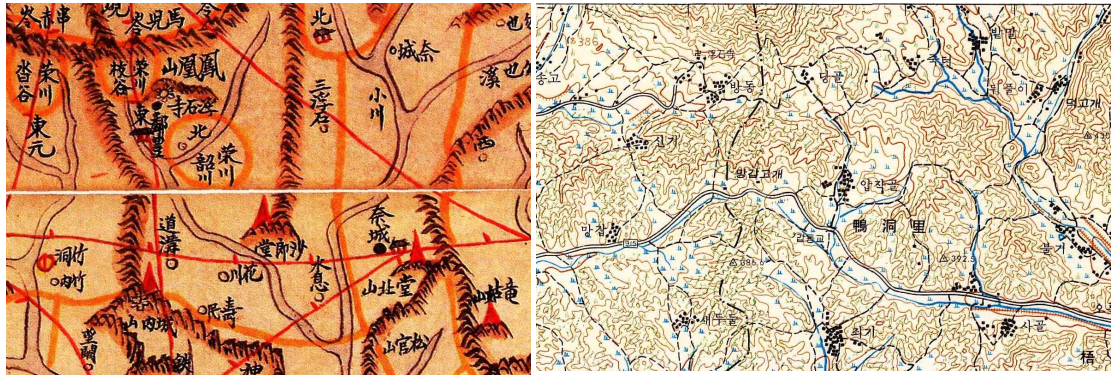
지도 6. 법주사의 동여도와 지형도

③ 부석사

부석사는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에 위치해 있으며, 신라의 의상대사가 중국 유학 후 수도처로 삼아 안주하다가 후일에 대사찰을 이룬 곳이다. 부석사의 연혁을 정리한 사적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비문, 중수기, 개연기 등이 전할뿐이다. 의상대사의 화엄선풍이 빚어낸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갈라지는 죽령의 봉황산 자락에 입지해 있다(지도 7). 이 고개는 불교전래 이전부터 선진문화 유입의 전입로로서 신라문화의 길목으로 지리적 중요관문이라 할 수 있다.

부석사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소백산맥의 장벽, 즉 그 당시 고구려와의 국경선이라는 점은 소백산맥의 요철을 불신의 가호에 의해 지키려는 주술적인 의미 외에도 군사적 측면의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찰이 전시에는 군사상의 중요한 거점이 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적 사실로서 잘 알려져 왔으며, 또는 이 지역이 삼국시대 이후 군사적거 요충지이었음은 현재에도 이주변의 산악일대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고대산역의 유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부석사의 대석단도 종교적 의미 외에 군사적 역할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무량

수전 앞에 전망에서 봉황산 전면 지역의 광활한 시계가 한눈에 들어움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산악지형에 위치하지만 심산유곡에 있는 사찰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지도 7. 부석사 지형도

표 4. 전통산사별 면적과 부속암자

사찰명	면적(m ²)	부속암자
대흥사	9,522,235	관음암 남미륵암 남암 도솔암 만일암(터) 백화암 북미륵암 상원암 심적암(터) 일지암 진불암 청신암
마곡사	7,181,740	대원암 백련암 부용암 북가섭암 영은암 은적암 청련암 토굴암
법주사	45,791,482	관음암 동암 복천암 상고암 상환암 수정암 여적암 중사자암 탈굴암
봉정사	3,392,787	영산암 지조암 중암
부석사	2,102,349	-
선암사	11,174,929	대각암 대승암 운수암 비로암 백련암
통도사	18,454,360	관음암 극락암 금수암 반야암 백련암 보문암 보타암 비로암 사명암 서운암 서촉암 수도암 안양암 옥련암 자장암 축서암 취운암

* 2010년 전통사찰 조사에 기초하여 수정·보완함.

사찰입지는 자연환경의 지형적 조건과 자연스런 조화를 이루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사찰 입지를 선정하는데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불교사찰은 이런 복합적 요인들이 최적인 장소에 입지하였다. 신라시대 불교적 사상, 풍수사상, 그 외 민간신앙 등의 영향을 받았어도 기본적으로 한국의 전통산사에 자연스럽게 지형과 융화되어 입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불교사상적 입지유형

한국 7개 전통산사의 불교사상적 특성이란 현재 조계종에 속한 사찰로 불교전래 이후의 창건된 당시의 불교사상적 맥락에 의한 사찰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하나의 종파에 의한 사상적 맥락보다는 역사적 흐름에 의한 시대마다 겪었던 불교사상이 혼용되어 한국의 독자적인 불교색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불교사상적 특성이 입지조건에 미친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데, 정확한 창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현대 조계종이라는 틀에 의한 통일된 특성보다는 기저에 깔려있는 초창기의 사상적 특성이 불교사찰 입지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접근을 시도

해 보았다.

불교사상에 대한 구분은 명확하게 사찰의 사상계 유형분류는 대한불교조계종으로 합병되기 이전 종파를 이루었던 미륵계열의 법상종과 관련 있어 법상계 사찰로 하였고, 화엄십찰에 속하여 화엄종과 깊은 연관 있어 화엄계로, 그리고 선종과 선교종도 종교적 사실을 근거로 분류하였고, 자장율사가 창건했거나 깊은 관련이 있는 사찰은 자장계로 구분하였다. 화엄계 사찰은 거의 석가모니불이 주존(관세음보살도 있음)을 이루고 있으며, 화엄경¹²⁴⁾ 근본-비로자나불-대적광전의 수평적 유형을 이룬다. 자장계는 자장율사 관련된 사찰로 석가모니불 주존(화엄계나 선종계와 유사)으로 삼고 있다. 또한 법상계 사찰은 주존은 아미타부처와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모시고 있다.

7개 전통산사는 조선시대 이전의 교종에 의한 화엄, 법상, 정토에 의한 구분과 선종의 밀교에 의한 구분해 보았다. 이는 교종의 화엄사상에 의한 부석사와 봉정사, 정토사상에 의한 법주사, 자장계에 의한 통도사, 마곡사 그리고 선교종에 의한 대흥사, 선암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초기의 불교사상적 접근의 시도는 쉽지 않으며, 시대적 변화에 따른 중층에 의한 복합적 불교사상이 사찰입지에 잔존하여 현재에 이른다. 이상과 같이 현재 불교사상적인 유형으로 입지유형을 구분하기 쉽지 않고, 각 사찰의 현재 주불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밝히고자한다.

표 5. 사찰별 사상의발전과 소의경전

사찰명	창건연대	중창연대	주요교리	사상 유형
대흥사	544 아도화상	17C 서산휴정	화엄계 선교 양통	선교계 (화엄계)
마곡사	643 자장율사	9C 보조제징 범일, 도선, 17C 각순	수행 교화 영역 분리에 따른 통불교 사방불 개념 (화엄학 의 종지 유지)	자장계
법주사	553 의신조사	8C 진표 17C 벽암각성	미륵신앙과 화엄신앙이 직각으로 직교 팔정도(八正道) 지형지물 및 건물을 8개로 범주화	법상계
봉정사	672 능인대덕	1363년 극락전 중수	대웅전과 극락전의 이원배치 극락전의 서쪽 배치로 아미타신앙의 서방정토표현	화엄계
부석사	676 의상대사	11C 원융	화엄종 종찰로서 범종각-법당-안양문-무령수전의 배치가 화엄경의 34품, 8회, 10지에 따른 정토신앙에 따라 주불전에 아미타여래 봉안	화엄계
선암사	527 아도화상	10C 의천 17C 호암약휴	강학(교학) 의 융성으로 가파른 지형에 위계성 강조 묘법연화경의 법화계 사찰로 쌍담 가람	법화계
통도사	646 자장율사	17C 사명	영축산은 석가모니가 법화경을 설한 곳 대승불교의 계율 중요성이 금강계단으로 표현 선원, 율원, 강원 이 모두 갖추어진 총림	자장계

124) 고타마 붓다가 완전한 깨달음을 증득한 직후에 '부처의 연꽃[佛華]'으로 상징되는 그 깨달음의 경지와 그것의 증득을 가능하게 하는 수행을 그대로 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렇게 믿어져 오고 있다.《화엄경》은 매우 웅대한 희곡적 구상과 유려한 서술로 법계(法界), 즉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보이는 우주, 즉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를 묘사하고 있다.'진리의 연꽃[法華]의 경전'이라는 뜻의 《법화경(法華經)》 즉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과 함께 대승경전의 쌍벽을 이루고 있다.

표 6. 사찰별 사상의발전과 소의경전

사찰명	주 불	사상유형	조선후기 종파	소의경전
대흥사	대웅보전(석가모니불)/ 대광명전/ 표충사 화엄계 선교양종의 전통사찰 (13대종사, 13강사)	선교계 (화엄계)	선종	금강경
마곡사	대광보전(비로자나불) 방향- 동쪽 /대웅보전(석가모니불)-삼세불상 교화 영역과 수행영역 분리에 따른 통불교 사방불 개념(화엄학의 종지 유지)	자장계	선종	금강경
법주사	대웅보전(석가모니불) 미륵대불 팔정도(八正道) 지형지물 및 건물을 8개로 범주화	법상계	교종(초기)	화엄경 (해밀심경)
봉정사	대웅전 석가모니불(응신불)주불: 수행,교육,제도 /극락전 아미타불(보신불): 삼신관의 비로자나불의 적광전이 없음.	화엄계	교종	화엄경
부석사	무량수전(아미타불) 화엄종 종찰이지만 정토신앙의 아미타불(1)이 주불 방향 - 동쪽	화엄계	교종	화엄경
선암사	대웅전(석가모니불) 선종 강학(교학)의 융성으로 가파른 지형에 위계성 강조 묘법연화경의 법화계 사찰로 쌍탑가람제	법화계	선종	금강경
통도사	대웅전(석가모니 사리 적멸보궁) 영축산은 석가모니가 법화경을 설한 곳 대승불교의 계율 중요성이 금강계단으로 표현 선원, 율원, 강원 이 모두 갖추어진 총림 선교양종의 대본산	자장계	선종	금강경

* 정병삼교수 분석을 기초로 수정·보완함.

(1) 화엄계 전통산사

부석사는 화엄사상을 선양하는 사찰들은 새로운 이념과 지역적 중대성에 따라 주로 비탈진 산중턱을 칸칸이 막아 높은 축대를 쌓아올려 위엄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마련된 마당마다 여러 건물들을 벌여 놓았다. 부석사는 화엄의 세계를 건축적으로 표현한 대표적 사찰이다. 사찰이 자리잡고 있는 터의 빼어남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이다. 안양루와 무량수전에 서 내려다보는 소백산 자락의 연봉들은 마치 부석사의 앞 정원처럼 펼쳐지는데 이 연봉들의 빼어난 풍광과 이풍광을 가능하게 해주는 돌 석축들의 조화가 바로 부석사가 표방하는 화엄의 세계,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가 되는 원용의 세계를 표현해준다 할 수 있다. 산의 경사진 곳을 다듬어 석축을 정교하게 쌓고 여기에 마련된 고안 위에 사찰건물들을 조성한 것은 화엄종 사찰의 공통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즉 경사진 공간에 석축을 조성한 후에 그 위에 사찰건물들을 배치했다.

부석사는 계획적으로 가파른 경사지에 세웠기 때문에 주요 전각들을 위해 단계적 높은 대지가 마련되었다. 그 결과 길고 높은 계단을 지상으로부터 안양문을 통해 무량수전까지 뻗어있다. 높은 돌기단은 인상적인 석벽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단계적인 높이는 정토세계로 인도하는 과정을 상징하고 있다.

봉정사는 공간상, 기록상 중심공간에 있다가 훼손된 건물의 흔적은 없다. 단지 극락전 정명에 고금당과 화엄강당을 잇는 7칸의 우화루와 대웅전 앞마당으로 올라오던 문이던 3칸의 진여문이 1969년 고금당 해체복원공사를 할 때 있었는데, 지금은 창고에 수장하고 있으며, 협소한 공간활용에 의한 불탑이 만세루위에 조그맣게 얹여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이와같이 시대

의 문화중층에 의해서 각 건물들의 여러번 보수공사로 본 모습이 변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지만 원초적 건물이 소멸되지는 않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봉정사는 지형특성상 초장기에 입지한 그 위치에 약간의 변형을 취한 조건을 이루고 있기에 불교사상적 배경을 토대로 형성하여 현재에 이른 사찰로 간주할 수 있다. 봉정사의 사찰은 중심축은 일주문, 진여문 만세루 대웅전을 주축으로 주불은 대웅전의 석가모니불(응신불)로 볼 수 있다.

부석사와 봉정사를 통하여 사찰입지조성에 의상이 화엄종을 이땅에 수용하던 초기에 화엄종의 주불인 비로자나불이 직접적 신앙대상으로 조성된 것 같지는 않다. 특히 화엄종이 대중의 기반을 가지고 중심 교단의 하나로 성장해 가는 8세기 경부터는 비로자나불을 조성하여 본전에 모시기 시작하였다. 이 이후부터 삼신관에 관한 사찰입지에 더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봉정사는 우리나라 사찰입지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사찰이다. 즉 봉정사는 삼신관에 기초하여 지형적 여건이 허락하지도 않는 화엄강당이 입지한 경우로 이는 화엄종의 정통도량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불완전한 삼신관의 보완적 측면에서 비로자나불의 깨달음의 내용을 통해 삼신의 일치를 꾀하여 불교사상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사찰 입지의 기본원리를 적용하여 입지한 사찰이라 할 수 있다.¹²⁵⁾ 대웅전은 후불벽을 치고 가운데에 석가모니불, 양쪽에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모시고 있다. 건물의 벽체가 아니라 건물 가운데에 이처럼 따로 벽을 마련하는 것은 조선 전기 건물에서나 더러 볼 수 있다. 얼마 전 이 후불벽에 걸려 있던 탕화를 보수하려고 걷어냈을 때 그 밑에서 벽화가 발견되어 떠들썩한 적이 있었다. 가로 4m가 넘는 이 거대한 벽화는 석가불이 영취산에서 관무량수경을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여겨진다. 테두리의 연화·당초문이나 꽃비가 내리는 표현, 고려시대의 변상도와 유사한 구도 등으로 보아 이 벽화는 고려시대의 변상도와 상당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어 보인다. 이 벽화가 훼손되어 1712년에 탕화를 새로 마련하였다는 기록 등으로 미루어, 이 벽화는 대웅전이 건축되었던 때에 그려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벽화는 조선 초기 벽화로 유일하게 남아 있던 전남 강진 무위사의 극락보전 아미타삼존불도보다 더 앞서는 조선 초기 벽화로 인정될 수 있다.

봉정사는 살아있는 한국 전통산사의 박물관으로서 선승들이 수행생활에 적합한 시대적 공간 흐름을 유도하였고, 부석사는 자연 지형의 경사지를 이용해 단을 형성하여 전통산사의 구성축을 이룬 독특한 형태를 나타낸다.

(2) 자장계 전통산사

마곡사는 암자 입지에 있어 수석이 성립되고 있음은 마곡사 경내가 산태극의 풍수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여기에 순응한 암자의 배치를 고려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두 수식으로 형성된 두 개 곡선의 모습은 비로자나부처의 배광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마곡사의 중심법당은 대광보전이다. 대광보전 내 주존은 비로자나부처다. 그런데 이 부처는 보전의 전각의 정면 중앙에 봉안되어 있지 않고, 왼쪽인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봉안되어 있다. 이는 중생이 비로자나불을 보기 위해 서쪽을 향해 서방정토의 극락세계를 바라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생들이 바라보는 비로자나부처의 뒤에는 암자들이 법륜처럼 둘러서 있는 것이다. 산태극에 동반하는 자연적인 입지선정과 더불어 교리적 의미를 상당히 가미했을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다.

마곡사는 암자들이 산태극 형상을 유지하면서 여기에 순응한 암자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암자들은 마곡사 서쪽에 배치되어있어 중생이 비로자나부처를 보기 위해 서쪽을 향해 서

125) 이효걸, 2000, 천등산 봉정사, 지식산업사, pp. 63-73

방정토의 극락세계를 바라보는 형상을 취하고 있다. 가섭존자의 이름을 딴 암자의 남북 두축의 배치는 불리한 지형을 극복한 마곡사의 사상적 배경을 중시한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¹²⁶⁾

통도사는 자장의 계율사상과 관련 있고, 이는 자장을 자장=계율이라는 등식으로만 이해한 나머지 그의 화엄사상에 관한 이해부분은 무시해 온 실정이다. 물론 신라 중대 이후에 종파불교가 성립되면서 화엄종이 관음, 아미타 신앙을 기반으로 한 의상에 의해 개창되고 그 주류를 이루게 됨에 따라 자장 단계가 이미 화엄사상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사실은 화석화되어 후대에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 탄압이후 변용되어 한 사찰 내에 작은 세 사찰들이 들어있는 분리와 통합이 조화를 이루면서 독특한 신앙체계를 이루면서 12개의 암자와 서로 부분과 전체가 중첩된 조화미를 나타낸다.

(3) 법상계 전통산사

법주사는 법상종계이면서도 화엄사상을 수용하여 이를 사찰조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암자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용화전에서 팔상전을 있는 직선이 복천암과 관음암으로 결정되어짐으로써 화엄세계와의 깊은 연관성을 표출시키고 있고, 동암이 법주사를 배향하듯 좌향하고 있으므로 화엄세계를 나타내고 있어 미륵신앙과 화엄사상을 동시에 수용하는 사상체계를 암자를 통해 발현하고 있다.¹²⁷⁾

법주사는 법상종계이면서도 화엄사상을 수용하여 이를 암자조영에 적극 반영하여 화엄세계와의 깊은 연관성을 표출시키고 있다.

조선조 이후에 미륵불상도 하나의 축이 형성됨으로써 서로 다른 신앙의 축을 형성하여 다양한 신앙이 사찰 내에 구조를 이루고 있다. 미륵신앙의 근본도량으로 법상종의 경전에 나타나고 있는 이상세계는 실재의 모습이 아닌 관념적이며 상징적인 모습으로 기술되고 있다. 그러나 미륵신앙의 그 이상세계는 더 이상 상징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대로 재현하면서 신앙적 특징인 용화세계를 이룩하려는 강력한 신념을 작은 암자조영에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방법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암시한다. 이 원리는 법상종의 미륵신앙 도장인 법주사에 나타난다.

(4) 선교계 전통산사

대흥사는 북쪽의 표충사에서 유교를 수용해 유불선일체를 보여주어, 모순되지만 통일되며 세속화된 형태를 나타낸다. 암자배치구성의 특징은 사방불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즉 표충사에서 관음암을 거쳐 백화암을 연결하는 형태와 북암에서 상원암을 거쳐 진불암에 이르는 형태는 곧 사방불의 개념을 도입한 배치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표충사를 중심으로 하는 암자군은 방패의 모양을 하고 있고, 북암을 중심으로 하는 암자군은 창(창)의 형태를 띠므로써 대흥사가 호국신앙도량이라는 사상적 체계를 암자의 공간구성에 도입한 하나의 실 예이다.

고려중기 이후에는 선종이 교종보다 크게 성행하여, 선을 닦는데 치중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무종파의 혼란에 처하기도 하였지만 불교계는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 거의 선종일색이 되었다. 이와같이 사찰입지는 불교사상의 원융불교(圓融佛敎), 화쟁불교(和諍佛敎)의 영향으로 예배의 장소가 되는 법당이 사찰 안에 여러 개 구성하고 있는 중층적인 특색이 나타난다. 이는 사상적 흐름에 따라 화엄사상에 의한 법당은 대적광전 비로사나불, 정토사상에 의한 법당은 무량

126) 배정관, 2005, 사찰내 암자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조계종사찰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7) 심재성, 2005, 사찰내 암자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11

수전(극락전, 미타번)의 아미타불, 미륵사상에 의한 법당은 미륵전이나 미륵불, 각각의 사상에 의한 전각과 주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사찰의 중심 사상을 구분해 볼 수 있다.

고려초기까지도 본존불을 모신 사찰의 중심건물을 금당이라 하였고, 중심건물의 명칭을 구체화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천태종 계통의 사찰의 금당은 석가모니불(현재)을 모신 대웅전, 화엄종 계통의 사찰은 연화장세계의 교주인 비로사나불을 본존불로 모신 건물은 대적광전(비로전), 법상종 계통의 사찰은 미륵불(미래)을 모신 미륵전, 정토계열의 사찰은 아미타불을 모신 극락전(미래)이 중심사찰이 되었다. 최근 조계종은 선종의 맥을 이어온 사찰이지만 선교후선의 형태를 띠고 있고, 사찰마다 조사당, 조사각, 영각 등에 조사의 상과 탱화를 모신 사찰의 경우는 선종의 영향이라고 한다. 따라서 7전통산사는 봉정사를 제외하고 모두 조사를 모시고 있다. 또한 전통산사의 중심건물은 대웅전으로 조사된바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전통산사는 과거의 삼국, 남북조, 고려, 조선, 근 현대를 거치면서 불교사상의 중층성이 혼용된 조계종이라는 이름의 선교후선의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교종의 화엄사상은 지장에 기본사상으로 마곡, 통도사에도 기저에 깔려있고, 화엄종의 중심인 부석, 봉정 그리고 법주사의 화엄사상과 정토사상에 혼용되어 있다. 선암사와 대흥사는 교선 양종의 통불교로서 교종의 화엄사상이 기저에 있고, 그 위에 선사상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이는 무파무종의 개별사찰의 시대를 거치면서 각 산사들은 독자적으로 한국의 지형적 특성에 따라 하나의 고정되고 통일된 형식으로 유형화 시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

3) 풍수지리적 입지유형



그림 1. 풍수의 명당 개념

풍수와 불교는 신라하대에 선종의 전래를 계기로 본격적인 교섭을 시작하였고, 나말여초에는 사회변혁을 이끄는 공간적 이데올로기로 기능하였으며, 고려시대를 걸쳐서는 왕권의 중앙집중 및 지방의 효율적인 통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념적 장치로 적극 활용하였다. 조선시대에 와서 정치지배권에서의 불교와 풍수의 교섭은 쇠퇴되고 민간부문에서만 미약하게 유지되었다.¹²⁸⁾ 사찰의 입지선정에 풍수가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신라말 선종이 수용될 무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에 유학하고 돌아온 구법승들의 영향과 도선계통의 영향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당나라에서 유행하던 중국풍수를 습득한 후 우리나라의 사찰택지에 적용한 유형이고, 후자는 전래의 풍수적 전통을 이어받은 후, 이에 밀교적인 사상 및 법용과 결합하여 비보사찰론유형으로 나타난다. 풍수에 의해 입지한 사찰은 명당에 터잡은 명당사찰과 결함이 있는 터를 보완하기 위하여 자리잡는 비보사찰로 구분해 볼 수 있다.¹²⁹⁾

사찰의 창건연대들이 대부분 통일신라 이전에 창건된 사찰들로 풍수적 논리가 성행하기 이전에 이미 사

128) 최원석, 2009, 한국에서 전개된 풍수와 불교의 교섭, 대한지리학회지 제44권 제1호 pp.77-88

129) 최원석, 2004, 사찰입지선정의 역사적 경향과 비보사찰-속리산 법주사를 중심으로, 한국불교문화연구 제4집, p.209

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찰들은 풍수적 논리가 공간상에 적용되어 터 선정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후 풍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미 당시 사찰입지 선정에는 풍수적 논리가 통용될 수 있는 고래의 전통적 지리 관념이나 입지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전통산사의 7개 사찰들은 재래의 자생적공간인식이 풍수논리에 결합되어 융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생 -명당 -비보에 의해 현재에 이른다.

(1) 대흥사

각안스님의 <대둔사지략기>에는 대흥사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전라도 해남현은 서울 승례문으로부터 1천 7리 거리가 되는 곳에 있다. 백제 때의 이름은 새금이고, 신라 때의 이름은 침명이며, 고려 때의 이름은 해남이다. 조선 태종대왕 때 해진이 라고 이름을 짓고 세종대왕 때 다시 해남이라 바뀌었으며, 지금은 당악으로 부르기도 한다. 북쪽으로는 영암까지 80리, 동쪽으로 강진까지 30리, 서쪽으로 진도까지 100리, 남쪽으로 제주까지 970리가 된다. 또 동쪽 병영까지는 60리, 서쪽수영까지도 60리 거리가 된다. 그리고 해남 해안문에서 남쪽으로 20리 되는 곳에 두륜산 대둔사가 있다. 웅장하게 지축을 휘감고 서 려있는데, 자리 잡은 터가 55리나 된다. 동쪽을 등지고 서쪽을 향하고 있으니 실로 하늘이 만 든 견고한 요새(要塞:금성)이다. 동쪽으로 서기령이 있고 남쪽에는 해임령이 있으며 서쪽에는 오도령이 있고 북쪽에는 구곡수가 흐른다. 구곡수란 한줄기 물이 아홉구비의 시내를 이룬 것 으로 구비마다 다리를 놓아 산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었다. 밖에서 보면 그안에 이렇게 큰 절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두륜과 가련의 두 봉우리가 주산이 되어 하늘을 떠받치면 서 방장산과 제주와 더불어 서로 백중을 겨루고 있다.

산안에는 두 개의 큰 골짜기가 있으니 왼쪽은 장춘동이고 오른쪽이 금강동이다. 그리고 이 두 골짜기가 한계곡과 합쳐지는 가운데 자리에 바로 대둔사가 있다. 이 터는 마치 배가 움직 여 나가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신라의 고승 아도화상이 점을 쳐서 정한 곳이라 한다.¹³⁰⁾

대흥사의 행주형은 배에는 많은 것을 싣는다. 어선에는 잡은 고기를, 상선에는 팔 물건을, 화물선에는 온갖 잡화를 가득 싣는다. 따라서 항해하는 배는 부귀영화를 나타낸다. 그러나 배 는 떠다니는 까닭에 언제나 위험이 뒤따른다. 예부터 행주형 길지의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금기를 지키고 특별한 시설을 해두었다.¹³¹⁾ 따라서 도선에 의해서 대흥사와 선암사는 비보사 찰로 논한바 있듯이 이러한 행주형의 길지의 형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비보개념을 적용 하였다고 추측된다(표 7).

(2) 마곡사

비기에 의하면, 이름높은 명당으로 십승지지의 하나로 유명하며, 특히 산곡을 흘러온 시냇 물이 산의 표고에 비해 수량이 많으며, 물의 흐름새가 태극형의 승지이다. 본 사찰은 산사이 지만 해발고도가 150m의 낮은 산의 평지에 입지하여 산곡에서 흘러내린 물길이 서쪽에서 시 작하여 동쪽으로 흘러와서는 가람이 있는 곳을 휘어감고 돌아 다시 남쪽으로 빠지고 있으며, 약간 높은 안산이 배산을 둘러다 볼 수 없이 막고 있어서 최상의 길지이다. 즉 오른쪽에는 군 왕대와 왼편의 구릉이 막고 있고, 도량의 북서쪽으로 흐르는 시내를 따라 진입로가 트여 있 다.

사찰이 입지해 있는 지대는 동서 250m, 남북이 400m로 8천여평에 가까운 분지이며, 흘러

130) 신대현, 2011, 한국명찰 시리즈 7: 두륜산 대흥사, 대한불교진흥원, pp.73-76

131) 김광언, 빛깔있는 책들 10 풍수지리, 대원사, pp.84-86

들어온 물길이 동서로 중앙을 관류하여 사찰영역을 남북으로 태극모양으로 나뉘어져 있다.

마곡사가 입지해 있는 곳은 구름가운데 반월이 떠 있는 이른바 ‘운중반월형(雲中半月形)’의 명당이다. 조산은 태화산이고 좌청룡은 무성산, 우백호는 활인봉이다.¹³²⁾

표 7. 한국 전통산사별 풍수국면

사찰명	산	배치	국면	비보
대흥사	두륜산	직교형 축, 계곡이 영역을 가름 도선국사(비보명당)	행주형 ¹³³⁾	비보
마곡사	태화산	직교형 축, 계곡이 영역을 가름, 연화부수형 입지	운중반월형	-
법주사	속리산	교차형 축, 계곡이 휘감음 속리산이 연화부수형	금계포란형 행주형	비보탑
봉정사	천등산	병렬형축, 두 계곡 사이에 위치함, 감싸안음, 교세명당	봉황포란형	비보탑
부석사	태백산	꺾인선형 축, 두 계곡 사이에 위치함 비로봉, 연화봉, 도솔산의 이름에 반영된 불교세계관	봉황포란형	-
선암사	조계산	중첩형 축, 계곡이 휘감음, 장군형 대좌, 탑가람제 도선국사(비보명당)	장군대좌형 ¹³⁴⁾	비보 연못
통도사	영축산	중첩형 직교축, 계곡이 휘감음	쌍용농주형	비보탑

(3) 법주사

법주사의 풍수적인 해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신라 24대 진흥왕 14년(553)에 의신조사가 인도에서 불법을 구하여 흰노새에 불경을 싣고 귀국하여 훌륭한 터가 있으며 있으면 절을 지어 불법을 흥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속리산을 지나는 중 노새가 현재의 법주사 터에 이르러 발걸음을 멈추고 빙빙돌며 울기에 이상하게 생각하고 주위의 산세를 둘러보니 산세도 좋고 도량도 넓어 절을 지을 만한 곳으로 판단되어, 절을 짓고 부처님의 법이 머물렀다는 뜻으로 법주사라 이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주위의 지형을 살피고 경관을 보는 것 자체가 풍수에서 말하는 형국을 살피기 위한 가장 초기의 형태이다. 또한 이중환의 <택지리>에서 속리산을 “백두산에서 태백산까지의 한줄기의 영으로 통한 까닭에 좌우에 딴 봉우리가 없다. 소백산 이하는 맥이 자주 끊어지는데 끊어져서 된 산은 속리산이 처음이다. 속리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연꽃의 모양을 나타낸 연화부수형 형국 또는 오성(화성: 산형이 화염같이 아주 뽕족한 것)으로 분류한다.

법주사의 좌향은 창건당시에는 산호대를 배산으로 하여 수정봉이 사찰의 주봉이 되어 동남향의 좌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이 고려를 거쳐 대웅보전이 건립되면서 관음봉을 주봉으로 하여 서남향의 좌향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좌향의 선택은 창건당시의 용화보전이 현재의 대웅보전의 자리에서는 가질 수 없는 산호대라는 배산을 배경으로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가능하며, 후에 대웅보전이 건립되고 대웅보전 방향으로 사찰이 중축되어 속리산의 산세와 계곡의 흐름에 의해 지세와 계류의 방향, 사찰의 중심축을 일치시키기 위해 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용화전 뒤의 산이 수정봉으로, 이는 금계형의 형국이며, 이수정이라는 이름은 이 산봉우리에서 수기를 붙여놓을 목적으로 이름하였다. 이는 남서쪽으로는 남산이 가까이 마주하고 있는

132) 공주시 마곡사, 2012, 마곡사지 pp. 83-89

133) 대흥사, 참조

134) 선암사, 빛깔있는 책들, 대원사

에 이는 화기가 진동하는 산으로 남산에 불길이 솟으면 그것이 법주사에 재앙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법주사 승려들이 수정이라는 이름을 붙여 화기에 대응할 수기를 복돋으려 한 것이다. 135)

또한 법주사는 수창봉과 관음봉을 잇는 주능선의 동쪽계곡에 있는 널찍한 평지에 자리잡고 있다. 수정봉 건너편 능선에 있는 암반에서 사역을 조망해보면 수창교에서부터 대웅보전 뒤쪽의 총지선원이 위치한 곳까지의 터는 거의 경사없이 평평하며 폭보다 길이가 긴 배와 같은 형상인 행주형국을 하고 있다. 이는 속리산의 많은 봉우리 가운데에서도 사찰영역역의 중축선에서 우뚝 솟아 있어 관음봉과 수정봉의 두 봉우리가 사찰배경을 이루는 주봉으로 볼 수 있다. 136)

이와같이 법주사의 입지는 창건에서부터 사상적 배경으로 불교 신앙뿐만 아니라 풍수와의 관계에서 사찰이 입지하는데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풍수의 행주형은 배에는 많은 것을 싣는다. 어선에는 잡은 고기를, 상선에는 팔 물건을, 화물선에는 온갖 잡화를 가득 싣는다. 따라서 항해하는 배는 부귀영화를 나타낸다. 그러나 배는 떠다니는 까닭에 언제나 위험이 뒤따른다. 예부터 행주형 길지의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금기를 지키고 특별한 시설을 해두었다. 따라서 법주사도 고려조의 국가적 비보사찰로 지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비보사찰의 국가적 관리대장이었던 비보기(裨補記)가 전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137)

(4) 봉정사

봉정사 명당 앞에서 물길 두 개가 합쳐지는데(合水) 이 합수처(合水處)가 봉정사의 수구(水口: 물길이 빠져 나가는 곳)가 된다. 수구가 명당 가까이에 있는 것은 좌청룡과 우백호가 명당 가까운 곳에서 서로 교차하면서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구가 잘 짜여진 안쪽에 훌륭한 명당이 형성되며, 좋은 기운이 잘 갈무리되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훌륭한 조건을 갖춘 터가 된다. 봉정사와 같이 좌우의 산이 서로 잘 교차하면서 에워싸고 있는 명당을 풍수에서는 교쇄명당(交鎖明堂)이라 한다. 교쇄명당은 양쪽의 산줄기가 서로 엇갈리게 막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풍수 고전 중의 하나인 <<인자수지(人子須知)>>라는 책에는 “못 물이 모이는 곳이 곧 명당이니 좌우가 엇갈려야 땅 기운을 제대로 갈무리할 수 있으므로 진실로 귀하게 된다”고 하여 매우 귀한 명당으로 본다. 이런 곳은 풍수에서 이상적인 터로 꼽는 ‘바람을 갈무리하는(藏風)’ 터이며, 산이 명당을 ‘여러 겹으로 에워싸는(環抱)’ 곳이 된다. 봉정사가 안온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교쇄명당의 조건을 갖추 수 있는 이유 중의 또 하나가 바로 외백호(外白虎)가 안산(案山)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봉정사는 내백호가 약한 편이다. 이 허약한 내백호를 보완해주면서 기운을 잘 갈무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산줄기가 바로 힘있고 당당한 외백호이다. 뿐만아니라 이 외백호는 봉정사의 오른쪽을 감싸면 흐르다가 봉정사 앞에 우뚝 솟아 안산이 되고 명당의 기운을 잘 갈무리해주고 있다. 138)

부석사와 봉정사는 지형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부석사 주차장에서 다리를 건너 안양루에 이르는 길과 봉정사 안내판에서 피수교를 지나 덕휘루에 이르는 길은 아주 닮았다. 부석사는 앞이 훤히 열려 있어 호쾌한 느낌이 들며, 봉정사는 트인 느낌이 적고 안온한 느낌이 드는 차이

135) 박원식, 1997, 속리산, 대원사 p.72

136) 최현각·김봉렬·소재구, 1994, 『156 빛깔있는 책들 - 법주사』, 대원사, p.45

137) 최원석, 2004, 사찰입지 선정의 역사적 경향과 비보사찰, 한국불교문화연구, 제4집, p.201-218

138) 문화원형백과, 한국의 풍수지리:봉정사

가 있을 뿐이다. 이처럼 봉정사는 혈의 모양으로 보았을 때 와혈(窩穴)에 해당되는 자리다. 특히 좌우 양손으로 혈을 움켜쥐듯이 산이 서로 모이는 곳으로 닫힌 와혈, 즉 장구와혈(藏口窩穴)의 터가 된다.¹³⁹⁾

(5) 부석사

부석사의 주산은 봉황산이다. 봉황산은 태백산에서 서남으로 1백여 리를 내려오면서 각화산과 백병산에 연해 있다. 봉황산은 태백산의 마지막 종착지에 해당되는 곳으로 가지와 줄기를 통해 뻗어 온 정기가 모인 장소가 부석사 자리이다. 주산이 되는 봉황산은 위엄을 갖추면서, 온화하고 포근함을 함께 갖고 있다. 이 주산에 자리잡아 생기가 가장 집중되는 곳인 혈처(穴處)에 자리잡은 건물은 무량수전이다. 무량수전의 혈 모양은 와혈(窩穴)이다. 와혈이란 손을 모았을 때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의 혈을 말한다. 흔히 소쿠리 명당이라고도 하며, 암자의 경우에는 제비집 모양으로 된 혈이 와혈에 해당된다. 이 와혈은 주로 산 중턱에 많으며 부석사 무량수전이 자리잡은 곳은 오목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는 무량수전이 잘 보이지 않는다.

와혈에는 두 종류가 있다. 닫힌 와혈인 장구와혈(藏口窩穴)과 열린 와혈인 장구와혈(張口窩穴)이 그것이다. 부석사는 열린 와혈, 즉 장구와혈(張口窩穴)에 속한다. 부석사와 비교될 수 있는 안동의 봉정사(鳳停寺)는 닫힌 와혈, 즉 장구와혈(藏口窩穴)에 해당된다. 쉽게 말해 봉정사가람이 자리잡은 땅 모양을 길게 늘이면 부석사가 되고, 부석사의 진입공간과 가람이 자리잡은 지형을 짧게 줄이면 봉정사가 된다.

봉정사의 경우 백호가 안산이 되기 때문에 경내에서 보았을 때 멀리 조산이 보이지 않고 가람을 백호와 청룡, 안산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다. 그러나 부석사의 경우 열린 와혈이기 때문에 안산이 낮게 자리하고 멀리 조산(朝山)의 연맥(連脈)들이 끊임없이 일망무제로 펼쳐져 있다. 편안한 느낌의 부석사 경내의 공간과는 달리 안양루에서 보이는 조산의 풍광은 광대하고 웅장하다. 이 무량수전 앞에서부터 당간지주가 서 있는 절 밖, 그 넓은 터전을 여러 층 단으로 닦으면서 그 마무리로 쌓아 놓은 긴 석축들이 각기 다른 각도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마도 먼 안산이 지니는 겹겹한 능선의 각도와 조화시키기 위해 풍수사상에서 계산된 계획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석축들의 짜임새는 신라나 고려 사람들이 지녔던 자연과 건물과의 조화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순리에 따른 결과로 볼수 있다. 부석사 터를 흔히 봉황포란형(鳳凰抱卵形)이라 한다. 부석사의 발치의 낮은 산들인 안산(案山)은 바로 봉황의 알에 해당된다(표 7).

(6) 선암사

선암사의 중창건도에는 선암사의 주변의 암자 및 산천을 화면안에 원형으로 배치하고 다음과 같은 풍수지리 측면의 택지 여건 분석이 기록되어 있다.

장군대좌와 옥녀봉을 안산으로 마주하고 왼쪽에는 범바위가 있으며 오른쪽에 신선바위가 있다. 아래에는 굴목치와 용마봉과 기치봉이 있는데 마시동, 무학동과 함께 가장 내백호이다. 범바위 곁에는 조계천과 장막과 구고치가 있는데 공양동과 선학동 및 채동에 이르기까지 내청룡이다. 도장 땀힌 듯한 중봉에는 일월석이 앉아있는 형국이다. 명당의 앞쪽에는 삼인봉이 있고, 왼쪽에는 장군석이 있으며, 오른쪽에는 안장석이 있다. 득수는 경득갑파로 양쪽에서 흘러

139) 문화원형백과, 한국의 풍수지리:봉정사

온 물이 동문에서 합수하니 산은 맑고 물은 고으며 봉우리는 겹겹이요 계류는 잔잔하니 거의 호남에서 제일일러라.

선암사 고지도 분석에 의한 입지특성은 부지의 북동쪽과 북서쪽에 깊은 계곡이 발달되어 양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부지를 감싸고돌아 부지의 동남쪽에서 합수하고 있다. 따라서 물을 얻는 데는 더할 나위없이 좋은 입지특성을 갖고 있으니 득수는 최적지요, 부지는 북서 북 북동에서 부는 바람을 막아주고 부지의 남동 남남서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잡아 모우는 형국이니 장풍의 최적지이다. 이처럼 선암사지는 득수의 최적지 일뿐만 아니라 장풍에도 가장 적합한 장군대좌형(將軍對坐形)의 지형과 지세를 갖춘 호남 제일의 명당이다(표 7).¹⁴⁰⁾

선암사는 도선국사가 전쟁을 종식시키고 삼한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비보사찰로 건립하였으며, 현재 삼성각 앞, 강원 옆, 성보박물관 옆, 사찰 입구 등 4곳에 연못이 남아있다. 선암사 연못은 대각국사 의천이 중창할 무렵에 5개 연못이 존재하였으나 한곳을 매립하여 식당건물을 지었다고 한다. 선암사 연못은 건물 근처 여러 곳에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고, 기가 머무르게 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소방시설이 없는 산속의 목조건물에 화재발생시 화재진압의 목적의 방화수 역할도 가능하였을 것이다. 선암사 연못은 비보연못의 일반적 기능인 기가 머무르게 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음양오행론의 수극화 논리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를 염원하는 마음과 함께 방화수로써 화재를 직접적으로 진압하여 화재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기위한 비보라 할 수 있다.¹⁴¹⁾

(7) 통도사

낙동정맥(洛東正脈) 정출맥상의 영취산 해발 1,081m에서 흘러내려온 지맥이 물을 만나 멈추는 지점에서 입지한 통도사는 장풍의 남향배치를 하고 있는 대명당이다. 통도사의 수구는 달혀있는 형국이며, 산줄기가 물줄기를 만나 멈추니, 음양이 배합되며 흥사나 충사, 규봉 등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조산의 조건에도 부합된다. 영취산의 정출맥을 이어받고 있어 그 기세가 강하므로 정신적인 공간 즉 사찰의 입지로 가장 적합하다. 성보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통도사전경도는 통도사형국도로 상징적 표현을 하고 있다. 북과 남은 음과 양에 비유되어 북용은 암컷, 남용은 수컷에 해당된다. 그리고 직류하는 물줄기의 수구막이는 여의주에 해당한다. 따라서 통도사는 암수의 용이 여의주를 희롱한다하여 쌍용농주형(雙龍弄珠形)이라한다.

동진의 광박이 쓴 금낭경에는 완이중축알용지복...필세후복(宛而中蓄曰龍之腹...必世後福), (구름의 중간에는 지기가 축적되는데 용의 배로 여기에 터를 잡으면 반드시 후세에 복을 누릴 것이다.) 이라는 내용이 있다. 바로 통도사가 북용인 암용의 배속에 입지하고 있기에 쌍룡이 희롱하다 잉태한 것이 오늘날의 통도사라 한다.¹⁴²⁾

풍수에서는 물의 작용 없이는 용이 혈을 맺을 수 없다고 하여 혈을 찾고자 할 때는 반드시 물을 먼저 보라는 금언이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명당수의 흐르는 형태에 따라서, 수구의 모양에 따라서도 길흉(吉凶)을 다르게 본다. 물의 흐름은 직선으로 흐르는 물, 반궁수로 흐르는 물, 급히 흐르는 물 등은 흉(凶)한 물로 본다. 이는 생기가 흩어져 머물 수 없기 때문에 훌륭한 터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길(吉)한 물의 흐름은 지현(之玄)자로 굽어 감돌아 흐르는 물, 궁수로 흐르는 물, 잔잔하게 흐르는 물 등이다. 이는 생기가 흩

140) 김재식, 안영배, 1995,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 11권6호 ,

141) 이진삼·조성제, 2011, 불교사찰에 적용된 비보풍수 사례연구, 한국사상사학, 제39집, pp.34-54

142) 김연호, 2008, 한국 전통지리 사상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97~99

어지지 않고 오래 머물 수 있어 좋은 터가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통도사의 경우 물이 명당 앞을 둥글게 감아 도는 궁수이면서 잔잔하게 흐르고 있어 아주 길한 물의 흐름이다.

수구의 모양은 좁고, 넓음을 보아 좁을수록 길한 수구로 본다. 수구가 좁고 화표나 복신, 나성 등의 수구사가 있으면 더욱 길한 수구로 보는데, 통도사의 수구는 전술한대로 복신으로 이루어진 수구사가 있어 길한 수구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풍수적 관점으로 살펴본 통도사의 양기(陽基)는 매우 훌륭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크고 우람한 규모의 건조물만을 위대한 것으로 보는 속인(俗人)들의 대물 숭배 관념에 편승해 최근에 산자락을 마구 깎아 이루어진 대형 불사(佛事)가 더 이상 없다는 전제를 두고 하는 판단이다.¹⁴³⁾

그러나 이후 통도사는 비보측면에서 오층석탑이 일영교 건너편 동산 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통도사가 미시적으로는 쌍용농주형인데 암용의 배 부위에 금강계단에 위치하고 있고, 오층석탑은 솟용의 두물머리에 자리하고 있다. 이 탑은 영산전 중앙 만세루 쪽에서 쳐다보면 만세루지붕으로 탑이 보인다. 오층석탑은 영산전과 서로 마주하고 있다. 솟용의 강한 기운으로 영산전을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통도사로 향하는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서 비보로 서탑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표7).¹⁴⁴⁾

이상과 같이 불교와 풍수지리와의 관계는 불교가 풍수지리에 영향을 미쳤고 풍수지리 또한 불교에 영향을 미쳐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로 발전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불교는 풍수의 확산에 기여하였고, 풍수는 사찰의 입지와 사찰터 택지방법에 영향을 주어 상호 상보적인 교섭양상을 보였다.

4. 결론 및 제언

한국 전통산사의 창건연대의 불확실성으로 현재 사찰위치가 창건당시의 사찰인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있고, 현재적 입지를 보고 입지조건을 논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전통산사는 지속적 맥을 연이어 온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동안 각종 재해로 중수, 중층, 복원을 거치면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 중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한국의 전통산사들의 입지조건은 자연 환경적, 불교 사상적, 풍수 지리적 요인에 대해서 살펴해보았다.

첫째, 전통산사의 자연 환경적 특성은 해발고도 100m이하의 마곡사, 100-300m사이에 대흥사, 통도사, 선암사이고, 300m이상인 봉정사, 법주사, 부석사순이다. 이는 해발고도의 높고 낮음과 사찰배치의 평지와 산록에 입지해 있으므로, 기존의 연구되었던 평지형, 마을형, 산지형이 유형에 기준으로는 맞지 않다. 대흥사의 경우 해발고도가 낮더라도 마을에서부터 두륜산의 사찰에 까지 이르는 길이 산문을 따라 이동하여 산사에 다다르기 때문에 산지사찰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법주사의 경우는 300미터가 넘는 해발고도에 입지해 있지만 배치 자체는 평지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전통산사라고 명명하는 것은 뒤에 산을 병풍으로 둘러싸고 입지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불교사상적 입지요인은 한국 전통 산사는 자장계 2, 화엄계 2, 법화계 1, 선교계 2로 구분 할 수 있다. 현재 전통산사는 창건 당시에는 각각의 사상에 기초하여 계율을 중시하였지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의 맥을 유지되어 온 것이 아니라 시대적, 사회적, 교리적 특성

143) 문화원형백과, 한국 풍수지리:통도사

144) 오영미, 2009, 영취산 통도사 풍수지리적 고찰,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46-62.

이 모두 중층적으로 내포하고 있어 선교 양종의 통불교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교리를 기초로 배우고 난 후에 선수행으로 불교를 접하는 선교후선(先敎後禪)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따라서 현재 전통산사는 현재 조계종에 속한 통불교적인 선교후선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전통산사의 풍수지리적 입지요인은 풍수사상이 유입되는 시기는 9세기 경으로 사찰의 창건연대를 기초로 설명한다면, 풍수지리설이 도입되기 이전에 사찰이 입지한 경우이기 때문에 창건설이 맞다면 한국적 자생풍수에 의해서 입지하였다고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풍수지리설이 도입된 시기나 그 이후에 입지하였다면, 다양한 요인으로 입지하여 우선적 명당에 입지한 경우와 인문적 비보사찰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각 전통산사의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한 역사지리적 시대별 소급법적 방법에 의한 입지조건의 다양한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참고문헌

-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 강형석, 1988, 「한국사찰건축에서의 진입공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공주시·마곡사·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2, 마곡사지
- 관아정 외, 1915, 『조선고적도보』
- 권상로, 1979, 『한국사찰전서 상』, 동국대학교출판부
- 권인곤, 2012, 전통사찰에 대한 풍수지리의 장풍효과 분석,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선, 1999, 「선암사의 입지선정배경과 배치특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욱, 2007, 『개정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 김병원, 2010, 토함산 불국사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대한 풍수지리적 고찰,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현·배병선·백도화, 1995, 『171 빛깔있는 책들 - 부석사』, 대원사
- 김봉렬, 2004, 『불교건축』, 솔출판사
- 김석환, 2001, 「한국 전통건축의 좋은 느낌 3 : 선암사」, 『대한건축사협회지 385권』
- 김승제, 1989, 부석사 창건에 미친 토속신앙과 불교와의 융합 및 문무왕의 호국신앙,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5(2), 59-67
- 김일림, 1994, 민간신앙과 불교사찰경관. 지리학논고, 12(-), 31-42
- 김일림, 1996, 한국불교사찰의 입지유형과 공간구성,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재식·안영배, 1995, 전남 승주군 조계산의 선암사의 택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1(6), 81-88
- 김종원, 2011, 사찰풍수를 통해 본 한국 전통사찰의 가람위치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진덕·김승제, 2001, 신앙구조를 통해본 사찰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보문사를 중심으로, 21(2) 465-468
- 김창언, 1986, 한국사찰 입지유형별 주불전 앞 중정공간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준, 1997,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효림
- 김형수, 2003, 사찰건축의 민간신앙적 요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형우·신대현, 2007, 『한국의 사찰』, 대한불교진흥원
- 대둔사지간행위원회, 1995, 대둔사지
- 대한불교조계종, 2011, 『한국불교사』, 조계종출판사
- 목정배, 1994, 『155 빛깔있는 책들 - 대흥사』, 대원사
- 목정배, 1995, 『한국문화와 불교』, 불교시대사
- 박보빈, 2010, 사찰 입지 특성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재락, 2009, 한국사찰의 배치와 입지에 대한 풍수지리적 분석,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해, 2014, 부석사 입지의 풍수환경과 좌향에 관한 연구, 동방학, 31(-), 385-416
- 박흥균, 2008, 「초기 화엄불교 산지가람 중 경사지에 건축된 사찰들의 건물배치디자인 전개의

- 시각적 유사성에 관한 연구 : 부석사, 화엄사, 해인사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정관, 2005, 사찰 내 암자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영훈·김대벽, 2000, 『(신영훈의 역사기행 ; 10) 송광사와 선암사』, 조선일보사
- 신영훈·김대벽, 1989, 『41 빛깔있는 책들 - 사원건축』, 대원사
- 신영훈, 1994, 『절로 가는 마음1~2권』, 책 만드는 집
- 심재성, 2005, 사찰내 암자의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상현, 2001, 한국 사찰의 입지에 나타난 불교적 사유체계, 순천향 산업기술연구소논문집, 7(2), 447-450
- 양윤석, 2011, 사찰입지 특성과 시각적 구조 분석,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영미, 2009, 영취산 통도사의 풍수지리적 고찰,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충련, 1998, 「범어사 가람배치의 변화 및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부석사, 화엄사, 해인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계복, 2010, 풍수지리사상과 사찰부동산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계표·천득염·최인선, 2000, 『236 빛깔있는 책들 - 선암사』, 대원사
- 이기영·김동현·정우택, 1991, 『110 빛깔있는 책들 - 통도사』, 대원사
- 이기우, 2008, 범주사 사찰림의 경관특성과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노, 1997, 신라사찰의 입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진삼·조성제, 2011, 불교사찰에 적용된 비보풍수 사례 연구, 한국사상사학, 39, 27-60
- 이현구, 2008, 마곡사의 풍수지리 입지연구, 대구한의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수현, 2004, 사찰의 입지선정과 풍수지리의 적용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준철, 1999, 범주사의 입지특성과 영역형성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명화·김봉건·이은희, 1998, 『221 빛깔있는 책들 - 마곡사』, 대원사
- 조성호·성동환, 2000, 신라말 구산선문 사찰의 입지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6(3), 53-81
- 진경돈·이강업, 1989, 부석사의 입지선정배경과 배치변화특성에 관한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 진경돈, 1988, 부석사의 입지선정배경과 배치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각·김봉렬·소재구, 『156 빛깔있는 책들 - 범주사』, 대원사, 1994
- 한국불교연구원, 1975, 『한국의 사찰 / 6』, 일지사
- 한동수·이해성, 1986, 통도사 영역의 형식과정과 구조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2), 15-27

주제발표 3

전통산사의 가람배치

이상해
성균관대 명예교수

전통산사의 가람배치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lsh-skku@hanmail.net)

이 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7개 ‘한국의 전통산사’인 선암사(전남 순천), 대흥사(전남 해남), 법주사(충북 보은), 마곡사(충남 공주), 통도사(경남 양산), 봉정사(경북 안동), 부석사(경북 영주)의 가람배치에 관해 살펴 본 것이다.¹⁴⁵⁾ 이 글에서는 불교사원의 가람배치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소략하게 살펴본 후, 7개 전통산사의 가람배치의 특성과 문화유산적 가치를 조명하였다. 불교사원의 가람배치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원의 창건 동기, 전개 과정, 지형 조건, 소의경전(所依經典), 시대 상황 등 총체적인 시각에서 조명해야 하지만, 이 글에서는 각 사찰의 외연적 현상에 한정하여 살펴보았고, 좀 더 심층적인 고찰은 후일로 미루었다.

1. 불교사원의 형성 과정

불교사원은 종교적 동기에서 건립되어 표현된 소산이다. 불교사원을 뜻하는 동아시아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가람(伽藍)’은 산스크리트어(梵語) Saṃghārāma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 불교가 중국에 유입된 후 Saṃghārāma는 음역(音譯)하여 승가라마(僧伽羅摩, 僧伽藍摩)로 불렸다. ‘가람’은 승가라마의 약칭이다. Saṃghā는 승려들이 모여 있는 것을 뜻하고, ārama는 거주처를 뜻하는 것에 근거하여, 중국에서는 Saṃghārāma를 의역(意譯)하여 ‘중원(衆園)’ 또는 ‘승원(僧院, 僧園)’으로도 부르기 시작했다.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초창기 인도의 불교사원은 많은 불제자(佛弟子)들이 한 곳에 모여 불도(佛道)를 닦는 곳이었다. 『사미율의(沙彌律儀)』에도 절(寺)이란 출가 제자가 불법을 섬겨 받들어 가르침에 의거해 수행하는 곳, 곧 수행(修行)의 도량(道場)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초기의 인도 불교사원에는 불상을 모신 법당이 나 사리를 모신 탑은 없었고 거주하며 수행하는 승원만 있었다. 이는 석가모니가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自燈明), 법을 등불로 삼아(法燈明)” 열심히 정진하라고 한 것에서도 연유한다.

후세에 와서 가람은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의 증가로 인하여 변화를 가져온다. 첫 번째 변화는 불탑(佛塔)의 등장이다. 다음으로 불교사원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불상(佛像)의 등장과 함께 나타나는 불당(佛堂)의 건립이다. 이로서 불교사원은 승원으로서의 가람에 탑(塔)과 당(堂)을 갖춘 것을 칭하게 되었으며, 후대에 갈수록 상호간의 중요성이 바뀌게 된다. 따라서 불교사원의 가람배치란 곧 승원, 탑, 당의 배치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람을 이루는 승원, 탑, 당은 처음부터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배치된 것은 아니었고, 소의경전의 형성과 신앙 형식에 따라 일정한 질서를 반영하며 가람배치 형식이 생겨나게 된다.

145) 7개 ‘한국의 전통산사’는 현재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위한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다.

승원은 오늘날의 승방과 같은 곳으로서 승려들의 거주처인 동시에 수행처였다. 승방에는 단독의 승방과 집단의 승방이 있었다. 단독의 승방은 비하라(Vihāra, 毗訶羅, 精舍, 僧院)라 하는데 거주에 필요한 시설물을 갖춘 곳이고, 집단의 승방은 비하라에 비하여 규모가 큰 것으로서 승가라마라고 한다. 비하라는 일종의 석굴사원으로서 그 배치는 거의 모두 하나의 비교적 큰 방형 굴실(窟室)을 빙 둘러싸고 정면 입구를 제외한 좌.우벽과 뒷벽에 개착한 일부 작은 동굴들로 이루어졌다. 비하라굴은 소승불교의 수행방식의 하나인 좌선(坐禪)을 반영한다. 승도들은 이 고요하고 정밀(靜謐)한 동굴 속에 단정히 앉아 명상을 하며 개인의 해탈을 추구한다. 이런 작은 동굴은 그들이 선정(禪定)에 드는 곳이기도 하고, 또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비하라와는 별도로 불멸후 인도에는 Caitya(支提窟, 制多堂, 塔堂屈)가 많이 건설되었는데, 기원전 1, 2세기에 출현하였다. 차이트야는 석가가 입멸한 후 불상이 생기기 전 승속(僧俗)이 한 장소에 모여 예배도 하고 설법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든, 즉 불당과 강당을 합친 것과 같은 기능을 한 공간이다. 차이트야는 평면이 좁고 긴 말발굽형(馬蹄形)으로 형성되었다. 내부 공간은 앞뒤 두 부분으로 나뉘어 졌으며, 앞부분은 평면이 장방형인 예당(禮堂)이고, 뒷부분의 반원형 평면의 중심에는 탑과 비슷한 원형의 구조물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 주위는 통도를 형성하였다. 앞부분은 승도들이 모이기 위한 곳이고, 뒷부분은 승도들이 중심 구조물을 요잡(繞匝, 右繞, 回繞, 탑돌이, pradakshina, circumambulation)하며 예배의식을 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굴 안의 좌우와 원형 구조물 뒤에는 돌로 된 열주가 둘러있고, 뒷 부분의 굴 천정은 반굴룡으로 개착(開鑿)되어 있다. 차이트야의 중심을 이루는 구조물은 탑과 닮았으나 탑은 아니고, 또 불전을 닮았으나 불전도 아니다. 즉 차이트야는 불사리를 봉안하지 않은 탑, 불상을 모시지 않은 불전과 같다.

불교사원의 탑은 석가모니의 무덤에서 비롯되었다. 석가모니가 입멸한 후 그의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 묘탑(墓塔)을 세운 것이 탑의 효시가 된다. 탑은 산스크리트어로 Stūpa, 팔리어로 Thūpa라고 한다. 경전에 의하면 석가가 입멸한 후 그의 사리를 8등분하여 여덟 나라에 탑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를 근본팔탑(根本八塔)이라고 한다. 이 때의 탑은 사찰이 아닌 모든 사람이 보고 다니는 길에 세워져 승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초기의 탑은 어떤 형식이었는지 알 수가 없고, 다만 승려의 간섭 없이 재가(在家) 신도들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졌다. 그 후 아쇼카왕(Asoka, 阿育王, 기원전 268-232년 재위)이 인도를 통일하면서 기원전 2-3세기에 전인도에 많은 탑을 세우게 되었다. 특히 그 중에서 산치(Sanchi)탑은 유명하다.

탑은 처음 불타의 묘탑으로 건립되었을 때는 독립된 시설물로 건립되었으나 시대가 지남에 따라 그 의미와 형식도 변하게 되어 탑 자체의 독립적인 성격은 약해지고 가람을 형성하는 요소의 하나가 된다. 산치탑의 형식은 각국의 탑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동아시아 한문화(漢文化)에서도 탑의 양식에 절대적인 요소가 되었다.

2. 우리나라 불교사원 가람배치의 전개

우리나라 가람의 배치 형식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에 전래되면서 중국에서 형성된 불교사원의 가람배치 형식을 수용하면서 발전되었다.

1) 삼국 시기

가) 고구려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된 공식적인 기록은 소수림왕 2년(372, 壬申)에 전진(前秦) 왕 부견(苻

堅)이 승려 순도(順道)와 함께 경전과 불상을 보내면서 부터다. 이는 고구려에 전래된 불교는 중국 북조계(北朝系)의 불교였음을 의미한다. 고구려는 왕실과 귀족세력에 의하여 불교를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후 374년에는 승려 아도(阿道)가 들어왔는데, 고구려는 이들을 위해 서울인 환도성에 초문사(肖門寺)와 이불란사(伊弗蘭寺)를 지었다. 그 후 광개토왕 2년(393)에는 평양에 아홉 개의 사찰(九寺)을 창건하였고, 문자왕 7년에는 금강사를 창건하였으며, 영류왕 때는 전국적으로 많은 사찰을 건립하게 된다. 불교의 도입과 함께 건립된 불교사원으로 고구려의 건축은 중국의 건축술을 수용하여 재래의 건축에서 한 단계 진전한 당시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아시아 건축의 보편성을 획득하게 된다.

고구려 때의 가람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없고, 발굴한 사지(寺址)를 통하여 그 배치형식을 어느 정도 짐작 할 수 있다. 이들 터는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중앙에 팔각형 평면을 한 목탑 자리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동.서.북쪽에 각각 금당지(金堂址)가 형성된 이른바 일탑삼금당(一塔三金堂)식 배치형식을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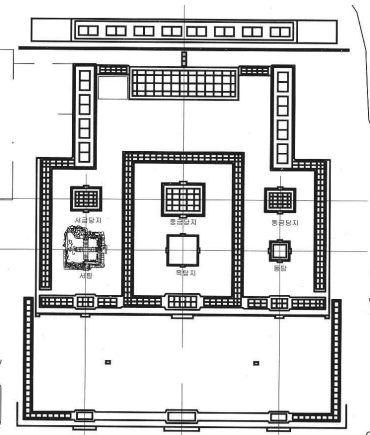
예로서, 1938년에서 1939년에 걸쳐 발굴된 평양 청암리의 금강사지는 중앙에 목탑지로 추정되는 팔각형 건물지가 있고, 그 동.서.북쪽에 금당지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나왔으며, 팔각전지 남쪽으로는 문지(門址)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나왔다. 황해도 봉산군 토성리 절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팔각 목탑터를 중심으로 한 동.서.북쪽에 금당지가 나왔다. 그 외에도 상오리 절터, 정릉사터에서도 중심 되는 전각의 구성은 마찬가지 배치형식이다.

나) 백제

문헌상으로 백제에 불교가 처음 전래된 것은 침류왕 원년(384) 중국 동진에서 온 호승(胡僧) 마라난타(摩羅難陀)에 의해서다. 호승이란 서역 또는 인도의 승려를 뜻한다. 백제는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한 그 이듬해인 385년에 한산주에 불사를 창건하였다고 하는데, 한산주시기 백제의 가람 유적은 현재 아무 것도 파악되지 않는다. 그 후 백제는 475년에는 웅진(지금의 공주)으로, 538년에는 사비(부여)로 천도하게 되는데, 이 때 불교가 융성하게 된다. 특히 성왕은 541년(19년) 양나라에 경전과 함께 공장(工匠), 화사(畫師)를 청하는데, 이 때 백제의 가람은 중국 양나라의 영향을 받아 조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의 가람은 군수리사지, 동남리사지, 정림사지, 금강사지, 서북사지, 미륵사지 등이 발굴되면서 그 배치형식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 기본적으로 백제가람은 남북방향 일직선상의 중심축에 남쪽에서 차례로 중문, 탑, 금당, 강당을 배치하고 중문과 강당 좌우에 동서방향으로 각각 회랑을 배치하여 그것이 남북방향으로 꺾여 긴 장방형을 이루며 서로 연결되어 탑과 금당을 둘러싸도록 조영된 이른바 일탑일금당(一塔一金堂)식 가람배치 형식을 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남리 사지에서는 탑지가 발굴되지 않았고, 군수리사지에서는 강당 좌우에 같은 크기의 두 동의 건물이 배치되었으며, 서북사지에는 강당이 없었다.

이중에서도 미륵사는 백제를 대표하는 거대 가람이었다. 지금은 서탑과 터만 남아있는 미륵사는 백제가 부여로 도읍을 옮긴 후 왕권이 강화되던 무왕(재위기간 600-641) 때 건립되었는데, 최근에 이루어진 발굴조사로 그 규모와 배치형식이 밝혀졌다. 발굴조사 결과 미륵사는 중문.탑.금당을 남북 일직선상에 배치하였고, 회랑으로 중문에서 금당 뒤를 둘러싼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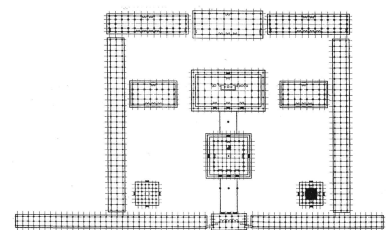
미륵사지

식을 기본으로 하여 이들 가람 셋을 동서로 병렬 배치한 삼원식(三院式) 배치형식을 하고 있다. 가운데 중원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 동원과 서원이 나란하게 놓였고, 동원과 서원을 감싸는 회랑이 전체 가람 후방으로 이어져 중앙 북쪽 뒤에 있는 규모가 큰 강당과 함께 또 하나의 원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배치형식은 삼국시기 다른 사원에서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형식이다. 이 삼원식 배치는 미륵사지 창건 설화에 나오는 미륵삼존을 각각 모시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륵사가 미륵신앙에 근거해서 창건된 사찰이라는 것은 금당지에서도 확인된다. 금당 바닥에는 각기 높이가 1m가 되는 장초석을 설치하여 지하공간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는 용을 상징하는 미륵이 모신 곳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현재 절터에는 서쪽 금당지 앞에 일부가 훼손되어 6층만 남은 석탑이 있고, 중원지와 서원지에도 각각 목탑지와 동탑지가 있었는데, 동탑은 최근에 9층으로 복원되었다.

다) 신라

신라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눌지왕(417-458) 때이다. 고구려로 부터 승려 묵호자(墨胡子)가 일선군(一善郡) 모례(毛禮)의 집에 와서 전도를 했다고 한다. 이 시기 고구려는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는데 그것은 427년의 일이다. 그 후 소지왕(479-500) 때에 고구려로 부터 아도(阿道)가 세 명의 승려와 함께 다시 일선군 모례의 집에 찾아와 머물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신라에 전래된 당시의 불교는 북조 계열의 불교일 가능성이 크며, 또 개인적 또는 지역적 성격의 불교가 신라에 먼저 전래되었다. 이는 고구려나 백제가 처음 받아들인 불교는 공적이며 중앙적인 것과 대조를 이룬다. 불교가 개인적, 지방적 차원에서 신라에 전래되었을 때는 신앙의 차원에서 불교가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아직 격식을 갖춘 가람은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당시 신라에 들어온 불교는 중앙의 귀족 세력에 의하여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법흥왕에 의하여 527년(법흥왕 14)에 불교가 공인되면서 신라의 불교도 중앙적이며 공적인 성격을 띠며 기술과 재원을 바탕으로 한 가람이 조성되기 시작한다. 법흥왕은 흥륜사와 영흥사를 경주에 세웠으며, 이어서 삼국통일 전에는 황룡사, 기원사, 실제사, 삼랑사, 분황사 등이 건립되었다.

황룡사는 진흥왕 14년(553)에 궁궐로 창건되어 그것을 절로 고쳐 566년에 1차 완공되었고, 진흥왕 35년(574)에 절을 완전히 새로 조성하여 장육존불을 주조하고 진평왕 6년(584)에는 새로이 금당이 완공되었다. 그 후 선덕왕 14년(645)에 9층 목탑이 완공되어 2차 가람이 완성되었다. 그 후 황룡사는 고려 고종 25년(1238) 몽고 병란으로 소실되어 그 터만 지금에 이르고 있다.



황룡사 배치도

황룡사지는 최근에 발굴 조사되어 가람 규모와 배치의 변화가 세 번 있었음을 밝혀지게 되었다. 창건 당시의 1차 가람은 동서 약 181m, 남북 약 144m 규모에 중문과 남회랑. 동.서 회랑이 확인되었으며, 기본적으로 일탑일금당 형식을 따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건된 2차 가람은 645년 9층 목탑을 건립하면서 완공된 것으로서, 내부를 구획하던 회랑이 없어지고 중문을 창건 가람의 남쪽에 새로 설치하고 그 북쪽에 목탑, 중금당, 강당을 남북 일직선상에 배치하고 중금당의 동.서쪽에 동.서금당을 남향으로 배치한 일탑삼금당의 배치 형식을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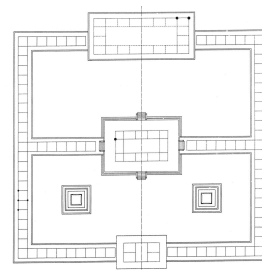
2차 가람의 가장 중심은 9층 목탑이다. 이 목탑은 당나라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자장이 황룡사에 9층탑을 세우면 주변 아홉 국가가 복속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세웠다고 한다. 문헌

에 의하면 노반 아래까지의 높이가 183척, 상륜부가 42척으로 전체 높이가 225척(약 80m)이 나 되는 거대한 목탑이다. 그 후 통일신라시기에 종루와 경루를 정방형으로 개조하고 동·서회랑을 개조하여 황룡사 가람 형식을 완성하게 되었다.

2) 통일신라 시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는 불교문화는 더욱 흥성하여 사천왕사, 망덕사, 감은사, 고선사, 불국사, 원원사, 감산사 등이 건립되었다. 이 시기 신라의 수도 경주에는 “절들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고 탑들은 기러기 떼 날듯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삼국사기 권 3, 흥법 제3)

감은사는 문무왕 때 건립하기 시작하여 신문왕 2년(682)에 완공되었는데, 중심 일직선상 축에 중문, 금당, 강당이 배치되었고, 강당 전면 좌·우에 삼층석탑이 각각 배치된 쌍탑일금당식 배치를 하고 있다. 감은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금당의 바닥구조이다. 익산 미륵사지 금당과 같이 감은사 금당 역시 바닥아래에 장초석을 세우고 지하공간을 만들어 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 용과 관련된 창건설화가 반영되어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금당지와 함께 감은사에서 가장 돋보이는 조형물은 석탑이다. 이 석탑은 신라의 가람이 통일후 쌍탑으로 된 가람을 형성하는 초창기의 탑으로서, 백제계열의 석탑과 다른 조형미를 이루고 있다. 이 감은사탑의 조형미가 가장 세련되게 완성된 형식으로 발전하여 신라계열의 전형적인 석탑을 이루게 되는 것이 경덕왕 10년(751)에 세워진 불국사 석가탑이다. 감은사 외에 쌍탑일금당식 가람배치는 망덕사지, 천군리사지, 사천왕사지, 불국사 등에도 나타난다.



감은사 배치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신라는 입당 유학승들에 의하여 새로운 불교 교리를 다양하게 수용한다. 정토사상이나 미륵신앙, 그리고 약사신앙과 관음신앙에 더하여 의상에 의해 정착된 화엄사상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이다. 이러한 불교교리의 다변화는 불교사원의 조영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고선사와 불국사는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초기의 대표적인 사찰이다.

고선사는 금당과 탑이 각각 독립된 원(院)에 회랑으로 둘러싸인 배치를 하고 있고, 불국사는 이러한 독립된 몇 개의 원이 조합하여 이루어진 실례를 보이는 대표적인 사찰이다. 불국사는 법화사상과 정토사상, 그리고 화엄사상과 관음사상이 결합하여 이러한 교리를 반영하는 원(院)들로 구성되어 있다. 경사진 지형을 이용하여 축대를 쌓은 후 한 쪽에는 법화사상을 표현하는 석가모니불을 모신 대웅전과 다보탑, 석가탑이 있는 영역을 구성하고, 그 서쪽에는 정토사상을 반영하는 극락전 영역이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대웅전 일곽 뒤 석축 위에는 화엄사상과 관음사상을 반영하는 비로전과 관음전이 각각 독립된 영역에 조성되어 있다.

화엄사상의 성행은 통일신라시기의 사찰이 종래의 도시에 집중적으로 있던 사찰을 산간으로 확산케 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동시에 산지의 지형조건에 맞는 가람배치를 구성하여 종전의 회랑 중심의 고대 사찰의 규범에서 탈피하는 가람구성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화엄계열의 대표적인 사찰이 영주 부석사, 합천 해인사, 구례 화엄사 등이다. 이와 시기를 같이 하여 당나라에 성행하던 선(禪) 사상을 익히고 돌아온 승려들은 신라 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고, 불교사원의 입지와 가람배치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8세기까지 주로 왕실이나 귀족의 지원 아래 이루어지던 사찰은 왕실이나 귀족층에 연연하지 않은 선승들에 의하여 도회지에 멀리 떨어진 산간에 지방 호족들의 뒷받침을 받으며 실질적인 종교의식에 필요한 사찰을 조영해 나갔다. 이 시기에 건립된 사찰은 회랑으로 둘러싸인 좌우대칭의 엄격한 구성에서 벗어나 지형조건에 맞는 자유스러운 가람 구성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세워진 사찰로는 원주

거둔사, 양양 진전사, 강릉 굴산사, 강릉 무진사, 여주 고달사 등이 있다.

3) 고려 시기

고려시기에 들어 불교사원은 수도 개경을 중심으로 새롭게 많이 건립되었고, 동시에 전국적으로 지방에 건립된 사찰도 많다. 특히 지방에 건립된 사찰들은 그 지방의 사회·경제·문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하나의 도시적인 기능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사찰은 고대 사찰들과 달리 다양한 독립된 생활공간을 가진 여러 개의 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사찰에서는 종교의식과 승려들의 수행 도량의 기능 외에도 각종 물품의 생산과 소비활동이 이루어졌고, 또 신자들의 거주공간이 필요하였다. 전주 금산사, 원주 법천사 등은 이러한 거대한 사원 공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찰들이다.

고려 후기에 접어들어 고려사회는 무신들에 의하여 귀족사회는 해체되고 무신이 집권하게 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원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다. 무신집권에 의하여 불교계가 동요하자, 일부 교종계열의 사찰들은 무신세력에 반발하기도 하였고, 또 지방 산간에서는 새로운 종교운동이 일어났다. 세속화된 불교계를 혁신하고자 결사운동을 벌인 보조 지눌(知訥, 1158-1210)이 수선사(지금의 송광사)를 중심으로 일으킨 정혜결사(定慧結社), 요세(了世, 1163-1245)가 강진 백련사를 중심으로 일으킨 백련결사 등은 대표적인 이 시기의 새로운 종교운동이었다. 이러한 사찰은 불교 행사와는 다른 분위기의 가람의 공간을 구성하여 사찰건축의 공간 구성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케 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사찰들은 불규칙한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필요한 곳에 다리를 놓고 계곡물을 사찰의 한 부분이 되게 하여 자연을 주인으로 삼아 거기에 순응하는 공간구성을 하여갔다.

고려 말기에 접어들면서 고려말기의 불교계는 원(元)의 간섭기를 거치면서 침체하였고, 이 시기에 창건된 중요한 사찰은 거의 모두가 중앙 정치세력과 연관이 큰 곳이었다. 그 중의 대표적인 사찰로는 연탄 심원사, 안변 석왕사, 양주 회암사 등이 있다. 특히, 원나라의 간섭기에는 원의 영향을 받은 건축형식이 사원건축의 탑에도 나타났다. 개성 부근에 있던 경천사탑은 원나라 기술자가 직접 고려에 와서 새로운 형식으로 조영한 10층탑이고, 오대산 월정사탑, 마곡사 5층탑도 이때까지 보이지 않던 외래적인 조형 요소가 가미되어 조영되었다.

4) 조선 시기

조선시기에 들어 불교사찰은 조선사회가 유교를 국가의 지배이념으로 채택함에 따라 정책적으로 크게 제약을 받았다. 불교 종파는 통합을 당하였고, 승려의 사회적 신분은 크게 약화되었으며, 사찰의 재정적 기반은 크게 위축되었다. 기존에 11종이던 종파가 1406년 7종 242개 사찰로 축소되었고 1424년에는 선교 양종으로 통폐합되면서 36사로 줄어들었다. 고려시기 왕실의 자문 역할을 하던 왕사, 국사 제도 역시 폐지되었으며 승려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한 도첩제가 실시되었다. 더구나 승려들은 도성 출입이 제한되었고, 많은 승려들은 각종 노역을 담당하여야 했다. 따라서 이전까지 도시의 주요 경관을 이루던 불교사원은 그 수가 크게 줄어들어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어갔다. 반면, 산간에 위치한 사찰들은 제한된 여건 아래 그 명맥을 유지하다가 임진왜란 이후 일반 서민층과 부녀자들의 불교에 대한 신앙이 더 확산되고, 또 임진왜란 당시 승병들의 활약에 힘입어 불교사원은 17세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17세기 후반을 거쳐 18세기 전반기에 들어서면서 불교사원은 임진왜란으로 불에 탄 전각을 복구하면서 새로운 가람구성을 하게 된다. 이 시기가 되면 불국사, 통도사, 해인사, 화엄사,

금산사, 은해사 등 이전의 유명 사찰들이 다시 그 면모를 회복하거나 일신하기 시작하고, 또 깊은 산간에 있던 소규모 사찰들이 활발하게 재건되기 시작하며, 큰 강이나 해안에 인접한 사찰들이 신앙의 중심지로 부각되기 시작한다.

요약하면, 이 시기가 되면 종파에 의한 사원의 특징은 약화되는 반면, 가람을 형성하는 공간의 공통적인 특징을 형성하는데, 특히 대웅전 등 본전 건물의 앞마당이 가람의 중심공간을 형성하며 그 앞으로 누각이 조영되어 사찰의 출입과 경관구성을 위한 주요 전각이 되고, 또 마당 좌우에는 요사와 선방이 자리를 잡게 된다. 그리고 규모가 큰 사찰에서는 이러한 공간이 몇 개의 마당에 의하여 중첩되어 공간이 형성된다. 그리고 사찰을 형성하는 단위 건물은 내부공간이 예불과 집회를 위하여 확장되고 또 장식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시기에 한국의 전통 산사라고 정의할 수 있는 사찰의 가람배치 형식이 자리를 잡게 되고 정착된다.

3. ‘한국의 전통산사’의 가람배치

이 글에서 말하는 ‘한국의 전통산사’란 2013년 12월 12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문화유산으로서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 대상 7개 산사인 선암사, 대흥사, 법주사, 마곡사, 통도사, 봉정사, 부석사를 말한다. 한국의 전통산사 7개소는 약 1400년에 걸친 한국의 불교 역사 전반에 걸쳐 중요한 사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문화유산들이다. 모두 삼국시기에 창건되어 조선 중기를 거치면서 정착한 전형적인 산지사찰이자 중정형 가람배치를 한 사찰이다.

이들 7개 사찰은 조선시기를 거치며 정착한 한국 산사의 입지와 가람배치 등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준다. 산지에 위치한 각 사찰은 한국 불교의 중요한 거점으로 기능하였고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7개 사찰의 입지, 배치 형식, 건축 특성을 통해 한국 전통산사의 면모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각 사찰들의 연혁, 가람배치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⁴⁶⁾

1) 선암사(仙巖寺)

선암사는 약 20여 동의 건물과 4개의 암자로 구성되었다. 527년 아도화상(阿道和尚)이 개산(開山) 했다고 전하며, 신라 말 도선(道詵, 827-898)국사가 선암사로 재창하였다고 한다. 확실한 사적은 1092년 대각국사 의천이 2년간 이곳에 머무르면서 일대를 중창하였다는 기록이다. 그 후 임진왜란, 정유재란 등으로 인한 여러 차례의 화재와 중창, 중건 불사가 있었는데, 18세기 초 호암(湖巖, 1664-1738)의 활약으로 법당 8동, 전각 12동, 승방 16동 암자 15개소에 승려가 무려 350명이나 되는 대가람으로 성장하였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건물들은 1823년 화재 이후 중창된 건물들로 약 1세기전의 가람배치 및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다. 선암사는 진입공간, 중심공간, 생활공간이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중심축외에도 주변의 건물들로 형성된 여러 개 축이 형성되어 있다. 선암사는 대웅전 영역, 원통전 영역, 응진당 영역, 각황전 영역의 네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영역들은 모두 분리되어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하며, 축대로 쌓은 서로 다른 단 위에 배치됨으로써 상호간 경계가 분명하다. 선암사 가람배치의 특징은 약 2세기에 걸쳐 조성된 다(多) 영역적

146) 각 사찰들의 개요와 특징은 이코모스한국위원회,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 (2012)에서 인용하였다.

배치에 있으며, 이러한 배치는 마치 전통마을의 공간구성과 유사한 느낌을 준다. 여타 다른 사찰들에 비해 선암사의 승방 규모는 비교적 크며 중층의 ‘口’자 형태의 특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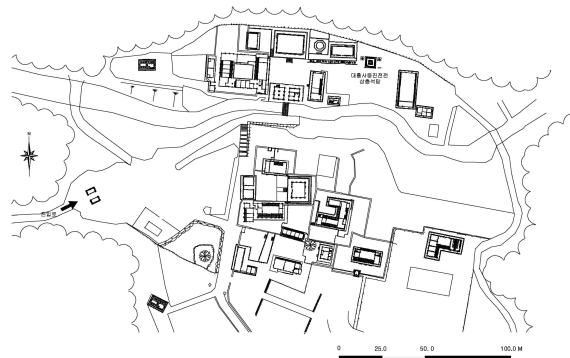
선암사 배치도

2) 대흥사(大興寺)

대흥사는 총 45여동의 건물들로 구성되었다. 544년 아도화상이 절을 창건했다는 설이 있고, 창건 이후 사찰의 연혁은 자세히 알 수 없다. 1665년(현종 6년) 심수가 대웅전을 중창했고, 1669년(현종 10년) 서산대사의 유품을 봉안하고 기리는 표충사를 건립했다. 1811년(순조 11년) 천불전이 불에 타자 1813년(순조 13년) 완호 윤우와 제성이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두륜산을 대둔산(大菴山)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대둔사(大菴寺)로도 불리었다.

대흥사는 넓은 산간 분지를 네 곳으로 나누어 대웅전 영역, 천불전 영역, 표충사 영역, 그리고 제일 뒤편의 대광명전 영역으로 형성되었다. 현재 사찰 경내에 포함된 표충사와 대광명전은 후대에 별도로 조성되어 별원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대흥사는 본래 계류를 중심으로 남, 북원 일대에 집중되어 도량이 조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북원에는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명부전, 응진전, 산신각, 침계루, 백설당 등이 위치하며, 남원에는 천불전을 중심으로 용화당, 봉향각, 가허루 등이 자리한다. 남원의 뒤쪽으로 멀리 떨어져 사명대사의 사당인 표충사와 대광명전 구역이 있다. 계곡이 남원과 북원을 가로지르며 영역을 구분하는 가람 배치가 특징적이다.

표충사는 서산대사의 위국 충정을 기리고 선풍이 대흥사에 뿌리내리게 한 은덕을 추모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1669년에 건립한 사당이다. 불교 사찰 내에서 유교 전통을 따라 사당을 꾸며 매년 제례와 추모 행사를 받드는 독특한 공간이다. 대광명전은 표충사 뒤편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 별원 성격의 건물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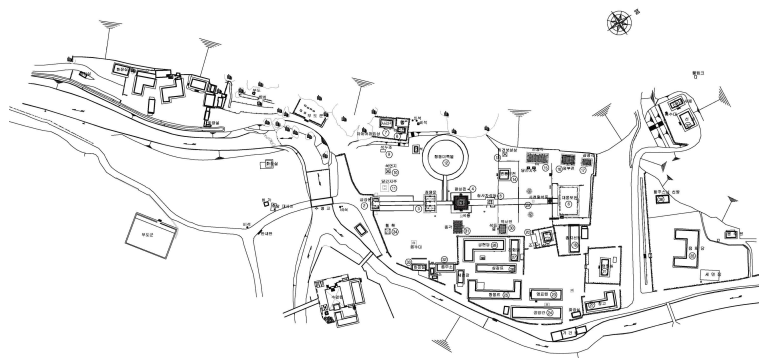


대흥사 배치도

3) 법주사(法住寺)

법주사는 약 30여 동의 건물과 10개의 암자로 이루어져 있다. 553년(신라 진흥왕 14) 의신이 창건한 곳으로 전한다. 776년(혜공왕 12) 영심 등이 중창하여 미륵신앙의 중심 도량이 됨으로써 상당한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법주사는 왕실의 비호를 받으면서 8차례 중수를 거쳐 60여 동의 건물과 70여 개의 암자를 거느린 큰 사찰이 되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전소된 것을 1624년(인조 2) 벽암 각성이 중창하였으며 이 후 여러 차례의 중건과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주사 가람배치는 미륵신앙과 화엄신앙을 보인다. 화엄신앙의 대웅전과 미륵신앙의 용화보전이 가람배치의 중심축으로 설정되었는데, 각각의 중심축은 직각으로 교차한다. 이 교차점에 5층탑인 팔상전이 위치한다. 2개 구성축은 각기 수정봉과 관음봉을 향하고 있어 지형과 교리적 해석이 일치하도록 배치한다. 이 터가 갖는 지형적 성격, 곧 수정, 관음의 두 봉우리와 그 아래의 평지는 가람 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법주사의 가람배치는 두 봉우리가 직교하는 지형에 따른 구성을 보인다. 법주사 팔상전은 현존하는 한국의 유일한 목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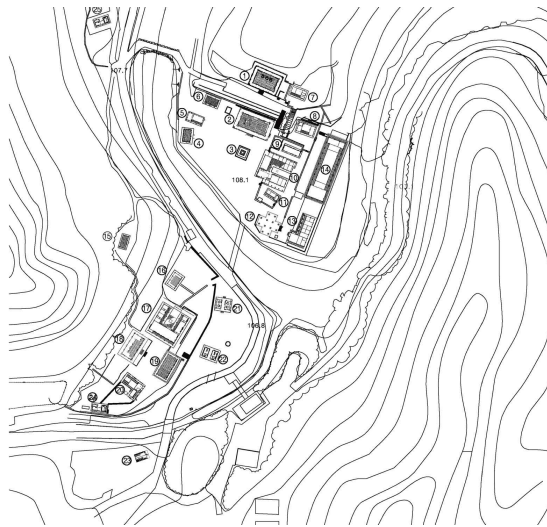
법주사 배치도

4) 마곡사(麻谷寺)

마곡사는 20여 동의 건물과 3개의 암자로 이루어져 있다. 640년 자장이 선덕여왕에게 하사 받은 밭 2백 결로 창건했다고 한다. 이곳은 물과 산의 형세가 태극형이라 하여 전란을 피할 수 있는 십승지지의 하나로 꼽힌다. 신라 말부터 약 200년 동안 폐사된 채 도둑 떼의 소굴이 되었다가 1172년(고려 명종 2년) 보조 국사 지눌이 제자 수우와 함께 중창하여 대가람을 이룩

했다. 당시의 건물은 지금의 배가 넘었으나, 1592년(조선 선조 25년) 임진왜란 때 대부분 소실했다. 그 뒤 60년 동안 다시 폐사되었다가 1651년(효종 2년) 각청이 대웅전과 영산전, 대적광전 등을 중수했다.

마곡사는 개울을 경계로 남북 두 개의 원(院)으로 구분된다. 영역 각각은 영산전과 대광보전을 주불전으로 한 두 영역이 합쳐지기에는 공간적으로 협소하다. 따라서 지형의 크기와 지세의 흐름에 맞추어 북원의 대광보전은 서남향으로, 남원의 영산전은 동남향으로 배치하여 두 영역이 직교하게끔 구성되었다. 이렇게 나뉜 두 영역을 연결하기 위해 그 사이에 해탈문과 천왕문의 좌향이 점진적으로 틀어지는 축을 형성하여 자연스럽게 접어드는 배치를 보여준다. 무리하게 단선축으로 진입하여 건물들을 비스듬하게 바라보지 않도록 진입축을 서서히 꺾어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유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곡사 배치도

북원의 대광보전은 길게 수평으로 깔려있으며 그 뒤쪽으로 중층인 대웅보전은 수직적 요소가 매우 강하게 대비를 이룬다. 같은 영역 내, 하나의 축을 공유하면서 두 건물의 수평성과 수직성이 이렇게 확연히 대비를 이루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사찰 마당의 오층석탑은 그 상륜부가 라마불교계 형식으로 조성되어 원의 영향을 받은 고려 말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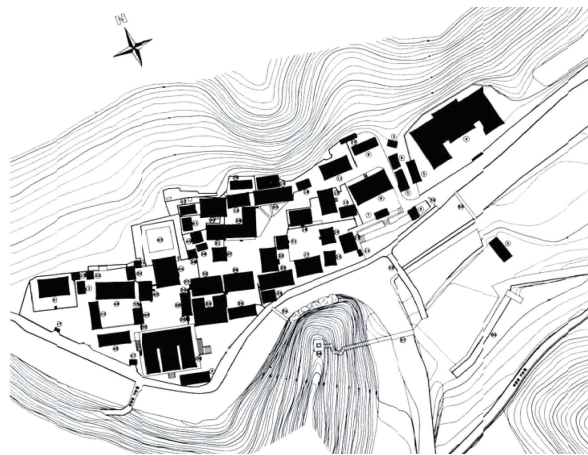
5) 통도사(通度寺)

통도사는 석가모니의 설법장소의 하나인 영취산의 이름을 따라 양산 영취산 아래에 창건되었는데, 영지신앙(靈地信仰)과 결합한 사찰이다. 648년 창건주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가져온 석가모니의 진신사리와 가사(袈裟) 등을 봉안한 사찰이다. 고려시기에 가람은 세 개의 영역(상로전)으로 형성되었으며 세 개의 영역을 잇는 하나의 큰 가람축을 주축으로 형성되어 있다. 각자 특성 있는 전각을 세 영역으로 나누는 삼로전제(상, 중, 하로전)를 통해 다양한 교리체계와 신앙의 대상들이 하나의 사찰 안에 공존하는 통불교적 성격을 나타낸다.

통도사는 59여동의 전각과 20개소의 암자로 이루어져 있다. 상로전에는 진신사리를 회절형 공간에 봉안하여 금강계단을 통한 ‘승화공간’을 구축한다. 특히, 상로전의 3면 합각을 통해 구축된 대웅전은 4개의 외부공간 (한면이 금강계단과 면함)과 면하며 정면성을 없애고, 4면을 정면으로 구축하는 형태적, 공간적 중심성으로 불교적 우주관 (만다라 도형을 통해 상징됨)을 표현한다. 이렇게 분절된 세 개의 영역은 각각 영축산의 각기 다른 봉우리를 향해 휘어져 있

으며, 세 영역을 잇는 긴 진입축 역시 휘어서 연결된다. 이로 인해 각각의 건물은 면이 아닌 입체로 서로 인식을 하게 되고, 입체 사이의 외부공간 역시 입체적 공간을 형성하는 건축적 특징을 지닌다. 종로전은 하로전과 달리 축선상에 세 개의 불전(비로자나불-미륵불-관음불)을 중첩의 방식으로 배치되었다. 하로전은 아미타불과 약사불을 모신 4동중정식의 영역으로, 각 개의 전각은 불국토, 서방정토, 동방유리정토를 상징하는 불 중심 정토영역으로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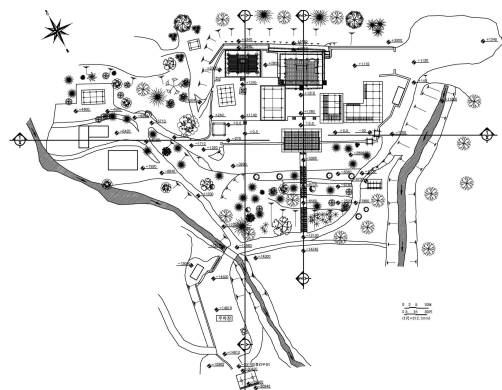
동서 주축에 직교하는 남북 부축이 여러 개 있는 것이 통도사의 특징이다. 다른 절과 마찬가지로 창건 이후 수없는 확충과 보수, 중수가 이루어졌지만 주축에 직교한 부축의 중요 건물인 대웅전, 대광명전, 영산전 등을 봤을 때 배치의 기본 틀은 이미 창건 당시에 잡혔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통도사 어느 구역에서도 대칭의 배치를 볼 수 없는 것이 큰 특징 중 하나이다.



통도사 배치도

6) 봉정사(鳳停寺)

봉정사는 672년(신라 문무왕 12년)에 능인대덕이 창건하였다고 한다. 이후 1363년 (고려 공민왕 12년)에 극락전의 옥개부를 중수했다는 기록이 전해지면서 봉정사의 극락전은 한국의 목조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로 꼽힌다. 극락전을 비롯하여 대웅전, 화엄강당, 고금당 등의 건축물이 잘 남아있으며 건물별로 시기에 따라 양식적 특징을 갖추고 있다.



봉정사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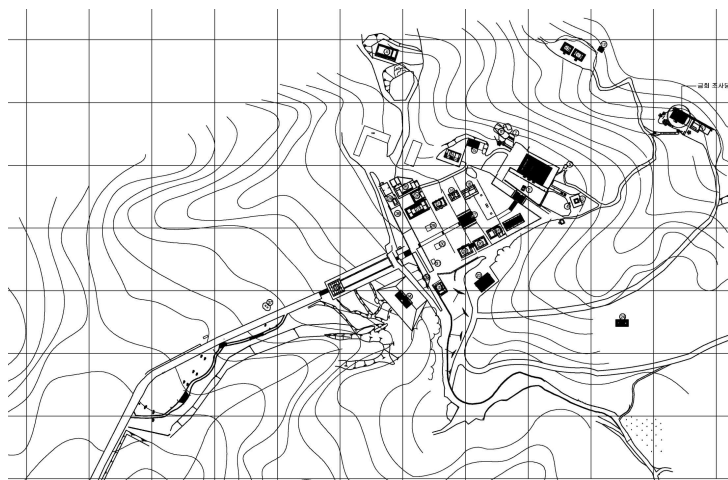
봉정사는 극락전 영역과 대웅전 영역이 병행으로 배치된 2원(院)으로 구성된 가람배치를 하

였다. 이러한 배치는 신라말에서 고려 중기에 걸쳐 나타나는 우리나라 불교사원의 가람배치 형식을 잘 보여준다. 봉정사에는 극락전을 비롯하여 대웅전, 화엄강당, 고금당 등의 건축물이 잘 남았다. 또한 규범적인 대웅전 공간과 유기적인 극락전 공간이 잘 조화하며, 대웅전과 마당 그리고 만세루를 넘어 자연으로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빼어나다.

7) 부석사(浮石寺)

부석사는 의상이 화엄종을 펼치기 위해서 창건한 사찰이다. 의상은 676년(신라 문무왕 16년)에 부석사를 창건하고 40일 동안 화엄을 설법함으로써 화엄종을 펼쳤다. 이후 11세기 초, 원응국사가 이 절을 크게 중창하였으며 다시 1372년(공민왕 21년) 원응국사가 퇴락한 건물을 보수하고 많은 당우를 건축하였다. 조선시기는 1580(선조 13년)년 사명 유정에 의해 중건이 이루어졌으며, 1746년(영조 22년)에 화재로 추송당, 만월당, 서별실, 만세루, 범종각 등이 소실되기도 하였다. 이후 수차례의 중건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부석사는 화엄종 교리와 신앙체계가 요구하는 공간구성이 건축적으로 잘 구현된 사찰이다. 의상의 뒤를 이어 그 법손 신림 대에 이르러 가람의 틀이 완성됐다. 주요 전각의 배치, 무량수전의 구조미, 교리와 연결된 지형의 해석 등은 한국건축의 빼어난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지형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뛰어난 구성과 안양루와 무량수전이 중첩된 장면은 한국건축의 백미로 꼽힌다.



부석사 배치도

4. 맺음말

중국 중심의 고대 동아시아는 후한대에 이르러 ‘불교’라는 새로운 정신세계와 신앙을 접하게 된다. 이 시기에 접한 불교는 기존의 자연관과 세계관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를 제시하였다. 불교 사찰은 기존의 습속을 넘어 개인의 초월과 구원을 제시하는 부처님의 세계로 표현되었다.

4세기에 중국에서 불교가 도입된 이후 한국의 불교사원은 도회지는 물론이고, 산악신앙, 영지신앙과 결합되면서 명산에도 건립되었다. 특히 조선시대를 거치며 한국의 불교사원은 산사 중심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유형 문화유산적 관점에서, 이들 산사의 특징 중의 하나는 산의 지형과 지세에 따라 건물 배치가 다양한 모습을 띄게 된다. 이러한 가람배치는 중국에서 불교와 함께 유입되었던 초기의 ‘중국식 가람배치’에서 벗어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중국식 가람배치란 사찰이 탑과 금당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여러 시설이 세워지는 좌우 대칭의 배치를 말한다. 이런 연유로 한국의 산사는 종래의 회랑이 있는 좌우대칭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지형과 하나가 되는 한국 특유의 가람배치 형식으로 전개된다.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준비하는 7개 한국 전통산사의 문화유산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한국의 전통산사는 산지라는 지형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한국식 가람배치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형성된 한국의 전통산사는 주변경관과 조화하는 내·외부 공간을 구성한다. 이들 전통산사는 한국 불교사원만이 가지는 선·교 융합의 통불교적 사상과 기능, 의식, 승려, 생활, 문화 등 종합적 사찰로써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국의 전통산사는 한국의 불교신앙이 거쳐 온 역사 과정을 보여줌과 동시에 한국 전통산사의 건축과 공간 형식의 증거를 잘 보여준다. 특히 유교가 치국이념이었던 조선시기에 불교가 존속한 행보들을 입지, 가람 배치, 전각의 기능 등을 통해 보여준다.

한국의 전통산사는 자연과 조화하는 유기적인 배치와 가람의 유형을 창출하였다. 인간이 자연환경과 상생, 조화하는 가람배치를 창출함으로써 자연경관에 한국 전통건축의 미를 합친 유산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 이코모스한국위원회,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 2012
-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개정판), 기문당, 2007
- 김보현·배병선·백도화, 『부석사』, 171 빛깔있는 책들, 대원사, 1995
- 김봉렬, 『불교건축』, 술출판사, 2004
- 김일림, 한국 불교사찰의 입지유형과 경관구성,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 목정배, 『대흥사』, 155 빛깔있는 책들, 대원사, 1994
- 신영훈, 『사원건축』, 41 빛깔있는 책들, 대원사, 1989
- 신영훈, 『송광사와 선암사』, 조선일보사, 2000
- 이계표·천득염·최인선, 『선암사』, 236 빛깔있는 책들, 대원사, 2000
- 이기영·김동현·정우택, 『통도사』, 110 빛깔있는 책들, 대원사, 1991
- 이희봉, 「인도불교유적답사기」, 법보신문, 2011. 12. ~ 2012. 12. 연재
- 조명화·김봉건·이은희, 『마곡사』, 221 빛깔있는 책들, 대원사, 1998
- 주남철, 『한국건축사』 (개정판),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6
- 최현각·김봉렬·소재구, 『법주사』, 156 빛깔있는 책들, 대원사, 1994
- 황수영, 『한국의 불교미술』, 동국대학교 역경원, 1978
- 허홍식, 『고려 불교 사상사』, 일조각, 1986
- 홍윤식, 『한국의 불교미술』, 대원정사 1987

주제발표 4

한국 전통산사의 조경과 세계유산적 가치

홍광표
동국대 교수

한국 전통산사의 조경과 세계유산적 가치

홍광표 동국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I. 서론

한국에 불교가 도입된 것은 1600여 년 전의 일이다. 불교의 도입은 종교적 차원에서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불교가 도입되면서 동반된 고급문화의 수입을 통해 우리 민족이 문화적으로 보다 성숙된 사회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문화적 측면에서의 의미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도입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불교문화는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 조선시대를 지나면서 꾸준히 한국인의 삶에 영향을 주었고 한국문화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¹⁴⁷⁾ 한국의 문화가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현재 국보로 지정된 315점 중 60%가 불교문화재이고 1,790점의 보물 가운데 65%가 불교문화재라는 점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¹⁴⁸⁾

한국의 사찰은 도입초기에 왕경에 주로 입지하였으나, 점차 입지를 심산유곡으로 옮기게 된다. 특히 나말여초에 도입된 선불교는 수행을 위한 최적의 입지로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심보다는 경관이 수려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뜸한 산간벽지를 선호하여 사찰의 입지가 도심으로부터 산지로 옮기는 작용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시대에 불교탄압이 이루어지면서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결과 한국의 유명사찰들은 대부분 깊은 산에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이것이 한국불교의 중요한 전통이 되었던 것이다.

불교가 도입되고 사찰이 조영되면서 건축과 더불어 조경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사찰조경은 사찰이라는 특별한 장소에 불교의 이상향적 세계를 장엄하고 불교적 상징성을 구체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특수한 경관을 만드는 일에 관여하였다. 사찰조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사찰의 경관은 여타의 장소에서 일반적인 조경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경관과는 차별화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불교의 교리와 신앙체계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3년 7개 전통산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동년 12월 17일 등재가 확정되었다. 이제부터는 한국의 전통산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하겠는데,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이 작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불교종단과 문화재청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자료를 축적하고, 충분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전통산사가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147) 조선시대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이념이 바탕이 되어 형성된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 저변에는 불교라는 종교적 영향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고 여전히 불교문화가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바탕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148)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재(지정·등록) 총괄현황 참조

본 연구는 한국전통산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전통산사가 어떤 측면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고, 진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작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현재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7개의 전통산사로 한정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는 조경요소를 중심으로 현황과 세계유산적 가치에 대해서 다루었다.

II. 7개 전통산사의 조경현황

1. 공간요소

한국의 전통산사는 풍수지리사상이 입지선정의 원리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背山臨水하고 藏風得水할 수 있는 명당에 터를 잡게 된다. 전통산사가 자리 잡은 이러한 명당은 뒷산으로부터 연결된 능선이 사역좌우를 에워싸고, 앞으로 낮은 산이 자리하여 땅의 기운을 간직할 수 있으며, 좌우능선을 따라 명당수가 흐르는 환경조건을 가진 곳이다. 산사가 자리를 잡은 이러한 입지는 산 아래 정주지와는 일정거리를 두게 되며, 지형적으로는 경사진 땅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조건으로 인해 전통산사는 멀고 경사진 진입과정을 거치게 되며, 건물을 짓고 마당과 같은 외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래의 지형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 결과 전통산사는 멀고 긴 진입로를 만들어 대중들이 다닐 수 있게 하였고, 계단을 놓아 중심공간으로 이행하게 하였으며, 석단을 쌓아서 적정규모의 단위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에 건물과 외부공간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산사의 환경조건은 한국사찰의 경관적 정체성을 만드는 작용인자가 되었으며, 다른 나라의 사찰과는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1) 진입로

산지사찰은 산 아랫마을¹⁴⁹⁾을 지나 山門이나 洞天에 해당되는 곳에서부터 일주문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먼 거리의 진입로를 두고 있다. 지금은 차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을 갖추고 있고, 포장도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만 오래전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폭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일주문으로부터 중심공간에 이르는 진입로에는 삼문을 짓고 수미산 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통과 의례적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렇게 산사에 가는 길은 중국이나 일본의 산사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우리와 같은 자연환경과는 다르며, 비교적 엄격하게 삼문형식을 도입한 전이과정은 한국의 산사와 차별화된다. 한국전통산사의 이러한 진입과정은 불교국가에서는 유일한 것으로 한국사찰이 가진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작용해왔다.

잠정등록된 7개 사찰은 하나같이 사하촌을 지나 일주문에 이르기까지의 진입로가 잘 발달되어 있고, 다시 일주문으로부터 중심공간에 이르는 통과 의례동선 또한 한국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날에는 사하촌에서부터 일주문 앞까지 상점들이 들어차있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었으나, 지금은 7개 사찰 모두 제대로 정비를 하여 산지사찰 본래의 청정환경을 되찾은 상태이다.

7개 사찰 대부분 일주문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긴 편이어서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절에 갈 수 있는데, 부석사와 봉정사는 다른 사찰에 비해서 진입로가 짧은 편이어서 다른 사찰에서 볼

149) 산 아랫마을은 사찰의 성장과 더불어 사찰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사하촌으로 발전하게 된다.

수 있는 자연환경과의 교호가 길지 않다. 물론 이 사찰들도 오래전에는 산기슭에서부터 먼 거리를 걸어야 절에 당도할 수 있었을 것이나 지금은 주차장을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진입과정 이 지난날과는 달라진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입로를 확폭하여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였고,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은 7개 사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더 나아가 진입로 주변을 지나치게 인공적으로 정비한 경우도 볼 수 있다. 이 경우 산길이 가지는 본래의 분위기를 해치고 있어 전통산사의 진정성을 해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주문을 지나 삼문을 통과하는 동선은 한국전통산사에서 나타나는 매우 독창적인 디자인이다. 이러한 삼문진입체계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디자인원칙으로 발전되지는 못하였다. 중국의 경우에는 산문을 지나 미륵불과 사천왕을 모신 사천왕문 정도가 진입로상에 건립되어 있으며, 일본은 산문을 지나 인왕을 모신 인왕문이 있는 정도이다.

삼문진입체계는 통도사와 부석사에서 가장 규범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도사는 본래 상로전, 중로전, 하로전으로 구성되는 삼단구성을 하고 있었고, 남북축이 각각 적멸보궁, 대광명전, 영산전으로 연결되는 남북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305년 불이문과 일주문이 건립되면서부터 진입축이 동서축으로 바뀌게 되며, 그 후 천왕문의 건립(1337년)으로 진입체계가 완성된다(홍광표, 1991:134). 이렇게 동서축선이 완성된 후에는 이 동서축에 맞춰서 여러 건물들을 짓게 되며,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일주문-천왕문-불이문으로 연결되는 동서축과 진입동선은 통도사의 창건당시 모습은 아닐지라도 고려시대이후 오랜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어서 통도사 진입체계의 진정성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경관요소가 된다. 그러나 만세루가 천왕문과 불이문 사이의 영산전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어 삼문으로부터 누각을 거쳐 중심공간으로 이행하는 시각적 규범성은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¹⁵⁰⁾

부석사의 경우에는 일주문으로부터 천왕문을 지나 회전문을 지나면서 부속전각들이 있는 공간으로 진입하게 되며, 다시 범종루와 안양루를 지나는 동선을 따라 중심공간인 무량수전 마당에 이르게 된다. 부석사의 일주문으로부터 안양루에 이르는 진입공간은 통도사에 비해서 경사가 심해 진입하면서 느끼는 시각적 효과가 크게 느껴진다.

표1. 일주문 안 진입동선 현황

사찰	진입로상의 건물	비고
법주사	일주문-금강문-천왕문	일주문은 산문의 성격도 지님
마곡사	일주문-해탈문-천왕문	일주문은 산문의 성격도 지님
부석사	일주문-천왕문-회전문-범종루-안양루	일주문은 산문의 성격도 지님
봉정사	일주문-만세루	일주문은 산문의 성격도 지님
통도사	산문-일주문-천왕문-불이문	만세루는 천왕문과 불이문 사이 영산전 맞은편에 위치함 산문은 근래에 새로 조성한 것임
선암사	산문-일주문-범종루-만세루	
대흥사	산문-천왕문-침계루	

150) 만세루의 위치가 영산전과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도 초창기 남북축의 진입체계를 보여주는 증거일 수도 있다.

한편, 7개의 대상사찰 가운데에서 진입로 상에 누문을 설치한 곳은 부석사, 봉정사, 통도사, 선암사, 대흥사로 각각 안양루, 만세루, 만세루, 만세루, 침계루라고 명명되어있다. 여기에서 부석사의 경우에는 일주문-천왕문-회전문을 지나 부속건물들이 좌우로 배치되어있는 중심축으로 동선을 내고 그 과정에 다시 범종루와 최말단부 제일 높은 무량수전 마당과 만나는 곳에 안양루를 배치하여 진입과정이 여러 개의 단위공간으로 분절되는 형식을 보인다. 또한, 단위공간 간의 지형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사도가 급한 계단을 설치한 것은 시각적으로 부각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마당

산사의 중심공간은 일반적으로 주불전, 승당, 선당, 누문 등에 의해 둘러싸인 마당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중심공간의 위요정도는 사찰이 입지한 지형적 특성이나 교리적 특성에 의해서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즉, 경사가 심한 곳에 입지한 사찰의 경우에는 전체 사찰의 공간이 여러 개의 단으로 구분됨은 물론 중심공간 역시 몇 개의 단으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단에 건물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위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나, 평지부에 입지한 사찰의 경우에는 건물이 조밀하게 건축되어지므로 위요도가 높게 나타난다.

7개 사찰은 모두 주불전 전면부에 마당이 조성되어 있어 한국전통산사의 규범적 배치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봉정사, 통도사, 선암사, 대흥사의 경우에는 마당의 폐쇄도가 높은 경우이고, 법주사, 마곡사, 부석사의 경우에는 건물이나 담장 등에 의한 막힘의 정도가 약해 개방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개방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환경이 가진 환경적 조건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인데, 이러한 마당의 시각적 특징은 한국의 전통산사에서 볼 수 있는 진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마당의 크기는 법주사, 마곡사의 경우 건물에 비해서 마당의 크기가 큰 편이고, 부석사, 봉정사, 통도사, 선암사, 대흥사의 경우에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정도의 크기이다. 형태는 법주사, 마곡사, 부석사의 경우는 장방형이고, 봉정사, 선암사, 대흥사의 경우는 정방형에 가깝고, 통도사는 여러 개의 정방형 마당이 연결되어 있다.

표2. 마당의 개방도.크기.형태

사찰	폐쇄도	크기	형태	비고
법주사	저	대	장방형	
마곡사	저	중	장방형	
부석사	저	중	장방형	
봉정사	고	소	정방형	
통도사	고	소	정방형	
선암사	고	소	정방형	
대흥사	고	소	정방형	

3) 석단

석단은 경사지를 평평한 공간으로 다듬는 과정에서 위에 있는 공간과 아래에 있는 공간 사이에 생기는 구조물이다. 우리나라 사찰의 석단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불국사와 부석사의 석단을 들 수 있다. 이 두 사찰의 석단은 재료의 사용이나, 축석기법에 있어서 판이하게

다른 면을 보이는데, 불국사의 석단이 긴 돌을 정교하게 다듬어 목가구식으로 짜 맞추고 그 사이에 크고 작은 돌들을 박아 넣는 방식으로 축조된 것과는 달리 부석사의 경우에는 덩어리가 큰 자연석의 면을 고르게 만들어 첩첩이 쌓아올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불국사의 경우에는 특히 돌로 된 첩차를 장식적 요소로 사용하고 있어 석단을 지극히 아름다운 경관요소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불국사의 석단을 여성적 아름다움에 비유하고, 부석사의 석단을 남성적 아름다움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밖에도 봉선사나 용주사의 석단과 같이 장대석을 사용해서 축조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왕실의 원찰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3. 석단의 조성위치와 단수 및 높이

사찰	조성위치	단수	쌓기방식	비고
법주사	-	-	-	-
마곡사	대광보전 후면	3	자연석 바른층쌓기	
	대웅보전 후면	2	자연석 바른층쌓기	
	영산전 전면	1	자연석 바른층쌓기	
	매화당 전면	1	자연석 바른층쌓기	
	명부전 전면	1	자연석 바른층쌓기	
	종각 하부	1	자연석 허튼층쌓기	근래 수리
부석사	무량수전 전면	2	자연석 허튼층쌓기	
	안양루-범종각 사이	2	자연석 허튼층쌓기	
	범종각 전면	1	자연석 허튼층쌓기	
	범종각-회전문 사이	1	자연석 허튼층쌓기	
	회전문 전면	2	자연석 허튼층쌓기	수리복원
	회전문-천왕문 사이	2	자연석 허튼층쌓기	
	천왕문 전면	1	자연석 허튼층쌓기	
봉정사	만세루 전면	3	막돌 허튼층쌓기	
	대웅보전 전면	2	막돌 허튼층쌓기	
	대웅보전 후면	1	막돌 허튼층쌓기	
	극락전 전면	2	장대석쌓기(기단)+막돌 허튼층쌓기 막돌허튼층쌓기	
	극락전 후면	1	막돌 허튼층쌓기	
통도사	금강계단 석단	1	자연석 허튼층쌓기	
선암사	일주문 전면	1	자연석 허튼층쌓기	
	범종루 전면	2	자연석 허튼층쌓기	
	범종루 후면	1	자연석 허튼층쌓기	
	만세루 전면	1	자연석 허튼층쌓기	
	대웅전 전면	1	장대석 쌓기	
	대웅전 후면	1	자연석 허튼층쌓기	
	불조전 전면	1	자연석 허튼층쌓기	
	불조전 후면	1	자연석 허튼층쌓기	
	원통전 전면	1	자연석 허튼층쌓기	
	원통전 후면	1	자연석 허튼층쌓기	
	응진전 전면	1	자연석 허튼층쌓기	
	응진전 후면	1	자연석 허튼층쌓기	
대흥사	-	-	-	-

7개 사찰 가운데에서 석단이 축조된 곳은 마곡사, 부석사, 봉정사, 선암사로 석단의 높이, 단수, 축석방식 등은 모두 다르다. 마곡사의 경우에는 주불전인 대웅보전과 대광보전 후면부와 부속전각의 전면부와 후면부 그리고 종각 하부에 석단을 두었는데, 그 지역에서 나는 자연석을 다듬어 질서있게 쌓아올렸다. 그러나 종각 하부 석단은 화각석 발파석을 사용하여 주변 경관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부석사의 경우는 지형차가 심하게 나는 까닭에 석단을 여러 곳에 축조하였으며, 석단의 높이도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축석방식은 중심공간으로 갈수록 큰 돌을 첩첩이 쌓아올리는 축석방식을 취하고 있다. 봉정사의 경우에는 주불전인 극락전과 대웅전 전면에 석단을 두어 마당을 조성하였는데, 석단의 높이는 비교적 낮은 편이고, 축석방식도 자연석을 질서 없이 자연스럽게 쌓아올렸다. 그러나 극락전 전면기단의 경우는 장대석으로 축석하였으며, 좌우측으로 연결되는 석단은 자연석으로 쌓아올렸다. 선암사의 경우에도 석단을 여러 곳에 두었으나 높이는 부석사와는 달리 낮은 편에 속하며, 축석방식은 자연석을 허튼층쌓기하였다. 이러한 석단의 위치와 높이, 단수잡기, 축석방식은 지형의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중국사찰의 석단과도 차이가 있고, 일본사찰의 석단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통도사의 경우에도 금강계단과 대웅전 마당 사이에 석단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석단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성곽의 형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통도사에 있었던 석단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였다. 지금은 돌쌓기를 새로 하여 지난날 있었던 흔적은 없어졌으나, 돌쌓기방법이 너무 투박하여 한국사찰에서 볼 수 있는 미려한 돌쌓기 기법을 살펴볼 수 없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4) 화계

화계는 건물의 터를 고르는 과정에서 형성된 독특한 형식으로 웅벽과 화단을 겸한 기능을 가진 구조물이다. 사찰의 화계는 건물과 마당, 마당과 마당, 마당과 자연, 건물과 자연을 연결하는 전이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궁궐이나 사대부가에 조성된 화계가 주 건물의 후면부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결국 사찰의 경우 화계는 주로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접선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으로, 이는 산지사찰의 공간이 점승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의 사찰에서는 봉선사 큰법당 후면부에 조성한 화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장대석이 아닌 주변에서 채취한 막돌을 허튼 층으로 쌓아올림으로써 장식성이 약한 화계를 만들었다. 그 화계에는 유실수와 약용초화류를 심어 스님들이 사중생활을 하면서 실용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잠정등록된 7개 사찰의 경우 화계가 나타나는 사찰은 법주사를 제외한 마곡사, 부석사, 봉정사, 선암사, 대흥사에서 모두 조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화계를 조성한 사찰은 부석사와 선암사인데, 부석사의 경우에는 급한 경사지를 건축공간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석단을 많이 도입하였고, 그 석단을 한 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여러 단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계형식의 식재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암사의 경우 경사는 부석사보다 심하지 않으나 경사면을 여러 단으로 나누어 석단을 만들고 그 사이에 화계를 조성하였는데, 다양한 식물재료를 도입하여 소위 꽃공양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봉정사의 경우 만세루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심한 경사면을 여러 단으로 나누어 축석하고 석단 사이에 화계를 조성하였으며, 마곡사는 대웅보전과 대광명전 후면부에 화계를 조성하였다.

5) 담장

담장은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일정한 높이로 쌓은 수직적 구조물로, 경계표시, 시선차단, 통행제한, 차폐·방음·방화 등의 기능을 한다. 담장의 초기형태는 간단한 목책이나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기능적인 울타리였으나 점차 발전하여 기능성은 물론 장식성까지도 추구하는 경관요소로 발전하게 되었다.

담장은 재료와 축조방식 그리고 디자인에 따라서 다른 형식을 보이게 된다. 우리나라 담장의 재료는 주로 흙, 돌, 벽돌, 와편, 식물 등 다양하며,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사고석 담장, 꽃담, 와편담장, 돌담, 토담, 토석담, 생울타리 등을 만들게 된다.

잠정등록된 7개 사찰의 경우에도 어김없이 담장을 쌓아 성곽을 구분하였으며, 경역 내부에서는 내담을 축조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 담장들은 대체로 토석담으로 기능성 위주로 축조하였으나, 법주사 내담과 같이 문양을 넣어 의미를 부여한 담장도 찾아볼 수 있다.

7개 사찰가운데에서는 법주사 담장이 비교적 눈에 띄는데, 이 담장은 장대석을 2단으로 쌓아올리고 그 위에 돌과 와편, 둥근 모양으로 깎은 화강석을 적당하게 배치하고 그 사이에 희(囍)자를 새겨 넣었다. 다양한 재료의 조합 그리고 의미 있는 문자를 새긴 법주사의 꽃담은 특별한 장식성과 상징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2. 수경요소

한국의 사찰은 山紫水明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까닭에 수경관 조성에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특히 한국사찰이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선정요건으로 작용한 풍수지리적 개념은 산수와의 상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이때 물을 산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였다.¹⁵¹⁾ 그 결과 산지사찰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계류를 끼고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한국의 전통산사는 수경관이 풍부할 수밖에 없었다. 을 풍부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전통산사에서 발견되는 수경요소는 계류, 계담, 연지, 영지, 석수조와 계류를 건너기 위해 만든 다리 등이다.

1) 계류

산지에 입지한 사찰은 대부분 사역 좌우측으로 흘러내린 계류가 사역 앞을 통과하여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물 흐름을 보인다. 이때 사찰의 진입문인 일주문은 계류너머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배치법인데, 그것은 산지사찰이 수미산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즉, 일주문 앞에 흐르는 계류는 수미산 구조에서 본 香水海에 해당되며, 그것은 곧 성과 속을 구분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의 공간인 사찰의 경역은 의도적으로 계류를 경계로 삼아 정하게 되며, 그 계류에는 彼岸橋 내지 解脫橋라고 하는 다리를 놓아 성의 세계와 속의 세계를 연결한다.¹⁵²⁾ 이렇게 자연계류와 일주문을 상관지어 배치하는 것은 환경조건을 교리와 연결시킨 것으로 매우 독창적인 디자인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잠정등록된 7개 사찰 가운데 부석사를 제외한 사찰들은 모두 원근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사역 좌측이나 우측으로 계류가 흘러 일주문 앞을 통과하는 물 흐름을 보이고 있어 풍수지리

151) 이러한 물의 중요성 때문에 풍수가들은 예로부터 혈을 찾고자 할 때 산을 보지 말고 물을 보라고 하였던 것이다(정경연, 2009).

152) 한국사찰의 다리 중에는 순천 仙巖寺의 昇仙橋가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알려져 있다.

적으로 볼 때 명당수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계담

계담은 말 그대로 계류를 막아서 만든 못이다. 산지사찰의 경우 사역 좌우에 흘러내리는 계류를 막으면 멧진 못이 만들어진다. 한국사찰의 경우 계담이 형성된 곳이 여러 군데 있으며, 이렇게 계담을 만드는 것은 풍수지리적으로 길한 물을 만들기 위한 목적¹⁵³⁾과 경관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¹⁵⁴⁾ 그리고 기능적으로 방화수와 같은 용도로 쓰기 위해서 물을 모으기 위한 목적이 있다.

잠정등록된 7개 사찰 가운데에서 본격적인 계담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곳은 마곡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다.¹⁵⁵⁾ 그러나 마곡사의 계담도 오래된 것은 아니고 보면 7개 사찰의 경우 계담의 의미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연지

사찰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연지는 관무량수경에서 설해지고 있는 극락정토의 못물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관무량수경에서는 극락정토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서 16관이 설해지고 있는데, 그 중 제 5관이 못물을 생각하는 寶池觀이다(이태원역, 1995). 정토삼부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변상도 가운데에서 고려시대에 그려진 몇 가지 관경변상도를 토대로 연못의 형태를 살펴보면 극락세계의 연못은 대체적으로 방형과 원형이며, 그 속에는 연꽃이 가득 피어있는 형식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통사찰에는 극락세계의 못물을 상징하는 연못이 보이기는 하나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오래된 연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다. 이것은 사찰이 산지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비가 와서 산사태가 나면 묻히기도 하고, 관리가 용이치 않아 인위적으로 묻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¹⁵⁶⁾

잠정등록된 7개 사찰의 경우 연지의 형식을 볼 수 있는 곳은 통도사, 선암사, 대흥사 정도이다. 통도사의 경우는 금강계단과 대웅전 그리고 삼성각에 둘러싸인 공간에 자리를 잡고 있는 구룡지가 있으며, 선암사의 경우에는 진입과정에서 나타나는 삼인당과 경내 여러 곳에서 연지의 기능을 가진 못을 볼 수 있다. 대흥사의 경우에는 無染池라고 이름 붙여진 연지가 남아 있다.

통도사 九龍池는 통도사창건연기와 관련이 있는 못이다. 이 못은 타원형으로 만들었으며, 중간에 다리가 걸려있는데, 일본 지당에서 흔히 볼 수 절석으로 만든 평교이다. 더구나 호안을 마무리한 방식도 화강석을 둥글게 깎아 돌렸는데 이러한 형식은 한국정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다리의 존재와 형식 그리고 호안의 형식으로 볼 때, 구룡지는 한국전통 양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구룡지의 규모는 장변이 8.8m, 단변이 5.6m로 그다지 크지 않다. 못을 구성하는 호안의 전체 석축높이는 1.6m이고, 못 깊이는 1.1m이며, 드러난 석축의 높이

153) 풍수지리적으로 길한 물에는 池塘水와 녹저수가 있는데, 지당수가 자연적으로 형성되지 않을 경우 계류를 막아 계담을 만들게 된다(정경연, 2009).

154) 경관적으로 쓰인 계담 가운데에는 송광사 진입공간에 형성된 계담이 좋은 사례이다. 송광사의 계담은 영지의 기능을 하는 羽化閣이 지어진 다리의 홍예가 계담에 떨어지면 원상을 이루게 된다.

155) 그러나 사역주변의 계류에는 요소요소에 계담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계담이 가진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56) 실제로 최근에 발굴조사된 실상사 연지의 경우에도 자연적으로 매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날에는 연지가 한번 묻히게 되면 그것을 복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는 약 50cm 정도이다. 갑석처럼 조성한 둘레돌은 90cm 정도의 길이에 높이는 25cm 정도이다.



그림1. 관경십육관변상도/고려시대작품, 일본 지온인 소장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2010, 고려불화대전도록, p.46)

선암사의 경우는 우리나라 사찰 가운데에서 못을 가장 많이 가진 절이다. 그러나 선암사에 남아있는 ‘선암사중창건도기’¹⁵⁷⁾의 그림을 검토해볼 때, 지금 선암사에 존재하는 연지들 가운데에는 그 당시에 없었던 것도 있고, 형태가 다른 것도 있어 ‘중창건도기’가 그려진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해우소 아래, 일주문 좌측편 공간에 조성되었던 곡지는 야리미즈까지 갖추고, 호안이 곡선으로 처리된 못이었었는데, 이러한 형식으로 판단하거나 일제강점기 선암사의 사격으로 볼 때 이 못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못이었음이 분명하다(하재호, 1997:85-89). 그러나 지금은 성보박물관을 짓는 과정에서 야리미즈도 훼손되어 없어지고, 못의 형식 또한 바뀌어 지난날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곡지에 물을 끌어들이는 야리미즈의 전체 길이는 약 23m, 폭은 30~50cm이며, 곡수로 중간의 두 군데에 5~10cm의 낙차를 두었고 다시 지당과 접하는 부분에 60cm 이상의 낙차를 둠으로써 물이 입수되는 과정에서 폭포효과를 내도록 만들어 시각적 효과에 청각적 효과를 더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곡수로

157) ‘선암사중창건도기’의 화기(畵記)에는 이 건도기의 제작연도가 고려 의종 원년(1147)으로 되어 있다.

전체 구배가 7.5%로 시공되어있어 토사의 퇴적을 방지할 수 있는 0.6% 이상의 구배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물의 유동미와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형되기 전의 상하지의 크기를 보면, 상지의 경우 동서장변이 13m, 남북단변이 4.6m이며, 하지의 경우에는 동서장변이 19m, 남북단변이 9m이다. 변형이 이루어진 현재의 곡지는 동서장변이 19.5m, 남북단변이 8m이며, 석축의 높이는 1.1m, 수심 17cm, 노출된 석축의 높이는 90c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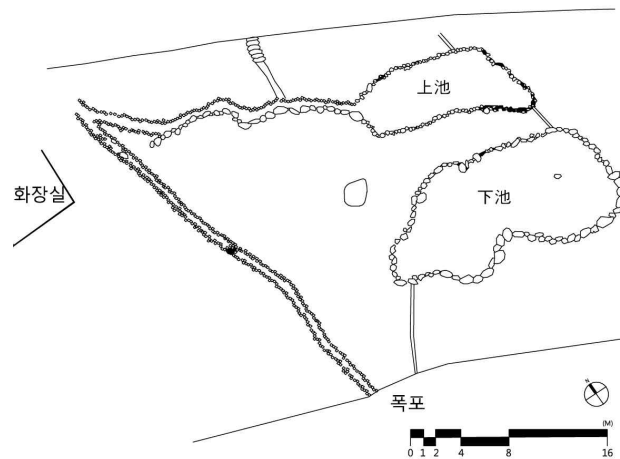


그림2. 선암사 곡지의 변형되기 전의 형식(출처: 하재호, 1998, p.57)

선암사 청파당 동쪽의 쌍지의 경우에도 중창건도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으나 언제부터 이 자리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쌍지의 규모는 동·서지 모두 동서변의 길이가 5.3m, 남북변의 길이는 약 4.5m 정도 되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을 가진다. 호안석축의 높이는 동·서지 모두 약 1.3m 정도이며, 드러난 석축의 높이는 0.9m 정도로 현재의 물높이는 40cm이다. 근래에 장경각 옆에 만든 방지 역시 과거에는 없던 연지로 이러한 못의 조성은 선암사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현상변경허가를 낼 때 유의하여야 한다. 삼성각 앞 처진 소나무 아래에 물이 고인 웅덩이가 있는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대흥사의 무염지는 일제강점기 응송 박영희스님이 주지로 있을 때 일본인 작정가에 의해서 작정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이 작정가는 목포의 이훈동가의 정원을 만든 장본인인데, 형식 또한 일본정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나라 사찰의 전형적인 형식이라고 볼 수 없다. 무염지의 호안석축은 70cm 높이로 축조되어 있으며, 수심은 20cm로 드러난 석축은 50cm 정도이다.

표4. 연지의 형식

사찰과 연지	형태	섬의 유무	다리의 유무	비고
통도사 구룡지	타원형	무	유(절석)	
선암사 쌍지	방형	무	무	호안석축이 견치석쌓기로 되어있었으나 전통식으로 수리되었음
선암사 일주문 옆 곡지	곡지형	무	무	원형이 훼손된 변형된 형태로 남아있음
대흥사 무염지	곡지형	무	무	

4) 영지

영지는 불교에서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부처님, 탑, 산의 그림자(佛影, 塔影, 山影)를 비치도록 만든 수경요소이다.¹⁵⁸⁾ 사찰에서 영지가 놓이는 장소는 다양하나 주로 일주문 근처나, 탑의 주위 그리고 산봉우리가 잘 비쳐질 수 있는 곳에 조성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찰에서 영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불영사의 불영지(佛影池), 불국사의 구품연지(塔影池), 청평사 문수원의 영지(山影池) 등이 대표적이다.

잠재등록된 7개 사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영지는 통도사 영산전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원형지와 선암사 삼인당이 전부이다.

통도사 원형지에는 탑과 법당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어 불영지와 탑영지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못이 언제부터 통도사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호안이 둥글게 깎은 화강석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형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원형지는 장변 4.6m, 단변 역시 4.6m로 동일한 반지름을 가지고 조성되었으며, 호안석축의 전체 높이는 1.4m, 물높이는 1.1m로 드러난 석축의 높이는 30cm 정도이다.

선암사 三印塘은 ‘三印’¹⁵⁹⁾이 못에 비치는 못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삼인당은 중창건도기에 장방형 방지로 표현되어 있으나, 지금은 가운데 섬을 둔 타원형 못으로 되어있어 원형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못은 삼인당의 호안은 장변의 길이가 약 30m, 단변은 12m이며, 석축의 높이는 1.6m 정도이고 수심은 약 0.6m이다. 못의 동쪽에 치우쳐 축조된 卵形의 섬은 장축 9m, 단축 8m이며, 전나무 1주와 배롱나무 1주가 심어져 있다.

표5. 영지의 형식

사찰과 연지	형태	섬의 유무와 형태	다리의 유무	비고
통도사 원형지	원형	무	무	
선암사 삼인당	타원형	유(타원형)	무	

158) 불영송상(佛影崇尙)은 일반인들에게 신이적인 내용을 전달하여 종교적 감동을 주고자 하는 초기불교의 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홍광표, 1994:80).

159) 삼인은 ‘제행무상인(諸行無常印)’, ‘제법무아인(諸法無我印)’, ‘열반적정인(涅槃寂靜印)’ 등 ‘삼법인(三法印)’을 뜻한다.

5) 석수조

석수조는 돌을 파서 만든 것으로 대개 승방의 우물가나 취사장에 가까운 중정에 놓이게 되며, 주로 식수를 담는데 쓰인다. 여기에서 석조의 형태는 대개가 장방형이지만 원형으로 된 것도 있다. 잠재등록된 7개 사찰의 경우에는 모두 석수조가 있어 이것이 사찰에서는 매우 중요한 쓰임새를 가졌던 수요소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7개 사찰의 석수조 가운데에서는 선암사 달마전 뒤편에 있는 석수조가 단연 돋보인다. 선암사 달마전 석수조는 상, 중, 하 세 개의 수조로 구성되어 있어 삼탕이라고도 불리며, 돌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배치된 조형미는 지극히 예술적이다. 그 밖의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석수조도 역사성을 가진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석수조의 존재여부가 그 사찰들의 역사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식물요소

한국사찰은 건축이 중심이 되는 공간구성을 하고 있어서 식물경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대웅전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공간의 경우에는 종교적 의식이 치러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식물이 도입될 경우 오히려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불교적 상징성을 가진 찰피나무, 전나무, 파초와 같은 식물들의 도입은 공간의 성격이나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도입되었다. 더구나 연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연을 심어 극락정토를 상징하거나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다. 한편, 진입로와 화계에는 적극적으로 식물이 도입되었는데, 진입로의 경우에는 중심공간으로 이행하는 방향성을 부여하였고, 화계의 경우에는 아름다움과 건강함을 위한 식물을 도입하였다.

한국사찰에 식물경관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고문헌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즉, 『고려사』에는 김부식이 창건한 觀瀾寺에 관한 기사가 실려 전하는데, 절의 북산이 황폐해 있으므로 민간인들을 동원하여 松, 柏, 杉, 檜 등의 수목과 奇花異草를 심었다고 한다. 『동국여지승람』에는 花巖寺에 관한 기사가 전해지는데 “못가에는 창포가 우거져 있고 섬돌 앞에는 노랑목단이 활짝 피어 마당과 담을 누렇게 물들이고 있으며, 작약도 붉게 피어 중국 초나라의 미인 서시를 취하게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다. 이것을 보면 한국의 사찰에서도 아름다운 식물경관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사찰이 경내에 많은 식물을 도입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지사찰 주변의 산야에는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차경을 통해서 주변의 식물경관을 시각적으로 경내에 끌어들여 사찰이 경관적으로 수승하도록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진입로변의 식물

7개 사찰 대부분 진입로 변에 식물이 잘 발달하여 있으며, 사찰마다 독특한 경관적 정체성을 보이고 있다.

법주사의 경우에는 소나무, 전나무, 마곡사의 경우에는 단풍나무, 은행나무, 참나무류, 부석사는 은행나무, 봉정사는 소나무와 전나무, 통도사는 산문에서 일주문으로 연결되는 진입로에 소나무 단일수종으로 형성되어 있고, 일주문 전면부에는 느티나무와 팽나무 고목이 있어 절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일주문과 천왕문 사이에는 느티나무, 배롱나무, 단풍나무 등 낙엽 활엽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선암사는 삼나무, 편백나무, 대흥사는 동백나무, 참나무류 등이 진입로 변에서 볼 수 있는 식물들이다. 이 나무들은 인공적으로 심어진 것도 있지만 자생적으로 형성된 경우도 있다. 통도사의 경우처럼 소나무 숲을 이룬 경우에는 자생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부석사와 같이 열식된 경우는 인공적으로 심어진 것이다.

사찰의 진입로 변에 상록수나 활엽수를 식재한 것은 오래전부터 있어온 관행으로서 진입로를 중심으로 비스타를 형성하여 방향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입로 변에서 볼 수 있는 식물 중 상록수의 경우에는 사시사철 푸르름을 주어 변함없는 경관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낙엽활엽수의 경우에는 봄이 되면 새싹이 움트는 식물경관을, 여름이 되면 녹음이 훌륭한 식물경관을, 가을철이 되면 단풍으로 물든 아름다운 식물경관을 감상할 수 있게 하여 계절감을 주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사찰의 진입로 변에는 주변의 자연식생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수종을 결정하고 식물경관을 조성하였는데, 이것은 자연과의 상생의 조화를 추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 경내의 식물

한국사찰의 경내에는 7개 사찰의 경우 경내에는 매우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 각 사찰에 도입된 식물들은 매우 다양하며, 그 기능 또한 여러 가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법주사의 경우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사천왕문 앞에 대칭으로 심어진 전나무 2그루와 대웅보전 앞에 대칭으로 심어진 찰피나무 2그루이다. 그밖에도 은행나무, 단풍나무, 왕벚나무, 벚나무, 야광나무, 앵도나무, 매실나무, 계수나무, 박태기나무, 모감주나무, 찰피나무, 모과나무, 목련, 명자나무, 소나무, 주목, 향나무, 백송, 전나무 등이 있다. 주로 교목이나 소교목에 속하는 수종이 대부분으로 관목이나 초화류는 많지 않다.

마곡사의 경우에는 응진전 전면 남쪽 편의 처진소나무가 가장 특징적이다. 그밖에도 대웅보전 영역에는 느티나무, 굴참나무, 물푸레나무, 고로쇠나무, 참죽나무, 자목련, 단풍나무, 갈참나무, 찰피나무, 소나무, 향나무, 전나무, 대나무, 산철쭉 등이 있다.

부석사는 보장각 남서쪽의 산수유와 회전문 주변의 찰피나무가 볼 만하며, 그밖에도 단풍나무, 매실나무, 은행나무, 밤나무, 박태기나무, 배나무, 무궁화, 백목련, 졸참나무, 고욤나무, 소나무, 향나무, 측백나무, 개비자나무, 소나무, 주목, 회양목, 골담초, 불두화, 파초, 수국, 붓꽃 등을 볼 수 있다.

봉정사는 만세루 앞 진입로 변에 있는 소나무 몇 그루와 전나무가 시각적으로 가장 눈에 띈다. 특히 맨 앞에 있는 소나무 한그루는 수령이 180년 된 노거수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삼성각 쪽 능선부에도 당단풍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이 비교적 오래된 나무로 절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밖에도 뽕나무 등이 있다. 다른 사찰에 비해서 봉정사의 경우에는 경내에 나무를 많이 심지 않았는데, 현재 사역 내에서 볼 수 있는 비교적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은 자연적으로 자란 것이다.

통도사는 구룡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에 자라는 배롱나무와 영산홍이 지당과 조화를 이룬다. 그밖에 황화각과 대광명전 주변의 파초는 불교적 상징성을 가진 식물이며, 동백나무, 팽팽나무, 꽃사과, 흰동백, 홍매, 산수유, 매실나무, 쪽동백, 목련, 감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금목서, 오죽 등 매우 다양한 식물상을 보이고 있다.

선암사는 다른 어떤 사찰보다도 나무가 많기로 이름이 나있는 사찰이다. 이렇게 나무가 많은 것은 일제강점기에 경내에 인공적으로 식재를 한 까닭으로 보인다. 선암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나무는 선암매라고 명명된 홍매로, 수령이 600년이나 된 것이다. 또한, 삼성각 전면에 자리 잡고 있는 처진소나무와 대웅전 후면 석단 위의 철쭉 또한 오래된 수목이다. 그밖에도 대웅전 마당의 전나무, 불두화, 설선당 주변의 배롱나무, 팽팽나무, 팔손이, 적목당 주변의 왕벚나무, 전나무, 금식나무, 소나무, 처진개벚나무, 무량수전과 삼성각 마당의 소나무, 은목서,

장경각 전면의 편백나무, 석류, 동백나무, 후면의 은행나무, 감나무, 동백나무, 매실나무, 불조전과 팔상전 앞마당의 파초, 동백나무, 목서, 겹벚나무, 매실나무, 왕벚나무, 응진당 앞의 불두화, 단풍나무, 서어나무, 왕벚나무 등이 있다. 한편, 삼인당 내 섬에는 배롱나무와 단풍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호안선을 따라 전나무, 서어나무, 단풍나무가 있다.

대흥사에는 대웅보전 영역에 공작단풍, 은행나무가 있고, 천불전에 느티나무, 향나무, 범종각 주변에 골담초와 느티나무, 심검당에 소나무, 배롱나무, 매실나무, 비파나무, 감나무, 정진당에 느티나무 등이 있다.

표6. 공간별 도입식물

사찰	진입로변의 식물	경내의 식물
법주사	소나무, 전나무	전나무 2그루, 찰피나무 2그루 등
마곡사	단풍나무, 은행나무, 참나무류,	처진소나무 등
부석사	은행나무	산수유와 찰피나무 등
봉정사	소나무, 전나무	당단풍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뽕나무 등
통도사	산문-일주문:소나무 일주문 전면부:느티나무와 팽나무 고목 일주문-천왕문:느티나무, 배롱나무, 단풍나무	배롱나무, 영산홍, 파초 등
선암사	삼나무, 편백나무,	선암매, 처진소나무, 철쭉 등
대흥사	동백나무, 참나무류	은행나무, 느티나무, 동백나무 등

4. 점경요소

점경물 또한 조경적 요소로서 중요한 경관요소가 된다. 한국사찰의 점경요소로는 진입로에서 볼 수 있는 장승, 돌무더기, 하마비, 당간지주 등과 경내에서 볼 수 있는 굴뚝과 같은 것들이다.

1) 장승

장승은 나무나 돌로 만든 기둥의 윗면에 신이나 장군의 얼굴을 새기고, 몸통에는 그것에게 부여한 역할을 나타내는 글을 쓰거나 새겨서 길가에 세우는 일종의 신상이다. 사찰입구에 장승을 세우는 전통은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에 세워진 장승들로는 보림사장생표주(寶林寺長生標柱), 운문산선원장생(雲門山禪院長生), 통도사비보장생표(通度寺裨補長生標), 통도사국장생(通度寺國長生), 도갑사장생(道岬寺長生), 안악연등사장생표(安岳燃燈寺長生標)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장생으로 표현되는 특징을 보인다. 장생이 신선사상의 장생불사(長生不死)에서 차용된 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신라, 고려시대에 사찰입구나 주변에 만들어 세운 장승들은 대체로 국왕의 장수를 기원하는 것이거나 도선이 세운 비보사찰과 연관되어 만들어진 것들은 비보나 방위표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역불승유정책을 국가의 근본으로 삼게 되면서 신라, 고려시대에 유행하던 장생표의 설치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단지 사찰의 청정법역을 지키는 호법장생(長性)이 만들어져서 사찰의 입구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 형태는 이전의 기둥형, 비석형, 돌무더기형에서 선인이나 귀면같은 얼굴을 가진 우상형(偶像形)으로 변화된다.

잠재등록된 7개 사찰 가운데에서 통도사의 비보장생과 국장생은 사찰의 오랜 전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다.

2) 돌무더기

산사 가는 길에는 이곳저곳에 무더기를 이루며 쌓아올려진 돌탑이 많다. 이러한 돌탑은 積石信仰이나 建塔思想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적석신앙은 오랜 역사를 지니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나타나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견된다. 건탑사상 역시 적석신앙과 무관하지 않다.

7개 사찰의 경우 돌무더기는 진입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며, 선암사의 경우처럼 장승과 결합된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곳도 있다.

3) 하마비

하마비는 일정 공간이상의 영역에서는 말을 타지 말고 말에서 내려서 걸으라는 표시로 세워둔 비석이다. 오래전에는 이 하마비가 사찰에 많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대부분 없어지고 많지 않은 실정이다. 선암사 진입로에는 하마비가 남아있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하마지의 존재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사찰이나 일본사찰의 경우에도 하마비가 있다. 일본사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下乘’ 이라고 쓴 비가 문 앞에 세워져 있다. 한국사찰이 일주문으로부터 상당거리를 두고 하마비를 세우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4) 당간지주

당간지주란 당간을 지탱하기 위해 당간의 좌우에 세운 기둥 곧 지주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사찰 들어가는 입구에 세우는 것이 보통이었다. 당이란 기당의 일종이며, 당간은 당을 달아주는 장대로써 대개 석재나 철제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당과 당간은 통일신라시대 이후부터 각 사찰에서 건조되었던 것인데, 현재는 당이나 당간은 대부분 없어지고 없고, 단지 그것을 지탱하던 지주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부석사 들어가는 입구에 남아있는 당간지주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5) 굴뚝

굴뚝은 취사와 난방설비의 하나이며,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 전통공간의 매우 중요한 시각적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굴뚝의 종류에는 처마 밑에 간단히 구멍을 뚫거나 툇마루 밑에 구멍을 내어 배기했던 간이형 굴뚝, 주 건물의 몸체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축조하여 지하로 구들 고래와 연결한 독립형 굴뚝 그리고 담장과 굴뚝을 구조적으로 같이 건축하여 두 기능을 복합시킨 복합형 굴뚝이 있다. 사찰의 경우에는 이 3가지 유형 중 독립형 굴뚝이 많다.

사찰의 굴뚝은 그 사찰의 격이나 규모에 맞도록 위치와 높이 그리고 형태가 결정되는데, 언제나 지나친 법이 없이 소박하고 단정하다. 그렇다고 해서 장식성이 아주 없지는 않아 어떤 경우에는 굴뚝이 중요한 경관요소가 되기도 한다.

잠정등록된 7개 사찰의 경우에도 굴뚝은 빠짐없이 보이는 경관요소이다. 그 가운데에서 마곡사의 굴뚝은 하부가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게 만든 특이한 형태의 굴뚝이다. 이 굴뚝은 하부에 자연석을 서너단 놓아 기초를 튼튼히 한 후 위로 올라가면서 와편을 켜켜이 쌓고 그 사이에 진흙을 채워 넣었다. 형태도 특이하지만 굴뚝 중간에 두 차례나 반복하여 수키와를 등

이 보이도록 박아 넣어 독특한 양식의 문양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처리로 인하여 이 굴뚝은 생각 없이 맛있게 와편과 진흙을 섞어서 쌓아올린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준다. 한편, 봉정사 극락전 옆 마당에 설치한 굴뚝과 봉정사 영산암 안마당의 굴뚝 그리고 선암사 달마전 옆 마당의 굴뚝은 높이를 낮게 만든 난쟁이굴뚝으로 특징 있는 의장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도 대상사찰의 굴뚝들은 하나같이 정성들여서 만든 흔적을 살필 수 있게 하여 지난날의 조형의지를 살필 수 있게 한다.

Ⅲ. 잠정등록 7개 전통산사의 세계유산적 가치

1. 탁월한 보편적 가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에는 한국전통산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문화재청, 2013: 15).

“이들은 인도에서 비롯된 불교의 원형을 유지하고, 중국적인 요소를 계승하면서도 한국의 토착성을 농후하게 가미한 독특한 형식과 공간을 표현한다. 그리고 산지라는 지형적 요인은 한국식 가람배치의 전통을 낳았다. 이렇게 해서 한국 사찰건축은 주변경관과 조화하는 내·외 부공간을 구성한다. 이들 전통산지사찰은 한국불교만이 가지는 선교융합의 통불교적 사상과 기능, 의식, 승려, 생활, 문화 등 종합적 사찰로써 현재까지 유지되고 계승되는 지속성과 생명력을 지닌 유산이다.”

그리고 부합하는 등재기준으로 (ii), (iii), (iv), (vi)을 들고 있다.

1) 등재기준 (ii)

등재기준 (ii)의 내용은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계획이나 조경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인간가치의 중요한 교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찰의 경우 인도에서 발상된 불교의 교리와 문화를 중국을 통해서 받아들이면서 인도, 중국의 사찰과는 다른 한국의 고유한 신앙이나 문화가 계재된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산지사찰에서 뚜렷이 보이는데, 진입과정에서 볼 수 있는 삼문과 누각을 통한 통과 의례적 이행체계의 확보와 중심공간에서 나타나는 마당이 주변의 자연환경과 상호관입되면서 만들어지는 개방성의 확보 등이 등재기준 (ii)를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또한 산사의 경사진 지형을 처리하기 위한 석단이나 화계의 도입, 누각을 통해서 주변의 자연경관을 차경하는 기법 그리고 입지선정기준으로 작용한 풍수지리의 중요한 조건인 장풍과 득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계류의 존재 역시 그러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 결과들은 다른 나라의 불교사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며, 잠정등록된 7개 사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어서 객관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등재기준 (iii)

등재기준 (iii)의 내용은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로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문화성을 요구한다.

7개 잠정등록된 전통산사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화적 전통으로 석단이나 화계를 조성하기 위한 돌쌓기방식이나 진입과정에서 나타나는 점경요소인 장승이나 돌무더기, 하마비 등은 이제 산사에 남아있는 것들이 하나의 원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들은 지난날 한국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나타난 특별한 문화이며, 한국의 전통산사의 문화성을 유지하는 증거가 된다.

3) 등재기준 (iv)

등재기준 (iv)는 “인류역사에 있어 주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이어야 한다”로 조경적 측면에서 볼 때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경관 유형을 증거로 제시하여야 한다.

잠정등록된 7개 사찰의 경관유형 중 등재기준 (iv)에 부합하는 것으로 산사의 자연지형을 처리하기 위하여 석단을 축조하여 공간을 확보한 것, 전체공간을 상단, 중단, 하단으로 차별화하여 공간의 영역성을 분명히 하고 더불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인 것, 사찰 내에 불교도입 당시 기존에 존재했던 민간신앙의 예배대상을 위한 건물을 짓고 그것이 불보살을 모신 전각이나 당우와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한 것, 진입로변에 나무를 심어 독특한 진입경관을 형성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4) 등재기준 (vi)

등재기준 (vi)은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로 탁월한 예술적, 문학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연결된다.

전통산사는 우리나라의 건축이나 조경예술을 한 차원 높인 매우 중요한 실험이 이루어진 곳이다. 경사지를 활용 가능하도록 만든 석단의 축조와 누각과 같이 경사지에 적합한 건축양식의 창안, 석단을 축조해서 형성한 공간에 맞도록 축을 만들고 건물을 배치하는 기법 등이 그것이다. 또한 풍수지리적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물을 도입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조경기법이다. 한편, 선불교의 고사와 관련된 식물로 전나무와 파초를 경내에 도입한 것 또한 사상적 내용을 현실적으로 표현한 예술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불교는 선불교가 중심이 되는 통불교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전통산사는 대부분 선종사찰에 해당한다. 선사들의 생각이나 자연에 대한 느낌을 표현한 선시와 같은 문학작품은 선사상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며, 산사의 자연환경이 가진 우수성이 바탕이 된 것이다.

2. 진정성과 완전성의 확보

1) 진정성의 문제

문화유산의 현재적 존립근거는 진정성의 이해와 확보에 있으며, 진정성은 지속가능한 보전의 판단기준이자 출발점이 된다(이상해, 2012:10). 따라서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유산은 세계유산으로서의 존립근거가 없다.

조경적 측면에서 볼 때, 잠재등록된 7개 전통산사의 경우에는 경사지를 평지로 만들기 위해 축조한 석단은 산사의 진정성이 담보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석단의 진정성 여부는 중요한 세계유산등재의 기준이 된다. 또한, 일주문으로부터 중심공간으로 연결되는 진입로, 건물에 의해서 둘러싸인 마당, 연지나 영지의 원형성 여부, 식물요소의 변화여부 등이 진정성 여부를 가늠하는 요건이 되므로 이것들에 대한 진정성여부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7개 사찰 가운데에서 석단이 출현하는 산사들 가운데 부석사와 봉정사의 경우는 원형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 진정성 입증에 문제가 없으나, 나머지 사찰들은 부분적으로 개축하거나 복원한 경우가 있어서 진정성 확보가 쉽지만은 않다. 특히 선암사의 경우 견치석으로 축조하거나 일본성곽의 형태로 축조된 석단들에 대한 복원이 이루어졌고, 통도사의 경우에도 금강계단 석단에 대한 복원작업이 시행된 바 있으며, 마곡사 역시 석단에 대한 부분적 개축이나 복원작업이 있었다.

일주문으로부터 주불전으로 이행하는 진입로의 경우에는 대흥사를 제외한 6개 사찰은 진정성이 유지되고 있다. 대흥사는 일주문이 있는 자리가 원래의 자리가 아니어서 진정성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

주불전 전면의 마당은 7개 사찰 모두 특별한 문제가 없이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통도사의 경우 대웅전 맞은편에 설법전을 지어 본래 마당이 가진 개방도를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대웅전에서 볼 때 건물의 규모가 커 보이지 않도록 스케일을 조정하여 특별한 경관적 문제는 없어 보인다. 잠재등록된 전통산사에서 진정성의 확보가 가장 확실한 대상은 역시 주불전 전면의 마당이다. 이 요소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원형유지가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진 곳이므로 전통산사의 세계유산등재에 있어서 주불전 마당의 진정성을 가장 강하게 강조해야 할 것이다.

7개 잠정등록된 전통산사에서 진정성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경관이다. 특히 연지와 영지가 존재하는 통도사, 선암사, 대흥사의 경우 연지와 영지가 본래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진정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통도사의 경우에는 구룡지와 원형지의 형식이 한국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중국이나 일본의 지당과 비교연구를 통해서 밝혀야 하며, 선암사의 경우 연지와 영지의 위치, 형태 등이 변화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으므로¹⁶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선암사 곡지와 대흥사 무염지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이 확실하므로 이것들에 대한 존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식물요소는 변화가 가장 큰 것이기도 하고 본래의 식물경관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진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7개 사찰 모두 외래종 식물이 있어 이들에 대한 제거가 필요하다. 또한 선암사와 같이 지나치게 식물의 도입이 많은 경우와 일제강점기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한다.

점경요소의 경우에는 진정성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강조할 부분만 강조하고 현재 없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완전성의 문제

한국사찰의 완전성 확보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규모의 완전성 문제, 구조의 완전성 문제 그리고 양식의 완전성 문제이다. 따라서 잠정등록된 7개 사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3가지 측면의 완전성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해결해야 한다. 한국사찰들

160) 삼인당의 경우 순천시에서 1997년도에 수리하였는데, 수리과정에서 다시 쌓은 호안석축이 이전의 호안석축에 비해서 한국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아 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진정성을 해치는 원인이 된다.

은 여러 차례의 兵火로 인해서 완전성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한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자연적이던 의도적이던 사찰의 규모와 구조 그리고 건축이나 조경 또는 불교미술작품들에 대한 손상이 컸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는 잠정등록된 7개 사찰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규모의 완전성 문제는 원래 설정된 사찰경역의 범위의 변화와 경역내부에 존재했던 많은 건축물들이 소멸되어 과거의 규모를 되찾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7개 잠정등록된 사찰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비교적 충실히 보존된 사찰은 봉정사와 통도사라고 할 수 있겠다. 그대로 다행스러운 것은 사찰의 중심공간만은 잠정등록된 7개 사찰 모두 지난날의 규모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던지 복원을 통하여 원형을 되찾아 완전성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어 보인다. 물론 사찰의 범위가 중심공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가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찰에 존재하던 건축이나 조경 그리고 불교미술의 소멸에 의해 규모를 회복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과거의 원형과 상관없이 규모가 확대되는 것 또한 문제이다. 특히 불교의 기능이 복잡해지고 불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이러한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템플스테이를 수용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면서 경역이 확대되고 건물의 총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불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기존의 건물들과 조화되지 않는 규모의 건물을 짓는 경우, 정보박물관 등 현대불교의 특성을 수용하기 위해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가 부석사의 박물관과 템플스테이공간, 선암사의 박물관, 통도사의 설법전과 박물관 등이다.

조경적 관점에서 보면, 가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의 자연을 잠식해서 경역을 확장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더불어 진입로를 지나치게 넓히거나 아스콘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 사찰에 들어오는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사찰 지근거리에 크게 만드는 경우 등이 규모의 문제로 인해서 완전성이 훼손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잠정등록된 7개 사찰의 경우에는 규모의 확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완전성 문제는 비교적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구조의 완전성 문제는 사찰의 구조가 지난날과 달라졌거나, 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중심공간의 기능이 다른 공간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사찰에서 이렇게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는 진입동선의 경로를 달리하거나, 계층적 질서를 변경하는 경우에 나타나게 된다. 7개 사찰에서 이러한 구조적 완전성 문제가 의심스러운 곳은 대흥사일 수 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구조적 질서가 다른 방향으로 발전되거나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식의 완전성 문제는 진정성의 문제와 더불어 발생하게 된다. 조경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석단의 보수나 복원 시에 원래의 축척기법과는 다른 기법을 사용하여 양식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연지나 영지와 같은 지당의 호안처리, 입수와 배수시설의 처리, 섬이나 다리와 같은 장식요소의 도입 등 역시 완전성 문제를 헤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더 나아가 식물종의 잘못된 도입과 잘못된 위치에 식재를 하는 경우도 한국사찰의 양식적 정체성을 해치는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7개 사찰에서도 이러한 양식적 문제가 곳곳에서 다수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가운데에서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식물종의 도입문제와 식재문제는 하루속히 본래의 양식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IV. 결론

한국사찰은 한국인의 자연관과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국고유의 문화적이고 물리적 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찰은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의 사찰이나 우리에게 불교를 전해준 중국의 사찰 그리고 우리에게 불교를 전해 받은 일본의 사찰과 엄연히 다른 경관적 정체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사찰이 가진 고유성은 사찰의 입지에서부터 발생한다. 선불교의 도입과 유교중심적 사회로부터 탈피하여 깊은 산, 경사진 터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한국의 사찰은 그러한 자연환경적 조건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적 해결방법을 마련하게 된다. 자연환경에 맞게 규모를 정하고, 지형적 조건에 어울리도록 건물과 외부공간을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가파른 경사지를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 중, 하단으로 공간을 구분하고, 경사면을 따라 시각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중심공간에 도달하는 과정에 몇 개의 문과 루를 도입하였다. 한국사찰은 이러한 지형처리과정에서 불교교리를 접목, 수용함으로써 다른 불교 국가의 사찰들과 차별화된 상징적 아이콘으로 발전될 수 있었다.

현재 유네스코에 잠정등록된 7개 전통산사의 조경현황을 살피고, 그것들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등록된 7개 사찰의 조경현황을 공간요소, 수경요소, 식물요소, 점경요소로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공간요소 가운데에서 진입로의 삼문진입체계, 마당의 구성과 주변의 자연과의 교호, 석단의 발생과 축조기법, 화계의 존재와 장식성 등이며, 수경요소에서는 사역주변을 흐르는 계류의 작용, 연지와 영지 같은 지당의 존재 등을 꼽을 수 있고, 식물요소에서는 진입로에 열식된 나무의 방향유도효과, 경내에 심어진 나무 가운데에서 불교교리와 연관된 식물종의 도입 등에서 발견된다.

둘째, 진정성과 완전성 측면에서 7개 잠정등록 사찰을 분석한 결과, 진정성 측면에서 볼 때, 공간요소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으나 수경요소에서는 연지와 영지 같은 지당에서 원형성과 연관된 문제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식물요소에서도 식물종과 식재위치에서 진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찾을 수 있었다. 완전성 측면에서는 규모, 구조, 양식으로 나누어 완전성을 살핀 결과, 규모의 문제에서는 원래의 규모를 되찾지 못한 경우와 원래의 규모를 확장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고, 구조의 문제에서는 본래 중심공간보다 새로 정비, 복원되는 공간이 주된 기능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으며, 양식의 문제로는 석단의 축조기법, 지당의 디자인, 식물종의 잘못된 도입과 잘못된 위치선정 등의 문제가 있었다.

한국의 전통산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그리고 진정성과 완전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만족시키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물론 한국사찰이 다른 불교국가의 사찰과 비교할 때, 고유성이 있고,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말은 틀리지 않지만 그것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고, 진정성과 완전성이 있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한국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국 전통산사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고, 진정성과 완전성이 있다는 사실을 유네스코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특히 7개 사찰에 대한 현황을 꼼꼼히 살피고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한국사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그리고 완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박물관, 2010, 고려불화대전도록
- 문화재청, 2013,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 이상해, 2012, 세계문화유산 등재 조건과 한국의 불교사찰, 동국대학교 사찰조경연구소 학술회의-한국사찰의 세계문화유산 무엇이 필요한가- 발표논문집
- 이태원역, 1995, 淨土三部經概說, 운주사
- 정경연, 2009, 정통 풍수지리, 평단문화사
- 하재호, 1997, 조계산 선암사의 식재경관과 수경관에서 발견되는 예외적 현상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광표, 1991, 통도사의 입지선정과 공간구성변화에 관한 연구, 불교문화연구 2
- 홍광표, 1994, 불국사 연지에 관한 일고찰, 한국정원학회지 12(2)
- 홍광표, 2010, 한국사찰의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한 전략,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16(1),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
- 홍광표, 2011, 한국사찰에 현현된 극락정토-관무량수경의 의보관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4), 2011.12.31. 한국전통조경학회

MEMO

한국의
전통산사

MEMO

한국의
전통산사

MEMO

한국의
전통산사